

제2권 제1호(통권3호)
1996 봄

여리초나 리 논 문

The Chungnam Review

특집/ 충남의 4대권역별 개발경영전략- 금강권

권 두에세이 ·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구상

특 집 · 충남의 4대권역별 개발경영전략-금강권

금강유역의 역사 지리적 고찰/나도승

금강권 개발전략의 모색/심문보

금강의 개발이 농 · 공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용철

용담댐 건설과 금강수계/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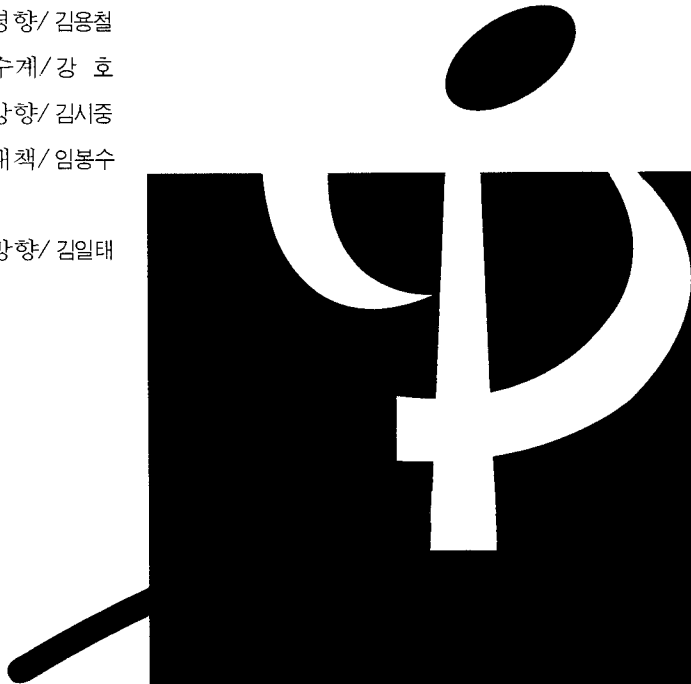
금강주변의 교통 · 관광개발 방향/김시중

금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임봉수

정 책제언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김일태

시 사칼럼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 구상

리가 흔히 「녹색」하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
고 「백색」을 통해 평화와
순결을 연상하는 것처럼
色調마다 표현하는 의미는
매우 독특하며, 그것이 때
로는 時代와 歷史의 흐름

에 까지 큰 影響을 미쳐왔
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체제가 붕괴된 동구
권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
금 한창 도시의 색조를 바
꾸기 위한 작업에 분주하
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획일성과 암
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했던
회색빛 일색을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색조로
바꿈으로써 개성있는 도시
로 탈바꿈 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서, 문득 인류역사의 분수
령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
라고 하는 대망의 2천년대
를 불과 5년 앞둔 이 시점
에,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색조는 무엇인지, 우리 도
민들이 만들어 가는 색채
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
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바로 그것이 발전
을 상징하는 푸르름이며, 희
망을 보여주는 장미빛이며,
충절의 명예와 온유한 심성

을 말해주는 평화의 비둘기 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民選 地方化時代를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새로운 忠南跳躍의 힘으로 昇華시키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처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기치로 내걸었을때 도민들께서는 큰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하는 염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은 결코 일반적인 발전의 척도인 물질의 충족이나, 개발이 우선되는 성장 위주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땅을 거쳐가신 先祖들의 위대한 精神과 찬란한 文化遺産을 오늘에 繼承하면서 物質과 精神, 開發과 保存이 調和을 이루는 삶의 質 높은 충남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開道 100주

년이 되는 해이자 民選自治 2次년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 입니다. 지난 100년동안의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하 부기관으로 기능해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명실공히 충남이 자치적으로 지역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自治道 政의 기틀을 土臺로 다가올 100년의 도약 의지를 다짐하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달라진 모습과 질 높은 봉사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人本」과 「經營」을 도정의 두축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도민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地域發展 基盤構築 입니다.

환경해권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21세기 西海岸 時代

의 前進基地이자 2천만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써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도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地域開發의 基本方向으로는 과거 물질적 성장위주의 획일적 개발방식에서 삶의 質 향상, 開發經營概念 도입 및 생활권역에 입각한 개발구도의 재설정 등 住民 本位の 開發方式으로 轉換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풍부한 開發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면서 발전제약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②人本的·參與的 개발철학을 정립하여 개발의 모든 가치기준을 道民爲主로 변경시키며, ③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開發과 保存의 調和, ④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리면서 모든 개발사업을 통합관리하는 開發經營方式의 導

入 등 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①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신
산업지대를 조성하여 수도
권기능을 능동적으로 분담
할 北部圈, ②21세기 대중
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될
西海岸圈, ③문화·관광·
위락·특화농업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위한 百濟圈,
④치수·주운·관광·특화
농업 육성을 위한 錦江圈
등 4대권역을 설정하고 모
든 개발사업을 「4大圈 開發
經營」으로 統合管理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서, 남-북을 상
호연결하는 「격자형」도로망
구축과 철도, 공항, 항만을
연계한 입체적 동선체계의
확립으로 廣域交通網을 구
축하고, 신규 취수원의 적
극개발과 양질의 급수원확
보 및 시설 유지관리의 효
율화로 대단위 개발사업 추
진에 따라 급증하는 用水需
要에 對處해 나가는 등 基
礎投資의 획기적 擴大로 지

역개발의 가속화 기반을 구
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둘째는, 地域經濟 育成施
策의 活氣찬 推進입니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선진
공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
성하며 中小企業의 애로사
항인 자금난과 판로를 地方
의으로 支援 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觀光資源 開發
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
와 21세기 농업기반을 착실
히 구축하고 국제통상협력
교류 확대를 통해 海外市場
을 적극 開拓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도로서의 위상
과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農漁村 活力化 10大 施策과
100가지 사업을 본격추진하
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農產物 流通施設을 擴大하
는 한편 농어촌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農漁民
의 士氣振作을 위한 「농정
서비스시책」을 적극 추진하
여 21세기형 프로농업 기반

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셋째는, 社會的 衡平을
위한 福祉施策의 균형적 推
進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新福
祉施策을 마련하여 법적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
란자에게는 特別生計費를
支援하고, 장애인에게는 개
인별, 장애정도별, 직업별
특성에 맞는 自活保護를 推
進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문화·생산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노
인종합복지회관」을 연차별
로 건립하고, 여성정책 전
담기구(여성정책심의관실)
가 설치됨에 따라 女性福祉
와 地位向上을 위한 施策을
적극개발·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넷째는, 쾌적한 自然環境
保全과 도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環
境保護施策의 展開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의 환경보호선언인「로컬아젠다 21」(local agenda 21)을 선포하고, 첨단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道內 40여개의 초등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운영 하는 등 우리도 全地域을 淸淨地域으로 保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충남정신을 21세기 정신문화 창조의 시대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忠南精神 發揚運動의 본격점화입니다.

스승존경운동, 도의새마을운동, 고향사랑운동 등 「충남정신 발양 3大운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테마박물관」 설립과 개도 100년사 발간, 「충남답」건립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固有의 精神을 發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완벽한 災難管理體制를 構築하여 주민생활

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구조·구난능력을 보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될 때 精神的으로는 인간미와 여유를 겸비하고, 物質的으로는 풍요로움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이 보장되며, 空間的으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 속에 쾌적한 보금자리가 꾸어질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멋과 맛과 흥과 정」이 어우러져, 4천만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복된충남 건설이라는 道政目標이 달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라기 보다는 「地方經營時代」에 살고 있으며, 중앙의 논리보다는 地方의 論理가, 중앙의 획일성 보다는 地方의 效率性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省公務員에게 프로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경영교육과 기업형 지방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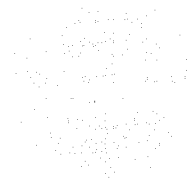
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姿勢와 覺悟가 必要한 시기입니다.

우리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정 100년의 문을 활짝 열면서, 보다 새로운 創造, 더욱 힘찬 挑戰, 그리고 名譽를 더해가는 使命感으로 충남인의 지고한 목표를 향해 새롭게 出發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무한한 可能性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름답고 밝고 희망찬 색깔로 「충남 21세기」를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진정 2천년대의 우리 충남은 統一國家시대의 모방적인 地方政府이다.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서 4천만이 살고싶은 최상의 복된터전으로 跳躍하리라 확신 합니다.

200만 도민의 애정어린 성원과 참여, 그리고 省公務員의 분발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충남의 4대 권역별 개발경영전략 - 금강권

- 강유역의 역사 지리적 고찰/나도승
- 강권 개발전략의 모색/심문보
- 강의 개발이 농·공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용철
- 담댐 건설과 금강수계/강 호
- 강주변의 교통·관광개발 방향/김시중
- 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임봉수

금강유역의 역사·지리적 고찰

나 도 승
(羅燾承)

금강권연구소장



I. 서 언

II. 금강유역의 자연환경

III. 고대의 금강유역

IV. 중세의 금강유역

V. 근대 교통로의 개발과 금강유역

VI. 결 언

I. 서 언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물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상상할 수 없으며, 그것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강물에 대한 인간

의 관심은 끊임 없었다. 특히 금강의 경우처럼 일정한 지역의 지역성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던 경우 더욱 중요시 되었다(Van Slyke L.P., 1988, p.211; 藤岡謙二郎, 1978, p.307; 奥田 久, 1977, p.168; 나도승, 1992, p.345).

금강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유역인의 젖줄이 되어 왔다. 군사적으로, 세조(稅租)의 수송로로서, 특히 근대 교통로 개발 이전에는 유역간은 물론 외방과의 상품 수송로서 그 이용도는 매우 높았다. 근대 철도 교통로에 밀려나면서 수운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농업을 위시한 각종의 용수원으로서 중요시 되어왔다. 최근들어 금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282.9만명(1991) 유역인구의 복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역개발을 위한 본격적 논의와 함께 금강유역의 지리적인 배경과 유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금상첨화라 하겠다. 이런 면을 감안하여 본고는 유역을 하나의 유기적 공간으로 보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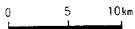
간 경제사회의 변동속에서 금강의 수운과 유역의 경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과거속의 유역의 현재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금강권 개발의 전략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II. 금강유역의 자연환경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은 한반도 서남부 평야지대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류하며, 유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과 경북의 일부 등 1광역시·4도·4시19군에 걸쳐 있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령에서 발원하며 해발 400m 내외의 진안고원 위를 심하게 감입곡류(嵌入曲流, incised meander) 하면서 북류한다. 금강의 별칭이기도 한 영동군 심천(深川)에 이르면 방향을 북서쪽으로 바꾸어 대청호로 흘러 든다. 상류부인 본 구간은 1/1,000 - 1/3,000로 급류를 이룬다(한국수자원공사, 1993, pp.1-3). 지질적으로 소백산 편마암대나 옥천계변성암이 매우 우세하고, 중생대 주라기에 형성된 대보화강암류가 널리 분포되는 금산·옥천읍은 거의 원형(圓形)에 가까운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다. 대청댐을 지나서 신탄진과 부강 사이에 이르면 하도의 종단면 곡선은 경사 급변점으로 나타나 한 여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근대 이전 수운 기능이 성했을 시절의 하선의 출입은

부강 하항을 상한계로 삼아 왔다. 그 이상의 구간은 소형인 시장선(市場船)만이 오르내리고 하였을 뿐이다. 부강에 이르면 유로가 크게 꺾이며, 합강리에서 충북 내륙부로 부터 흘러 나오는 미호천과 합류한다.

이하 하구부까지는 미호천 상류로부터 지질구조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구간별로 유로가 골개 이어지고 있다. 공주 공암부근에서 북서류 하다가 공주의 북쪽 전막(新關洞)에서 다시 크게 꺾여 남서류 하면서 북쪽 차령산맥에서 흘러 내린 정안천, 유구천, 금강천과 합류한 다음, 부여 규암에서 일시 남류하여 강경에 이른다. 신탄진에서 강경까지는 경기편마암대와 중생대 화성암류가 널리 분포되어 낮은 구릉지가 많고, 곡간(谷間)에는 좁은 범람원이 발달되어 퇴적평야를 볼 수 있다. 하폭이 400m에 이르는 강경 일대에서는 계룡산·대둔산지에서 흘러 내리는 석성천, 논산천과 합류된 다음, 유로는 다시 직각으로 꺾인다. 여기서부터 하구까지는 진강(鎭江)이란 옛 이름도 있으며, 하구가 가까이에 서천에서 유입되는 길산천 유역에 비옥한 서천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하구는 길이 1,814m, 높이 16.6m의 둑을 사이에 두고 서해를 마주하고 있다. 하상 경사가 1/5,000-1/8,000으로 완만해진 하류부의 강안은 제4기 이후에 있었던 해수면 변동(sea level change)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는 해수면 상승(海進)과 금강의 범람으로 운반된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제4기층은



〈그림1〉 금강의 주요 하계망(河系網)

954.1㎢에 이른다(충청남도, 1993, pp.93-106; 국립환경연구소, 1983, p.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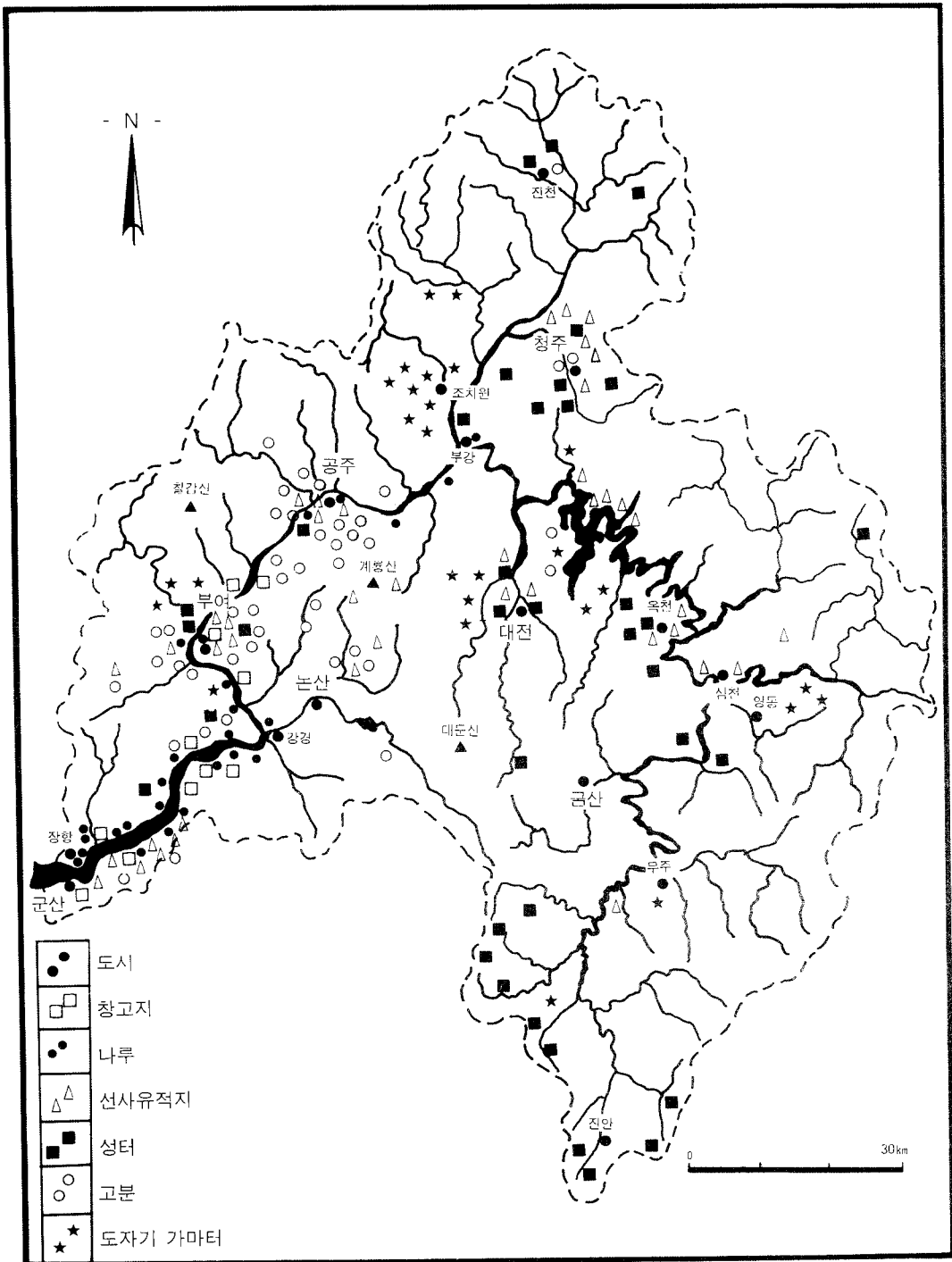
금강수계는 400km 정도인 본류와 약 2,000km에 이르는 300여개의 지류가 약 10,000㎢의 유역에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데, 발원지로 부터 하구까지 직선거리는 90km에 불과하다. 유역의 기온은 연평균 12℃ 내외이며, 강수량은 1,000-1,300mm로 4대강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강수의 집중도는 7, 8월 두달 사이에 전체의 40% 이상이 내려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강은 많은 토사를 서해로 운반한다. 유출된 토사는 다시 연안류에 실려 남쪽 해안을 따라 운반 퇴적되어 비옥한 김제·만경평야의 중요한 구성물질이 된다(권혁재, 1974, pp.1-12). 금강유역에는 1991년 현재 16.22만ha의 논과 7.65만ha의 밭이 있으며, 수자원은 대부분 농업용수(1,625백만톤)로 이용되지만 생활용수(259백만톤), 공업용수(77백만톤)의 수요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1993).

Ⅲ. 고대의 금강유역

금강유역은 선사시대에 이미 인간생활의 터전이 되어 왔다. 양주동설에 의하면, 神의義인 “금”이 곰 혹은 고마로도 전하였으며, 또 “금”은 갠, 검, 금 등으로 瓦轉되는 “王”의 古訓으로 仍用(仍用)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말을 풀이하면 “금강”은 神 또는 王의

강이란 말이되고, 공주의 옛 이름인 “곰나루(熊津)”도 같은 뜻에서 불리어온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만치 유역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중요시 되어온 곳이다(梁柱東, 古歌研究, 1982, 一湖閣, p.9). 이러한 사실은 1964-1992년과 1976-1983년에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된 공주 석장리 유적과 청원 두루봉 유적과 같은 구석기 유적지를 필두로 하여, 부여·공주·영동·옥천 등에 흩어져 있는 신석기 유적, 그리고 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유적들과 대전 둔산유적이 발굴·조사됨으로써 확인되었다. 특히 석장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까지의 유물이 층위를 이루고 있으며 출토품은 우리나라 구석기학의 중요한 학사적(學史的)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표준유적(type site)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송국리 유적에서는 탄화미가 발굴되어 금강유역의 농경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1991년 발굴·조사된 대전 둔산 선사 유적지에서는 구·신석기·청동기 시대를 망라하는 유물이 채집·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B·C 5-4세기에 이르면 일정한 수준의 지배권력이 형성되고, B·C 3-2세기 이래 확대된 정치집단의 형성이나 정치권력의 성장면에서 한반도 남부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지역으로 등장한다(이현혜, 1988, p.204). 백제시대를 지나면서 유역은 역사상 가장 주목받고 화려했던 문화의 시기를 맞



〈그림2〉 금강의 수운권도(水運圈圖)

는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백제문화권이라 하면 흔히 금강유역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유역의 번영은 수륙교통의 요지이면서 천연의 요새지인 공주에 도읍했던 웅진시대(熊津時代, 475-538년)를 지나 사비시대(泗批時代, 538-660년)로 이어진다. 그러나 국력이 약해지자 백제문화의 젖줄이었던 금강과 그 유역은 침략자들의 주 침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백제 중흥기 중국 남조와의 문화의 교류나 일본에의 유교문화를 전수한 일 등은 수로인 금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 왕조 말기 사비성 방어를 위한 당군과의 백강전투를 위시해서, 멸망후 국권을 부흥하기 위한 주류성(周留城, 韓山)의 방어전투, 당군을 축출하기 위한 나당군의 싸움 등은 금강의 하류부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금강이 갖는 문화교류나 군사적 의미가 역사상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징적 예라 하겠다.

Ⅳ. 중세의 금강유역

고려왕조로 들어서면서 금강은 이전의 군사·정치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평야, 수운의 이점이 두드러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역대 왕조에 있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이것은 고려왕조의 조운제도 확립과정에서 드러난다. 정종(1034-1046)대에 12조창제가 도입되고 문종(1046-1083)대에는 13조창제로 확대되

어 고려 조창제의 골격을 이루었는데 금강연안의 임피의 진성창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강유역의 경제력 상승에 따른 금부상은 불행하게도 왜구들의 잦은 내침을 초래하여 약탈과 노략질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당시 특히 부여, 공주 지방을 침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竹中康雄, 1935, p.19). 그 결과 수운의 쇠퇴와 연안지역의 일시적인 황폐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마침내 고려말 우왕대에 들어 나세(羅世), 최무선(崔茂宣) 등이 활약한 금강하구 진포해전에서 왜구의 대선단을 격파하면서 침탈행위는 점차 감소되었다.

새로이 조선왕조가 열리면서 유역은 다시 한번 조야(朝野)의 관심의 대상지로 되었다. 금강이 갖는 경제·군사적 입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도읍지로 신도안지역이 물망에 올라서 기초공사까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신도읍지 건설은 중단되었지만 금강유역의 경제적 입지와 영향력은 여전하여 주변의 공주, 전주, 청주 등 지방행정 중심지를 연결하는 수운로로 계속 이용되었음은 물론, 중앙정부 재정확보에도 중요한 몫을 해 왔다.

조선왕조 15세기 말부터 확대된 대토지 사유에 따른 농장의 소작료 운송도 수운을 활성화하는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세곡 운송정책은 17세기에 이르면 관선조운혁파론(官船漕運革罷論)이 등장하였고 사선임운(私船賃運)으로 전환되어 갔다. 더구나 세계

개편으로 인하여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등 운송되어야 할 물량은 전례없이 증대되었고 이는 지토선을 이용한 임운체계를 촉진시켰다. 특히 조선후기로 들어 미곡은 식생활의 중심이 되고 수요나 구매력이 커서 화폐의 대용품으로 등장하여 재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17세기 중반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금강유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세도 천안, 연기, 청주, 함열, 익산, 옥구 등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임운을 이용하게 되었다. 마침내 18세기 초에는 공주에 영포창, 은진에 시진창을 설치하고 각 읍의 임운에 은진 강경포, 부여 백마강, 임천 남당진, 임피 서시포, 여산 나암진, 용안 청포진, 임피 나리포 등이 이용되어 왔다(최완기, 1988, p.65, pp.77-78, pp.187-189).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강경포는 원근의 물화가 모여 거래되는 대장시로 성장하게 된다(이중환, 택리지, 충청도조).

이렇게 수운활동이 활발했던 금강의 기능은 조선왕조 후기에도 계속되어 그 경제적 입지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활발한 수운기능과 배후의 농경지와 주요 지방행정도시를 갖춘 금강유역의 경제적 기반은 조선왕조 말기의 상품유통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케 했다. 특히 17세기 이후 금강 중·하류 지역의 강경, 석성, 논산 일대의 수운과 농경지에 대한 관심을 높인 중앙의 왕족·양반관료들의 대토지 소유와 낙향한 유림(幾湖士林派)들의 정착은 현 زمین

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도 주었던 것 같다. 전자의 경우 사계 김장생(1548-1632)을 비롯한 많은 유림, 양반들이 이주·정착하여 강경의 황산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유학자들을 양성·배출하여 정신문화를 고양시킨 점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지나친 수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19세기 중반의 동학농민운동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 양자의 문화는 20세기 전후 외세의 경제·정치적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단계 승화되어 금강유역에서의 의병활동과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유역의 토지이용 경관도 많이 바뀌게 된다.

V. 근대 교통로의 개발과 금강유역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노골화되고 군산항이 개항(1899년)되었던 19세기 후반에 들면서 금강의 수운기능은 절정기로 든다. 선박대형화시대로 들어 통감부 군산이사청 관할하에 들어간 금강은 남한강, 낙동강과 함께 한반도 중남부 내륙부를 해안지역과 연결하는 중추적인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한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되던 역로가 발달했지만 도로교통의 경제적 기능이 미미했던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로는 수운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내륙 수운로는 여객이나 각종 물산의 유통 뿐만 아니라 정보(나도승, 1992, p.202) 전달의 통로로 되어 하천유역은 하나의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을 이루기도 했다. 금강하구 개항 초기의 내륙수로를 운항하던 선박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서 다음의 <표1>을 제시하면서 설명에 대한다.

금강구의 수운환경을 살펴보면 0℃이하의 결빙 기간은 1월을 중심으로 약 30-40일간으로 인접 수계인 한강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동서방향인 하류부 하도는 편서풍의 방향과 일치되어 있는데다 군산항의 조류도 入潮時는 약 6시간, 出潮時는 5시간으로 느린편 이어서 선박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금강구는 한강구에 비하여 하안에 암초가 적은 편이어서 근대 선박의 출입 접안도 용이했던 것으로 보고에 나타나 있다.

1830-40년대의 금강유역은 수운을 이용한 포구상업 뿐만 아니라 장시도 활발하여 충남·북의 유역권은 크게 공주·강경·청주권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중 공주의 약령시는 춘추 2회, 각각 40일간 입시되던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이헌창, 1995, pp.25-43). 특히 황산포와 나바위를 중심으로 금강수로는 천주교의 전래, 전파에도 중요한 통로이었다(샤를르 달레, 1980, pp.81-89). 당시 천주교는 사회적 평등을 내세우는 민중종교운동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조광, 1988, pp.82-113) 인구유동이 적지 않은 상

업활동의 무대로 신분제 사회의 변동을 회구하던 이들이 많았던 금강유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870년대로 접어들면서 강경은 평양, 개성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장시로 떠오르게 된다(坂上富藏, 1928, p.10). 당시 금강 하만의 주요 하항만 보더라도 하류로 부터 군산, 성당, 나포, 황산, 강경, 석성, 규암, 공주, 부강, 옥천과 함께 미호천 유역의 오근장 등 약 20여개에 이르렀다. 수운의 전성기 당시 백화(百貨)의 출입항(出入港)으로 여겨왔던 강경장의 상권은 충남, 충북과 전북, 경기도 남부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강경은 19세기 이전부터 금강유역 유통권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서울, 원산, 제주도 등지로 교역하는 원격지 교역의 창구로 되어 있었다(이용호, 1986, pp.205-256).

1880년대에 이르면 유역에서 일본인, 중국인들의 상업활동이 본격화 되어(손정목, 1982, pp.262-267; 이병천, 1985, pp.295-332; 이헌창, 1985, pp.296-330) 금강의 수운권은 거대한 동아시아 상권에 편입되어 국제교역시장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1900년대로 들면서 미호천 상류부인 오근장을 비롯한 중류부의 하항들이 토사의 유출이나 유수량의 가감으로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중류부나 상류부의 하항의 쇠퇴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철도가 개통되면서라 하겠다. 즉 경부선(전구간, 1905)과 호남선(1914)이 개통되면서 금강의

〈표1〉 금강내륙수로 운항선(1900-1909)

중심하안	하구-군산	군산-강경	강경-공주	공주-부강
하 폭	河口 1,750m	392m	350m	180m
주행거리	5.0km (하구에서)	42.0km (하구에서)	90.2km (하구에서)	117.1km (하구에서)
범선규모	연안 및 소항용	미곡 만조 400-500석 간조 300-400석	40-50 석	40-50 석
기 선	寶慶丸 100ton(仁川) 仁川-群山-木浦간 白川丸 556ton(大阪商船) 顯益號 144ton(大韓協同郵船) 蒼龍號 423ton(")	개운환, 25t, 60인승, 1910. 5월개항 성기환(강경운수) 군강환(강경운수) 19t, 1908.11월개항 제4진항환(삼남상회) 17t, 1907.11월 개항	제5진항환 제1공주환 1910.5월개항 제2공주환 1910.9월개항	
운항시간		1일2회 1회 3시간	군산-부강 漕 8시간 下 5시간	
구간운임		기선 1인 50전 미곡 1포 20전 범선 1인 30전	1인1원50전 미곡 25전	부강-군산 1인11원50전
비 고				범선 (부강-군산) 구간 우편물 지급송달 및 경부철도와 연락

자 료: 香川源太郎, 韓國案内, 1900, p.262.

田淵友彦, 新韓國地理, 1903, p.32.

小松悦次, 新撰韓國事情, 1907, pp.250-251.

坂上富藏, 最近江景事情, 1909, p.59.

수운 기능은 철도 수송기능으로 바뀌어 과거의 하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경제권은

조치원이나 대전, 논산역을 중심으로 철도역의 경제권으로 개편되어 갔다. 이무렵 중·

하류간 중계항이던 강경도 철도역의 하나로 되었으며, 1899년에 군산이 개항되면서 한 동안 이와 서로 상권의 보완관계를 유지해 온 것도 수로와 철도가 공존해 왔기 때문이라 하겠다. 수운에서 철도로 옮겨가던 당시 유역의 물화의 수송기능은 미곡, 콩, 소가죽과 같은 농축산물의 대일 수출과 수입된 일본상품의 거래, 수산물의 거래를 위시한 장시상품 등이었다. 그러다가 군산항의 상권이 확장되면서는 점차 이에 흡수당하게 된다.

이후 전국적인 상업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강경이나 명태어를 부지깽이로, 김을 불쏘시개로 삼았다던 종점 하항이었던 부강 등 금강연안의 하항들이 쇠퇴되고 근대적 교통로의 중심지로 등장한 대전, 군산이 급성장하면서 충남내륙지역의 경제·사회적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져왔다. 1931년 장항선 전 구간이 개통되어 환상 철도망이 그려지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피해는 비단 공주, 부여, 청양과 같은 접근도가 낮은 내륙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도로사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서해안지역에서 도청소재지인 동단의 대전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도편으로 북의 천안이나 남의 군산-이리를 우회하는 반원을 그리는 노선의 선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1932년 대전으로 옮겨가면서 내륙의 대전은 급성장하여 해안의 군산과 수륙간에 상호 대응하는 거점으로 바뀌어 갔다(나도승, 1992, pp.234-261).

금강유역의 지역구조는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운(水運)이 부각되었던 금강에서 관개(灌溉)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19세기 말기부터 이 지역에 진출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주권을 약탈한 후 그들의 관심은 미곡의 수출 뿐만이 아니라 군산항을 거점으로 삼아 금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단계로 발전해 갔다. 동척회사(1908)의 설립후 한국 진출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들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금강유역에는 마구평(1909), 서천(1923), 논산(1941) 등지에 수리조합들이 들어서면서 황무지와 구릉지의 개간이 추진되고 각종 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이영훈 외, 1992, pp.105-188; 권혁재, 1989, pp.129-148). 이로써 '상업의 강'으로 중요시되었던 금강은 '농업의 강'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후에도 지속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금강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절정에 이른 느낌이다. 그러던 것이 1988년 건설부의 금강수계종합정비계획(Ⅱ)에 의하면 용수의 수요는 주로 1)생활용수, 2)공업용수, 3)농업용수, 4)하천유지용수 분야로 나누어서 공급계획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용수의 수요도는 크게 증대되고 있다.

Ⅵ. 결 언

지금까지 금강 유역에 대해 역사지리적으로 고찰한 것을 종합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고대사회에서는 군사적,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 중요시 되었던 것이, 중세이후 근세까지는 조운, 임운, 상품유통과 같은 경제적인 활용도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 형성기의 선진지역으로서 강경포 같은 대상권이 형성케 된 것은 비옥한 유역의 곡창과 공주, 전주와 같은 도시를 배후지로 삼은데다 경제성이 높은 금강 내륙수로 수운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근대 교통기관에 밀려나면서 수운의 기능은 상실되고 용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위와 같은 유역의 경관변화는 금강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지닌 유역인의 생활과의 상호교섭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백제 중흥의 터전으로 국위를 선양한 일이나, 유역의 정치·경제적인 중심권의 이동, 현대적인용수원 같은 일들은 사회변동속에서 외래문화와의 접변에 의한 문화의 쇄신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양자간의 교섭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의 교섭관계는 항상 조화를 이룬 것이어야 하며, 그 조화의 질서가 깨어지면 자연훼손, 환경오염, 재해와 같은 반작용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런 면을 감

안한다면 일제에 의해 감행된 충청남도 순환형 철도 부설은 내륙부를 경제·사회적으로 공동화하고, 동서간의 우회적 접근형으로 바꿈으로써 1500년간의 공간질서를 뒤엎게 한 대 반작용인 것이다.

최근 들어 과거 콘크리트 구조물·시설물로 대변되던 하천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강물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친수성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우면서도 본고는 이에다 몇마디 첨언을 한다. 강에 대한 친수성이나 애정문제는 생활의 터전인 고장이나 주변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금강은 유역인의 생명수이며, 조상들의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피와 땀의 터전일진대, 우리는 내집이나 고장의 내력을 외면하면서 민족사를 운운하고 남의 나라 살림을 참견하는 타성이 없지나 않은지? 맹자의 글귀를 응용한 “先芸己田而 芸人之田”(먼저 자기 밭을 김매고 남의 밭을 매라)이란 말은 이런데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끝으로 1990년대의 국정지표인 세계화의 과제는 지방화에서 시작해서 그 결실도 지방화로 이룬다고 한다. 수분령(水分嶺)에서 시작해서 서해로 흘러가는 금강의 지류가 이어지는 한 오염된 하수도 능히 정화될 수 있듯이, 그 생명을 갖춘 충청인의 가슴에는 격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21세기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선비정신이 저력

으로 살아 있다. 우리 모두 금강을 아끼고 살려 나가는 것이 애국이며 세계화 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임을 다짐하면서 맺는 말에 갈음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환경연구소, 전국주요하천기초조사(Ⅱ)-최종보고서-, 1983.
- 권혁재, “황해안의 간석지개발과 그 퇴적물의 기원,” 지리학 제10호, 1974.
- , “논산평야,” 사대논집, 제14집, 고려대학교사범대학, 1989.
-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 연구, 서울대학교서, 1982.
- 나도승, 공주 금강권의 역사지리, 대전금강권연구소, 1992.
- 샤를르 달레(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하), 분도출판사, 1980.
-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1982.
- 안병직, 이대근 외 2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89.
- 안수환, 한국의 하천, 민음사, 1995.
-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82.
- 윤용혁, “백제문화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내지상권 침입,” 경제사학 제9호, 경제사학회, 1985.
- 이영호, “19세기 은진강경포의 상품유통구조,” 한국사론, 제15호, 서울대국사학과, 1986.
- 이영훈·장시원 외 2인,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 이중환(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71.
- 이헌창, “한국개항장의 상품유통과 시장권,” 경제사학, 제9호, 경제사학회, 1985.
- ,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제18호, 경제사학회, 1994.
- ,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 이헌혜, 삼한사회 형성과 과정연구, 일조각, 1984.
- 조 광, 조선후기 천주교회사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 조선총독부, 조선의 시장경제, 1927.
-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충청남도, 금강지(상·하), 1993.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영산강·섬진강유역권 용수이용현황 조사 자료집, 1993.
- 坂上富藏, 最近の江景事情, 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 朝鮮總督府, 朝鮮河川調査書, 1929.

- 竹中康雄, 群山開港前史, 群山府, 1935.
- 奥田 久, 内陸水路の歴史地理的研究, 東京
大明堂, 1977.
- 藤岡謙二郎, 景觀變遷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大明堂, 1978.
- 香川源太郎, 韓國案内, 東京青木高山堂,
1902.
- 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14輯, 市街地の商圈,
1926.
- 文定昌,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1937.
- 群山南韓鐵道期成同盟會, 湖南鐵道와 群山,
1910.
- 山中 精, 朝鮮産業誌(中), 東京寶文堂, 1910.
- 富岡儀八, 日本의 鹽道, 東京古今書院, 1978.
- 田中市之助,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1921.
- Van Slyke, L.P., *Yangtz: nature, history, and the river*, Addison
Wesley Pub. Co, 1988.

금강권 개발전략의 모색

심 문 보
(沈文輔)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원



I. 서 론

II. 금강권의 개발 현황 분석

III. 금강권 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 잠재력

IV.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발전전략

V. 금강권 개발의 세부추진방향

VI. 결 론

I. 서 론

권역이란 공통적, 상호의존적 특성을 가졌거나 또는 광범위한 지역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지칭하

는 것이다. 권역은 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권역설정의 기준은 주로 동질성과 상호의존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리적 특성, 기후조건, 산업구조, 자원분포, 직업분포 및 고용구조, 도시기반시설, 정주체제, 소비패턴 등이 유사하거나 의존적일 경우, 같은 권역으로 취급한다. 또한 권역설정은 설정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지리적 연계성, 지역특성의 동질성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권 등 지역기능의 특성에 따라 개발권역을 설정한다(서창원, 1994). 기존에 충청남도는 권역설정을 정주체계 분석에 의한 지역생활권과 지역특성에 의한 개발권체계의 설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기능의 분담과 지방자치, 대도시권의 확대 등에 부응하고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공간 구조를 5

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구분은 행정구역만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어서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래지역을 모자이크식으로 개발권역을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권역의 구분에서 탈피하여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충남도는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함께 지역특성, 산업구조, 생산자원, 정주체제, 소

비고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경영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4대권 개발경영 구상, 1995). 충청남도의 권역구분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과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5대 권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경영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4대 권역설정 구분이

〈표1〉 충청남도 권역구분 비교

구 분	개 발 권 역 내 용
제2차 도건설 종 합 계 획 개 발 권 역	1. 서 북 부 지 역 : 신산업지대 조성(서산, 당진, 아산 지역) 2. 서 해 안 지 역 : 관광, 휴양, 위락벨트 조성(가로림만으로 부터 안면도를 거쳐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안지역) : 서해안 임해공업벨트 조성(서천 지역) 3. 동 남 부 지 역 : 첨단산업 및 내륙도시형 공업벨트 조성(천안, 연기 지역) 4. 서부내륙지역 : 선진농업 중심지대 조성(홍성, 예산, 청양 지역) 5. 동남내륙지역 : 백제문화유적 관광벨트(공주, 부여 지역) : 대전 연계개발 조성(논산, 금산 지역)
4대 권역별 개 발 권 역	1. 북 부 권 : 수도권 기능 분담 및 신산업지대 조성 (천안, 아산, 당진 등 아산만권 배후지역) 2. 서해안권 : 해양관광단지 및 대 중국교역 전진기지 (가로림만, 태안반도, 장항일원 지역) 3. 백 제 권 : 문화, 관광, 위락 복합개발 (백제고도권 등 문화유적 분포지역) 4. 금 강 권 : 치수, 주운, 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논산, 연기, 금산, 서천, 청양, 공주, 부여 등 금강유역)

자료: 충청남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충청남도 4대권 개발경영구상, 1995.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기능이 중첩될 경우 개발권역의 중첩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부권의 일부는 서해안권역에도 속할 수 있으며 백제권의 중심이 되는 공주, 부여는 금강권역에도 속할 수 있다. 아울러 백제문화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논산, 연기의 일부분은 금강권역 또는 백제권역에도 속할 수 있다. 이와같이 4대 권역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개발권역의 중첩허용과 특화기능의 육성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금강권을 굽이쳐 흐르고 있는 금강은 한반도의 서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5대강 중에서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세번째로 큰 강으로 유역연장은 401.4km에 이른다. 금강유역은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뚜렷하며 7~8월의 집중호우 기간에는 금강의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된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류지들이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면서 서해로 유입되고 있으며(이동령, 1993), 금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금강권역은 공주, 부여, 금산, 연기, 논산, 청양, 서천 지역이 이 권역에 속한다. 충청도는 이러한 금강권역을 치수, 주운, 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등을 중심으로 특화기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강권역을 중심으로 충청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99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산인삼 종합전시관 및 인삼

연구소 설치, 중부권 컨테이너기지 건설, 대둔산 및 서대산 도립공원 개발, 제2 한산모시타운 건설 등이며, 2001년까지 완료사업으로는 금강종합개발, 논산 성동공단 조성, 금강하구연 종합관광 위락단지 조성, 황산유원지 개발 등이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논산 역세권 개발, 논산 연무 복합터미널 및 종합유통단지, 장항-대전간 2단계 주운개발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금강권역에서 충청도가 추진하거나 계획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강권의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각 시·군 통계자료와 현안자료를 중심으로 금강권역의 개발현황을 분석 하였으며, 현지조사는 각 시·군의 지역현안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II. 금강권의 개발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1) 면적과 인구현황

금강권은 금강유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행정구역으로는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강

〈표2〉 금강권 면적과 인구현황

(단위: km², 호, 명, 인/km²)

구 분	면 적	가 구	인 구	인구밀도
총 남	8,367.65	533,852	1,844,692	220.5
권역계	3,816(45.6)	181,173(33.9)	623,651(33.8)	163.4
공주시	863.85(10.3)	22,811(4.3)	80,504(4.4)	93.2
논산시	554.08(6.6)	43,954(8.2)	150,136(8.1)	271.0
금산군	575.24(6.9)	19,757(3.7)	69,776(3.8)	121.3
연기군	356.91(4.3)	24,234(4.5)	82,455(4.5)	231.0
부여군	364.05(4.4)	31,178(5.8)	106,302(5.80)	170.1
서천군	364.05(4.4)	25,653(4.8)	87,207(4.7)	239.6
청양군	479.59(5.7)	13,586(2.5)	47,271(2.6)	98.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권의 총면적은 약 3,816km²에 달하여 충남의 전체 면적중 45.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권역내의 인구는 1995년 1월 현재 총 623,651명으로 충남의 전체인구 중 33.8%에 달하며, km²당 163.4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권역내의 면적과 인구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인구이동 현황

충남의 주민등록에 의한 총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 보면 전입보다는 전출의 이동률이 1.1% 정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구의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금강권의 인구이동에서도 전입보다는 전출의 이동비율이 높아,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격감과 연관이 있다. 금강권내에서 금산군, 청양군 및 연기군의 인구 유출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공주시와 논산시의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 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접한 대전 대도시권의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산업구조 및 재정규모 현황

1) 산업구조 현황

금강권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업이 주도산업이며, 업종의 구성상태를 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농림수산업의 1차산업 비중이 48%, 광공업의

〈표3〉 인구이동 현황

구 분	전 입		전 출		감 소	
	명	%	명	%	명	%
충 남	214,065	11.6	234,008	12.7	19,943	1.1
권역계	46,850	7.5	68,658	11.0	21,808	3.5
공주시	5,490	0.3	11,816	0.6	6,326	0.3
논산시	12,549	0.7	16,010	0.9	3,461	0.2
금산군	5,336	0.3	8,270	0.4	2,934	0.1
연기군	7,905	0.4	9,571	0.5	1,666	0.1
부여군	6,878	0.4	10,218	0.6	3,340	0.2
서천군	5,635	0.2	8,089	0.6	2,454	0.2
청양군	3,057	0.2	4,684	0.3	1,676	0.1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표4〉 산업구조 현황

(단위: %)

구 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충 남	46	14	40
권역계	48	15	37
공주시	55	12	43
논산시	42	14	44
금산군	38	15	47
연기군	30	23	47
부여군	42	14	44
서천군	69	11	20
청양군	63	17	20

자료: 충청남도, 시군대토론회 자료, 1996.

2차산업 비중이 15%, SOC 및 서비스의 3차산업 비중이 37%로서 충남 평균의 46%, 14%, 40%에 비해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

은 반면 2차산업은 비슷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3차산업은 3%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차산업의 구성내용면에 있어서

〈표5〉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재정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순위
충 남	32,453	23,395	9,040	29.0%	
권역계	7,541	6,155	1,386	22.5%	
공주시	1,475	1,195	280	21.7%	4
논산시	1,208	1,093	115	29.8%	1
금산군	772	706	66	17.1%	6
연기군	1,224	6,923	532	29.1%	2
부여군	1,228	1,033	195	19.1%	5
서천군	845	767	78	25.0%	3
청양군	789	669	120	15.4%	7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는 영세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산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3차산업구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금산 인삼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금강권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 금강유역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된 반면 공업부문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2) 재정규모

충남도의 1995년도 세입기준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3,395억원과 특별회계 9,040억원을 합쳐 32,453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9.0%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금강권역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는 충남의 재정자

립도보다 훨씬 작은 22.5%에 그치고 있어, 금강권역의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금강권역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논산, 연기, 서천, 공주, 부여, 금산, 청양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모두 연기군의 규모가 논산군의 규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논산시와 연기군은 29.8%, 29.1%로 충남의 전체 재정자립도 29.0%보다 높으며 청양군의 경우에는 15.4%로써 금강권역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공업단지 현황

1) 금강권 지방공단 현황

〈표6〉 지방공단 현황

구 분	조성기간 (연도)	면적 (천㎡)	공장용지 (천㎡)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 남		11,919	9,997	182	182	20,522	10,408
천안1	79-80	359	290	63	64	2,622	1,767
천안 마정	93-95	148	98	34	34	851	
서산 대산	85-93	8,793	7,663	3	3	4,463	3,768
천안 2	89-92	820	567	50	50	6,821	2,984
천안 천흥	90-94	535	323	11	11	2,576	1,017
조치원	86-97	996	869	18	18	2,589	872
연기 소정	93-95	268	187	3	3	600	

자료: 충청남도 공업과, 1996.

1996년 1월 현재 충청남도내의 지방공단 현황은 〈표6〉에서 나타나 있듯이, 천안 1공단, 조치원공단, 대산공단, 천안 2공단, 천안 천흥, 연기 소정, 천안 마정 등 7개 단지에 18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10,408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조성완료된 지방공단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에 3개 공단, 서산에 1개 공단, 연기에 2개 공단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역 분포는 충남의 4대 권역중 북부권과 금강권에 지방공단이 편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금강권에 속하는 연기의 소정공단에는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 건설용자재 분야의 3개 업체가 조업중에 있으며 조치원 공단의 경우에는 기계, 조립분야 등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2) 금강권 지방공단 조성계획

현재 충청도에서 조성중인 지방공단은 관창, 금산, 천안 3, 인주 1, 인주 2, 대죽공단 등 6개소가 조성중에 있으며, 조성 준비중인 공단은 조치원 전이석재공단, 연기 월산공단, 아산공단 등 3개소이며, 보령의 웅천공단은 현재 계획중에 있다. 아래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권에서 조성중에 있는 곳은 금산공단이며, 조성 준비중인 공단은 전이 석재공단과 연기 월산공단 등이다. 현재 조성중인 금산공단의 경우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성 준비중인 연기의 월산공단에는 첨단산업 신소재 업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이의 석재단지의 경우에는 금강석재가 16만5천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와같이 타이어

〈표7〉 지방공단 조성계획

구 분	조 성 기 간	면 적 (천㎢)	공장용지 (천㎢)	입주업체		종 업 원 수	추 진 현 황
				계 획	실 적		
충남		14,641	9,303	425	61	99,153	조성중
보령 관창	92-97	2,439	1,289	6	6	13,360	
아산	95-98	1,984	1,089	1	1	14,000	
천안3	92-96	1,563	1,019	100	5	10,440	
아산 인주 1	93-96	1,912	1,426	1	1	5,020	
아산 인주 2	93-96	1,572	927	64	-	23,280	
서산 대죽	91-98	2,088	1,557	120	2	20,000	
금산	92-96	805	662	1	1	1,523	조성중
전의석재	93-96	545	344	45	45	1,003	준비중
연기월산	93-96	1,833	990	87	-	10,527	"

자료: 충청남도 공업과, 1996.

및 기계 건설용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중에 있는 금산공단이 계획대로 조만간에 완공되고 조성 준비중인 월산공단과 석재단지가 완공될 경우 금강권에는 총 130여개에 이르는 업체가 입주하여 1,3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충남 전체의 경우에 현재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 준비중에 있는 지방공단이 예정대로 1998년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425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1만여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토지이용 현황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금강권의 토지이용은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적 용도의 비중이 매우 낮아 아직도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권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과 농촌적 토지이용 비율은 2.7%대 89.9%로써 충남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2.8% 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논산시의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이 20.8㎢로 전체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금강권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천군, 연기군이 각각 3.5%, 부여군 2.6%, 청양군 1.8%, 금산군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도시적

〈표8〉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

지 역	총면적	도시적 토지이용				농촌적 토지이용						기타
		소계	대지 주택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소계	도로 철도	농경지		임야	과수원 목 장	
								전	답			
충남	8,367.7	232.0 (2.8)	186.5	30.2	15.3	7450.8 (89.0)	175.1	870.1	1,769.6	4565.2	70.8	684.9 (8.2)
권역계	3,818.6	93.7 (2.5)	79.2	8.4	6.1	3434.4 (89.9)	74.3	330.9	748	2,268.2	13.0	290.5 (7.6)
공주시	863.9	14.2 (1.6)	12.6	0.7	0.9	801.5 (92.8)	12.2	58	112.3	617	2.0	48.2 (5.6)
논산시	554.1	20.8 (3.8)	18.0	1.3	1.5	481.4 (86.9)	15.8	59.2	159.1	244.1	3.2	51.9 (9.4)
금산군	575.2	8.8 (1.5)	7.4	0.7	0.7	538.3 (93.6)	7.9	54.3	63.2	411.9	1.0	28.1 (4.9)
연기군	356.9	12.4 (3.5)	8.7	3.1	0.6	309.6 (86.7)	7.4	35.9	66.6	196.4	3.3	34.9 (9.8)
부여군	624.9	16.2 (2.6)	14.2	0.9	1.1	546.0 (87.4)	12.2	50.4	156.7	325.1	1.6	62.7 (10.0)
서천군	364	12.8 (3.5)	10.8	1.2	0.8	310.1 (85.2)	10.0	35.0	113	151.6	0.5	41.1 (11.3)
청양군	479.6	8.5 (1.8)	7.5	0.5	0.5	447.5 (93.3)	8.8	38.1	77.1	322.1	1.4	23.6 (4.9)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토지이용 비율보다 연기, 논산, 서천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공장용지의 비율이 약간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적 토지이용이 주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공장 및 학교용지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양상으로서 그동안 도시성장이 크게 정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도시계획 현황

충남의 용도별 토지이용은 녹지(71.5%), 주거(12.6%), 공업(5.8%), 상업(1.6%), 기타(0.5%) 순으로 전체적으로 녹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금강권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75.01 km²로 전체 비율의 27.7%이며, 충남 전체의 용도지역중 금강권역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면적 비율은 각각 12.6%, 1.9%, 7.7%, 66.2%이다. 금강권역 내에서 용도상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청양군이 20.3%로 가장 높고, 상업지역의 비율은 금산군이 2.3%, 공업지역의 비율은 서천군이 34.9%, 농업지역 비율에 있어서는 논산시가 80.9%로 금강권역 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서천군에 있어

서는 녹지(44.8%), 공업(34.9%), 주거(16.5%), 상업(3.9%) 순으로서 공업지역의 비율이 주거나 상업지역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15,537천km²에 이르는 군·장국가공단의 조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기군의 경우에 녹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비율 순으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현재 조성완료된 조치원공단, 연기 소정공단 및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중인 공단면적이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산군은 공업지역(0.8%)보다 상업지역(2.3%)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금산인삼이라는 특수한 상권을

〈표9〉 도시계획 현황

(단위: km²)

구 분	계 획 면 적	용 도 지 역									
		주 거	%	상 업	%	공 업	%	녹 지	%	기 타	%
충 남	632.39	79.80	12.6	10.27	1.6	36.57	5.8	451.86	71.5	53.89	8.5
권역계	175.01	22.07	12.6	3.30	1.9	13.5	7.7	115.85	66.2		
공주시	22.27	0.77	3.5	0.09	0.4	0.15	0.7	0.97	4.4		
논산시	39.16	6.28	16.0	0.66	1.7	0.55	1.4	31.67	80.9		
금산군	15.89	3.14	19.8	0.37	2.3	0.13	0.8	12.25	77.1		
연기군	14.99	2.39	15.9	0.26	1.7	0.42	2.8	11.92	79.5		
부여군	44.21	2.95	6.7	0.54	1.2	0.29	0.7	40.43	91.4		
서천군	33.26	5.48	16.5	1.29	3.9	11.60	34.9	14.89	44.8		
청양군	5.23	1.06	20.3	0.09	1.7	0.36	6.9	3.72	71.1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표 10〉 도시계획지표

(단위: %)

지	표	충남	권역계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주	택 보 급 률	92.5	96.3	94.8	100.4	100.6	87.8	94.4	96.4	99.7
상	수 도 보 급 률	42.1	35.4	40.2	42.3	34.5	41.3	38.8	32.6	17.8
하	수 도 보 급 률	35.9	28.1	31.1	26.7	33.5	36.4	20.0	31.6	17.7
도	로 포 장 률	76.1	76.9	71.4	82.2	67.9	78.1	79.8	78.1	81.1
새	활보호대상자율	7.2	11.3	12.4	9.2	15.0	7.4	11.5	13.2	13.4
경	지 정 리 율	49.4	47.7	36.7	66.3	31.3	43.3	54.1	61.1	41.3
수	리 안 전 답 률	78.8	80.4	84.4	85.6	89.9	67.0	77.3	77.7	80.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도시계획지표

도시계획 지표중 금강권역의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수리안접답률은 충남의 평균비율 보다 높고 상·하수도 보급률, 경지정리률,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등에 있어서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권역에서 도시계획 지표중 상·하수도 보급 및 경지정리율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적어도 금강권의 경제기반 구축 단계인 1998년 까지는 충남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내에서 주택보급률은 연기군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논산시(42.3%)와 가장 낮은 청양군(17.8%)의 차이가 무려 24.5%를 보여주고 있어 금강권역내에서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경지정리율에 있어서는 금산군(31.3%)이, 수리안접답률에 있어서는 연기군(67.0%)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사업비 현황

지금까지 시행해 온 권역별 개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을 접하고 있는 금강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금강의 수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충남도에서

〈표11〉 환경투자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사 업 명	설 치 수	시설규모(㎡)	총사업비	기투자비	추후사업비
총 계	84		7,394	3,126(42.3)	4,268(57.7)
축 산 공 동 처 리 장	1,084	1,930	574(7.8)	488(85.0)	86(15.0)
분 뇨 처 리 장	10	1,132	329(4.4)	324(98.5)	5(1.5)
농공단지폐수처리장	11	8,440	82(1.1)	82(100.0)	-
오염하천 정화 사업	6		84(1.1)	84(100.0)	-
하 수 종 말 처 리 장	30	724,000	5,143(69.6)	1,586(30.8)	3,557(69.2)
쓰레기위생매립장	15		860(11.6)	399(46.4)	461(53.6)
소 각 로 설 치	2		322(4.4)	163(50.6)	159(49.4)

자료: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996.

환경 기초시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의 현황은 〈표11〉과 같다. 전체 환경투자사업비 중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액 투자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투자비율은 50.6%에 그쳐, 충남도의 하수처리 사업비 투자비율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현재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 2개소(천안, 서산)에 28억원, 축산폐수처리장 9개소(공주, 논산, 부여, 연기, 청양, 아산, 예산, 천안, 보령)에 92억원, 쓰레기 매립장 7개소(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홍성, 당

진)에 157억원, 소각로 설치 32기(소형소각로 시·군당 2기 및 천안, 홍성에 대형소각로 건설)에 59억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도가 금강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주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분뇨처리장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이며 축산폐수처리장에 있어서는 청양이, 쓰레기매립장 구성에 있어서는 논산과 서천이 신규로 건설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안을 찾아 볼 수 없다.

6. 지역 현안사업 현황

현재 금강권역의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및 숙원사업들을 아래 〈표12〉와 같이 공공시설, 농업기반, 지역경제,

〈표12〉 지역 현안사업의 분류기준

구 분	분 야
공 공 시 설	- 청사신축, 공설운동장 건립, 공원묘지 조성
농 업 기 반 시 설	- 농촌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설 사업 - 영농기계화 및 위탁영농 회사 확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 - 문화마을 조성 사업
지 역 경 제	-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정비사업 - 후양림조성사업
도 시 기 반 시 설	- 도시계획도로 국·군·농어촌 개설 및 확포장 사업 - 순환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하천정비 복개 및 교량건설 사업 - 각종 대단위 건설 사업
환 경 기 초 시 설	-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분뇨처리장 설치, -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지 역 개 발	- 정주생활권 사업, 소도읍 개발, 오지 종합개발 사업
사 회 복 지	- 복지회관 건립, 요양기능시설 보강
문 화 체 육 관 광	- 문화재 복원 및 발굴·정비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도시기반, 환경시설,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등과 같이 8개 분야로 분류하여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의 건수와 예산투자액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금강권역의 전체 현안사업건수와 예산투자액의 비율은 〈표13〉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분야가 전체 사업건수의 47.3%,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전체의 48.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분야(29.4%), 지역경제분야(12.3%) 순으로 예산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금강권역이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를 육성하려고 하

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의 각 시·군 현안사업을 해당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주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중 도시기반 시설분야가 11건으로 전체의 35.5%,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사업건수는 12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81.7%로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비율 8.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것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건수에 비해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작다는 것과, 문화관광 지역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논산시는 전체 39개 사업중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19개로 48.7%, 환경 및 문화관광 분야가 각각 5건으로 12.8%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30.0%),

환경기초시설(17.0%), 농업기반시설(16.3%), 문화관광(15.2%)분야 순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은 전체 22개 현안사업중 도시기반시설에 17건, 문화관광분에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의 49.9%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의 46.7%보다 높게 나타나 금산군이 지역경제

〈표13〉 지역현안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권역계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공시설	14,860 (1.1)		3,560 (6.9)		10,300 (1.5)		1,000 (3.0)	
농업기반	52,111 (3.9)	3,370 (2.7)	8,381 (16.3)		17,322 (2.5)		1,500 (4.5)	21,538 (46.2)
지역경제	164,100 (12.3)		5,000 (9.7)	300 (0.9)	154,300 (22.2)		4,500 (13.5)	
도시기반	644,102 (48.4)	103,074 (81.7)	15,444 (30.0)	15,230 (46.7)	479,036 (68.9)	8,435 (2.3)	15,038 (45.0)	7,845 (16.8)
환경시설	62,366 (4.7)	6,194 (4.9)	8,747 (17.0)	820 (2.5)	30,500 (4.4)		1,580 (4.7)	14,525 (31.2)
지역개발	8,830 (0.7)	3,481 (2.8)	1,839 (3.6)				2,452 (7.3)	1,058 (2.3)
사회복지	7,597 (0.6)		700 (1.4)		3,645 (0.5)		2,185 (6.5)	1,067 (2.3)
문화관광	390,770 (29.4)	10,085 (8.0)	7,799 (15.2)	16,292 (49.9)		305,780 (97.7)	5,154 (15.4)	550 (1.2)
합 계	1,344,626	126,204	51,470	32,642	695,103	359,215	33,409	46,583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자료, 1996.

를 활성화 하기 위해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연기군은 전체 22개 사업중 도시기반시설 8건, 농업기반시설 5건, 사회복지분야 4건, 지역경제분야 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분야가 전체의 68.9% 및 22.2%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지역에 비해 연기군은 월산공업단지, 전의 석재단지, 연기공단 등을 조성하여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부여군은 14건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중 도시기반시설 12건과 문화관광 분야 2건에 집중되고 있다. 사업예산의 투자면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의 97.7%를 차지해 같은 백제문화 유적지인 공주시 보다 부여군은 문화관광 산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천군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전체의 45.0%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관광 15.4%, 지역경제 13.5%, 지역개발 7.3%, 사회복지 6.5%, 환경 4.7%, 농업기반시설 4.5%, 공공시설(3.0%) 등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현안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 분야 이외에도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도 중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은 22건의 현안사업중 농업기반시설 6건, 환경시설 5건, 도시기반시설 4건 등

에 현안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 농업기반 시설이 전체의 46.2%, 환경분야 31.2%, 도시기반시설 분야 16.8% 등으로 나타나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Ⅲ. 금강권 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 잠재력

1. 금강권 개발의 저해요인

앞의 제Ⅱ장의 금강권의 개발현황 분석과 해당 시·군의 건설종합계획 및 충남도가 금강권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금강권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해요인 및 개발의 한계점을 열거하면 ①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교통망 시설의 취약성, ②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 현상, ③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④열악한 재정자립도, ⑤과다한 각종 개발제한규제로 인한 도시계획 가용면적의 부족과 지방 공업단지의 부족, ⑥교통 및 경제적 중심점의 상실, ⑦환경보전 대책의 미흡, ⑧권역내의 인접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미흡, ⑨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강권역내의 해당 시·군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의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금강권내의 각 시·군별 개발의 저해요인

구 분	내 용
공 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2차산업 생산기반 취약 -도시계획구역의 협소 및 용도지역상 상업 및 공업지역 협소 -도로시설 미비 -백제문화 유적보전 및 관광자원화 미흡
논 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 침수도시로서 하계 강우시 피해 막대함 -사회, 경제적으로 대전 대도시권에 종속되어 있음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 -공장입지 금지지역의 과다로 지역발전 저해됨
금 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의 오지로서 도로망의 미비로 공간통합의 곤란 -인접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함 -인구감소로 인한 군세의 악화 및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외부 의존성향이 강한 소비경제 구조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및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미비 -환경보존대책 결여
연 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에 대한 응집력 및 도시서비스 기능 미흡 -교통 및 경제적 구심점의 상실 -인접지역으로의 인구유출 현상 심각함 -군부대 및 그린벨트의 과다로 개발의 제한 -부존자원의 부족
부 여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시 상습 피해지역임 -문화 유적 지역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개발에 제한됨 -인구감소와 이농현상 심함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음 -3차산업의 개발 유도 및 2차산업의 성장억제 정책으로 산업구조 취약함
서 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발전의 둔화 -장항 국가공단의 간척사업으로 수산업의 침체 -지역주민 소득 및 문화수준 낙후 -인접 군산시의 영향으로 서천읍의 중심기능 상실
청 양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 -이농현상 지속으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 -인접 시·군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인접 시·군에 분산 -상·하수도,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표15〉 금강권역의 시·군별 개발 잠재력

구 분	내 용
공 주 시	— 풍부한 문화유적으로 문화관광산업 유치에 유리 —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 및 온천개발의 잠재력 보유
논 산 시	— 3군본부와 인접하여 방위산업 육성이 용이 — 교통, 공업용수, 지가의 안정 등으로 공업입지 조건이 양호 —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특화작물이 잘 발달
금 산 군	— 서대산, 대둔산, 금강 등 수려한 청정개발자원이 풍부 — 지역특산물인 인삼판매와 연계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음
연 기 군	— 교통이 편리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산업입지 조건에 적합함 — 도시근교 특화작물이 잘 발달
부 여 군	— 사적지의 복원정비와 문화유적지의 풍부로 문화관광산업의 유치에 유리 — 대도시의 근교농업 및 화훼 과수 재배에 유리함
서 천 군	— 충남 서남부 신산업지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음 — 중국 등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부각 — 서해안 및 금강하구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 형성
청 양 군	— 특화작물 및 특산품이 발달되어 있음 — 도립공원 칠갑산이 소재하여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 및 레저산업의 적지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건설종합계획 및 기획실 현안 사업자료, 1996.

2. 금강권 개발의 잠재력

금강권역이 갖고 있는 개발잠재력은 도로망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공간통합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도시근교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주변에 풍부한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 여가지대를 조성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내륙지역의 용수공급원인 금강의 치수사업으로 연변 관광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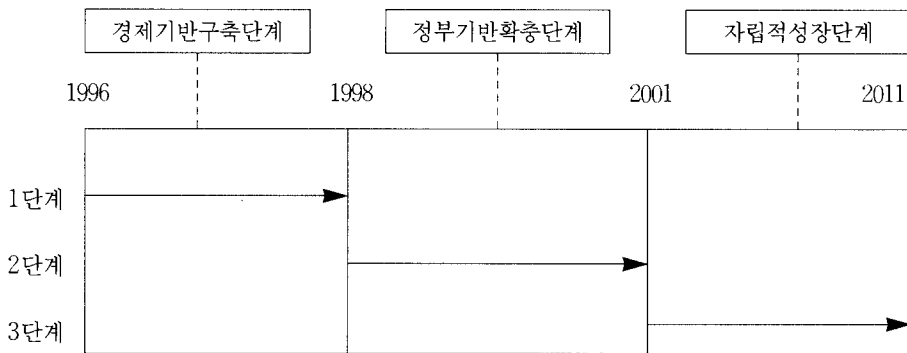
그 배후의 특화단지 조성으로 금강유역 종합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강과 연결하고 있어 용수공급이 다른 권역에 비해 원활하여 내륙공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와같은 금강권의 개발 잠재력 이외에 각 시·군이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살펴 보면 〈표15〉와 같다.

Ⅳ.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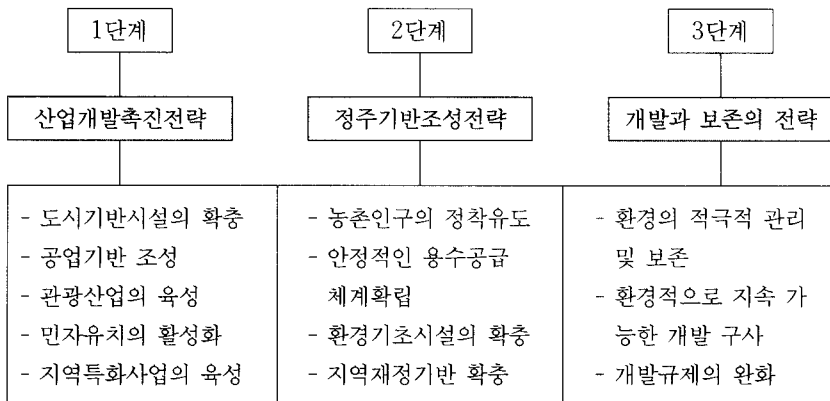
금강권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개발의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모색에 따라 금강권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시기별 구분에 따라 1단계는 경제기반구축단계(1996-1998년), 2단계는 정주기반확충단계(1998-

2001년), 3단계는 자립적성장단계(2001-2011)로 발전단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보면 제1단계에서는 산업개발을 촉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주기반을 조성하며, 제3단계에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전략을 구사하여 금강권역의 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단



〈그림1〉 시기별 발전단계



〈그림2〉 단계별 발전전략

계별 발전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1. 민자유치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압박을 해소하거나 민간이 보유한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배종득, 1995). 금강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금강권 주운개발 및 논산의 농축산 집·배송단지 조성, 금산 서대산의 레저산업 개발 등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 경영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들이 활성화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알고 타당성 검토와 수익성 분석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들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는 충고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개발은 오늘날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지

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금강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관광공간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 특화사업의 육성

지역 특화사업은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일정 규모의 정주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화 사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내재하고 있거나, 그 지역의 제반 여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한다(임양빈, 1995). 현재 금강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금산의 인삼관광지(개삼터) 개발사업, 공주의 메밀가공제품 기술개발, 부여의 곤충박물관 건립, 논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청양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화 개발 등이 이 사업의 범주에 속한다. 이와같은 지역적 특화사업을 통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분야를 전문화 하거나 차별화 할 수 있다.

4. 농촌인구의 정착 유도

충남도의 인구는 앞의 <표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충남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강권역 또한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와같이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인구의 유출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농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 및 기초적 복지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업단지의 활성화와 단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통하여 인구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5.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확립

금강권역은 대청댐 및 금강의 영향으로 다른 권역에 비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 문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인구의 도시화 추세화와 생활용수의 증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용수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용수의 부족현상은 지역개발의 지연과 생활여건의 상대적 약화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강권역전체의 용수공급 체계 및 광역 상수원 계획을 수립하여 금강권역의 개

발이나 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거나 개별 상수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6.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금강은 인접지역의 공장이나 생활폐수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능력이 상실되어 인위적이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강의 최상류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는 인근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데서 기인되고 있다. 실제로 금강권역의 하수처리율은 35.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생활하수 발생량이 1일 48만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처리용량은 30만톤에 불과하여 총발생량 중의 37%인 18만톤이 금강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이다(이정주, 1995). 대전시와 같은 금강유역의 자치단체들은 금강에 생활폐수 및 공장폐수의 일부는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금강유역의 공단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오염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발생한 오염물을 반드시 처리하여 하천에 부하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염물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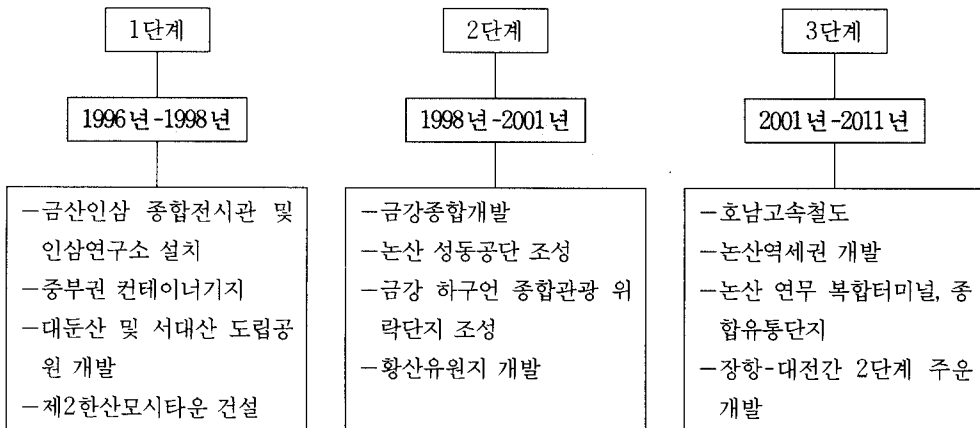
7. 친환경적 지역개발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지도자들이 개발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산을 절개하는 행위나 금강의 지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친환경적 개발철학은 금강권역의 개발전략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모든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주체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겸

비하고 있어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8. 각종 개발규제의 완화

금강권은 다른 권역에 비하여 1차산업의 구성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빈약 할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 및 농촌진흥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국유림지역, 보안림지역, 임업진흥 촉진지구, 조수보호구역,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다. 논산군의 경우 총면적 554.8㎢중 공장입지 금지구역이 231.43㎢(41.8%)이며 기존시설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73.80㎢(13.3%)로 전체면적의 55.1%가 공장입지



〈그림3〉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추진사업

금지 및 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와같이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V. 금강권 개발의 세부추진방향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의해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설정 할 수 있다. 현재 충청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권 개발의 주요 추진 사업들은 아래 <그림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1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인삼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안정된 소득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둔산과 서대산의 도립공원 개발, 황산유원지, 금강하구원 종합개발 및 주운개발 등의 관광산업을 통하여 부존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공단조성, 컨테이너 기지건설, 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단위 사업으로 산업기반 및 정주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권 개발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 <표16>과 같다. 공주시에서 추진하려 하는 대단위 개발 사업으로는 메밀을 지역의 전통적인 전통 특산 농산물로 개발하여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편의 제공과 행정배려로 건전한 장례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의예식장을 운영하려 계획중이다. 또한 공주 강북지역의 주거지역 확산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생활 용수의 공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논산시는 성동 광석 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 계획중에 있으며 도시근교농업에 유리한 작목개발과 과수, 시설채소 등 지역성장 작목을 집중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논산지역내의 관광 자원과 타도시 관광자원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국민관광단지 조성 및 종합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계획중이다.

연기군은 월산 공업단지, 전의 석재공업단지 조성,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등을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면 명학리 일대에 컨테이너 기지를 유치함에 따라 주변 지역을 연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기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지방도 519호선)를 국도로 승격하여 4-6차선을 확·포장하여 수출입 물량운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통에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컨테이너기지과 물류유통단지를 연계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의 발상지인 개삼터를 인삼관광단지로 종합개발하기 위해 추진중

에 있으며, 대전권 관광지와 병행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둔산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서대산 일원을 레저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부여군은 농산물의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려 계획중에 있으며 부여 나성 동문지와 성흥산성 남문지를 복원하여 부여 이미지를 부각하고 백제문화를 선양하려 하고 있다.

서천군은 장·군산업기지 개발 등 서해안 개발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배후지역 유입인구의 관광위락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의 협소한 공용터미날을 이전 확장하기 위해 서천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날

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그리고 임해공업단지의 입지 및 공업발전과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장항항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개발하려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은 금강변 4개면 지역의 농경지 및 주택이 하상보다 낮게 위치되어 범람할 경우 금강변 일원의 침수가 우려되어 금강변 지역의 농경지 및 주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의 뚝을 높이는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산 정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따라서 충청도와 각 시·군이 금강권역에서 위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시기적 구분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시 투자의 우선순

〈표16〉 시·군별 금강권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공 주 시	- 곶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 장의 예식장 운영 -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추진
논 산 시	- 도시근교 농업단지 조성, 국민관광단지 조성 - 종합관광센터 설치운영, 성동 광석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금 산 군	- 개삼터 인삼관광단지 종합개발, 대둔산 골프장 건설
연 기 군	- 내통에 물류유통단지 건설,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망 확충 -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건설
부 여 군	- 농산물공판장 설치, 나성 동문지와 성흥산업 남문지 복원사업
서 천 군	-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사업, 공용터미날 이전 확장 - 장항항 민자유치사업 개발
청 양 군	- 금강제방 고상(高上)공사, 정산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과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자료, 1996.

〈표17〉 시·군별 개발전략 및 추진 방향

구 분	내 용
공 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및 관광기반의 강화 - 도시기능의 확대에 대비한 지역 공간구조의 재편성 -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장래 공간구조변화에 대응한 종합교통망체계 구축
논 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 -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정책의 적극 추진 -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 지역간 교류망의 체계적 구축 - 장기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 복합관광 도시화 추진 - 기술연구 중심의 고등교육기관 신설과 지역산업 연구단지와의 연계강화
금 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 -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 지역산업구조의 다기능적 전환·유치로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도로망의 정비 및 확충으로 통합적 교통체계망 확립 - 주변 경제권과의 유기적 연결기능 강화로 지역성장력 확보 - 지역 정주체계에 따른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정비 -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한 특화산업기능 중점 개발 - 금산인삼타운의 건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 장기적 용수공급 체계의 확보 - 부존자원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연 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발적 공장입지를 체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집단화하여 지역환경 보전 -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해 첨단산업 및 무공해 식품산업 중점 육성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대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 - 조치원읍의 도시경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도심기능을 강화하며 인접 농촌지역과 연결도로망을 정비·확충 -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교육, 의료 등의 생활 및 복지환경시설의 확충 - 지역주민 및 대도시의 주말 휴양관광객을 위한 관광농원 개발 추진

구 분	내 용
부 여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지역발전 기반구축 - 지역산업구조의 다기능적인 전환·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생활권내 연결체계의 정비·확충으로 통합적 연결체계의 확립 - 주변 경제권과의 유기적 연계기능의 강화로 지역성장력 확보 - 생활권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정비로 지역주민의 기본수요 충족 -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역특화산업의 중점개발 - 단계별 개발축의 설정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유도 - 군내의 관광자원과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광루트화 모색
서 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국가공단 배후도시 육성 및 지역생활권 체계강화로 중심기능 강화 - 공단조성 및 배후 신도시 건설로 사회적 유입 인구의 정착유도 및 산업 구조의 개편 - 지역 소득증대 방안 모색 - 산업유통 및 관광산업 수요증대에 대비한 지원시설 확충 - 거점시설의 확충 및 지역연계 교통망 정비
청 양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소득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 농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업기반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다각화 - 인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 합리적인 자원개발과 환경보존 - 교통망의 정비확충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의 건설종합계획 및 보고서, 1996.

위 등을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 금강권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충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지리적인 연계성에

따라 시·군을 특화사업 벨트로 묶어 공동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림4 참조>. 이에따라 공주, 부여를 내륙관광산업 벨트로 조성하여 전국 및 대전 대도시권 지역을 위한 역사문화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논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농·축·공 집배송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기의 경우는 교통의 편리성과 수도권으로 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금산과 청양의 경우는 지역특산물 개발 및 대전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근교 스포츠 레저관광사업과 산악형 관광지를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천은 전국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해안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권은 주운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4〉 금강권 주요개발사업 추진방향

서천-공주-부여간 백제문화 유적지와 연계된 주운개발로 관광 유람선을 운항하며 태안해상국립공원, 안면도, 삽교호, 아산호 등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유람선을 운항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의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전략 및 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표17>과 같다.

Ⅶ. 결 론

금강권 개발의 전체적인 여건과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금강권역에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가 부재하다는 것과 지역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금강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논산-부여를 중심축으로 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의 지역개발과 발전을 수립하는데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제한 요인을 극복하고 각 시·군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시·군의 기업가 및 지역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주운, 유통, 도시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그 지역에 맞는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청양은 주운 관광 산업지대로 연기-논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유통 및 집·배송 단지로 조성하고, 금산-서천은 도시근교 농업과 특화작물 및 레저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을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같은 단지로 형성된 연계 시·군의 상호 보완기능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금강권역 전체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금강권의 연계 도시간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체계의 구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5.
- 국토개발연구원, 광역개발계획 수립지침 연구, 1994.
- , 국가발전과 지역균형, 1989.
- , 국토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3.
- , 대도시권의 설정과 기능정립 방안, 1985.
-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제1권, 1992.
- 공주시, 공주권 종합개발계획, 1994.
- 금산군, 금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 1992.
- 논산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전략, 1995.
- 배종득 외, 민자유치론, 서울: 박영사, 1995.
- 부여군, 부여군 건설종합계획, 1995.
- 서천군, 서천군 건설종합계획, 1994.
- 어명근 외,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 연기군, 제1차 건설종합계획, 1992.
- 이동령, “금강의 자연환경,” 금강지(상), 충청남도, 1993.
- 이정주, “금강권역의 환경보전 대책,” 대전일보창간 심포지엄 자료, 1995.
- 임양빈, “지방화 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청양군, 청양군 건설종합계획, 1994. 2.
- 충청남도,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1989.
- , 충청남도 서해안 종합개발계획, 1988. 1.
- ,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 , 경영행정 기본계획, 1995.
- , 지역경제 6개년 계획, 1996.
- , 4대권 개발경영 구상, 1995.
- , 2000년대 충남의 발전비전 워크숍 발제논문, 1995.
- , 충청남도 장기용수 공급계획, 1993. 12.
- , 지방자치를 통한 충남지역 개발촉진 방안, 1992.
- , 시·군 대토론회 자료, 1996.
- , 각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 , 각 시·군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 자료, 1996.
- , 각 시·군 통계연보, 1995.

금강개발이 농·공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철
(金容哲)

중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I. 서론

II. 금강권역의 경제적 재인식

III. 금강권역의 농·공업 현황

IV. 금강권역 개발과 농·공업 개발과제

V. 결론

I. 서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되

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추진으로 선진국경제에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자 지역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지역적 차원의 경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내·외적인 현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은 선을 그어 놓고 통제를 하여왔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전체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신 지역경제 그 자체가 능력에 따라 곧바로 국내 타지역이나 세계 어느 지역과도 직접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교역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역경제현실은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관리체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갈수록 지양되고, 그 대신 이제는 국내시장보다는 世界市場을 향한 世界化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 삶의 추구를 위한 地方化가 동시에 전개되는 세방화(glo-

calization)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지역생활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도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응전(應戰)을 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규모나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이러한 지방화에 대응할 만한 단계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하나의 지역경제적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러한 지역경제적 권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천혜적 조건인 錦江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금강은 지역주민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젖줄이기에 과거에 받아 왔던 경제적 삶의 혜택의 고마움을 다시금 생각하여 보아야 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역주민이 거주·존재하는 한 아껴가면서 보존·이용·개발하여야 하기에 지역경제적 개발차원에서 재음미하여 보아야 할 시기와 와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과정을 경제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어느 지역이든 타 지역보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은 분명히 인류가 이용 가능한 물(水)을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세계 4大 문명발상

지가 강을 끼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여러 세계 고대도시나 중세·근세의 세계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는 모든 都市들이 물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가까이 국내를 살펴 보아도 서울, 인천의 漢江이, 대전의 錦江이, 광주의 滎山江이, 부산, 대구의 落東江이 그것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모든 인류발전에 있어서 물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금강권역에 대한 지역경제적 재인식을 하여야 할 역사적 사항들을 언급하고 나서, 금강권역의 지역경제적 현실은 농·공업적 측면에서 어떤 형태인지 알아 보고, 금강권역내에 있는 농업 및 공업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며 재음미하여 보고자 한다.

Ⅱ. 금강권역의 경제적 재인식

1. 경제적 재인식의 필요성

1) 수운거점의 경제적 음미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의 문제 해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value)로 본다면 부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경제발사회 발전단계를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원시공유제 경제체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고대 노예소유제 경제체제, 중세 봉건농노제 경제체제,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고도화된 자본주의사회의 진전(박명광 · 이정용, 1993, pp.3-8)의 모든 과정이 근저에는 어떻게 하면富를 축적하여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삶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 각각의 개인들은 의식주의 생활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류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물(水)의 경제적 이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생활권역에 관한 요인을 밝혀 내는 것이 논점이다. 지금보다 경제규모나 체제가 단순하고,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水運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즉, 경제적 삶에 필요한 물자나 산물이 항구나 하구를 거점으로 무역이나 移出入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물에 근접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크거나 작거나 모든 도시들이 물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물론 오늘날은 철도나 자동차 및 항공기 등의 수단이 발달하여 육상 및 항공교통의 요충지, 지역경제적 개념에서 보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의 개념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대량화물수송의 수·출입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의 근처

에 인류가 정착하여 이를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경제권역의 현황을 살펴 보고, 급격하게 변하여 가는 새로운 경제사회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적응방법을 재인식하여 보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좁게는 우리 지역의 천혜자원인 금강권역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장기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재인식하여야 한다.

2) 금강유역의 개황

근대 조선시대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경제적 시장권은 한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써, 물자수송(流通)이 仁川항구를 경유지로 하여 그 영향권하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조선시대의 충청남도는 적어도 철도교통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진다(안병식 외3인, 1989, pp.154-173). 첫째는 인천과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들 수 있는 아산만의 여러 항구 중의 하나인 둔포를 거점으로 한 북부지역이 그것이다.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牙山, 新昌, 成歡, 稷山, 木川, 奎義 등이 있다. 둘째는 禮山에서 洪城로 해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서부지역이다.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德山, 大興 등이 있다. 서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분류하자면 서남부지역으로써 이의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들은 保寧, 藍浦, 庇仁,

舒川 등이 있다. 셋째는 江景, 論山 등을 중심으로 하고, 그 경유지를 군산항구로 하는 금강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 경제적 권역은 강경, 논산을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 지방인데, 상류에는 부여, 공주, 연기, 대전, 금산에 이르며, 하류에는 서천, 군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충청남도에 있어서 3개의 권역이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부선철도(1905)와 호남선철도(1914)가 개통되면서 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는 데, 물론 이에 더하여 충북선철도(1925)와 장항선철도(1931)가 개통되면서 부터는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항구나 하항의 이용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의 역이나 분기점들이 하나의 결절지역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실례로써 신흥성장지역으로 등장한 도시들이 대전, 조치원, 천안, 장항 등이다. 이러한 신흥도시들은 지금까지도 성장거점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개발적 차원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은 금강유역에 위치해 있는 금강권역 군단위 지역의 쇠퇴현상이다.

2. 토산물 및 수공업현황

土産이라고 하는 말은 土地所産의 줄임말로써, 어느 한 땅(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의

미한다. 이는 최근에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身土不二라고 하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토산은 일정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과 더불어 오랜 동안 적응하면서 생존하여 온, 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연자원인 것이다.

조선후기 금강유역의 토산물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2, pp.178-179)

錦山(10종) 錦山(4) : 海松子, 松담, 蜂, 蜜
珍山(9) : 柿, 楮, 桑, 松담, 石담, 蜂, 蜜, 漆, 鐵

燕岐(3종) 燕岐(3) : 錦鱗魚, 訥魚, 蟹

公州(10종) 公州(10) : 棗, 柿, 紙, 墨, 鐵, 葦魚, 秀魚, 錦鱗魚, 訥魚, 蟹

靑陽(11종) 靑陽(3) : 苧, 紫草, 川魚

定山(9) : 苧, 楮, 漆, 鐵, 蜂, 蜜, 訥魚, 錦鱗魚, 蟹

論山(19종) 連山(12) : 栗, 柿, 楮, 蜂, 蜜, 苧, 漆, 鐵, 魚, 錦鱗魚, 銀口魚, 蟹

恩津(9) : 柿, 竹, 箭, 鐵,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魯城(3) : 鐵, 魚, 蟹

扶餘(11종) 扶餘(6) : 柿,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林川(9) : 柿, 苧, 布,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鰕

石城(8) : 苧, 布, 鐵, 葦魚, 秀魚, 魚, 白魚, 蟹
 鴻山(4) : 柿, 苧, 布, 漆
 舒川(14종) 舒川(7) : 柿, 竹, 黃角, 苧, 鰻, 蛤, 海衣, 其他 魚物 20餘種
 韓山(9) : 柿, 竹, 苧, 布, 漆, 葦魚, 秀魚, 白魚, 魚
 庇仁(7) : 柿, 竹, 黃角, 細毛, 鰻, 蛤, 海衣, 其他 魚物 10餘種

과 같다. 금강권역에서 토산되는 물류는 모두 35종류로 파악되는 데, 어류 14종, 임산물류 7종, 과물 3종, 봉밀류 2종, 의류 2종, 공산물류 4종, 광산물류 1종, 기타 2종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논산이 19종으로 토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천 14종, 부여 11종, 청양 11종, 공주 10종, 금산 10종, 연기 3종 등이다.

한편 수공품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임원 16지, pp.4-8)

錦山(9종) 錦山(8) : 綿花, 綿布, 生麻苧布, 土器, 磁器, 茵席, 木物, 米穀
 珍山(6) : 綿花, 土器, 磁器, 木物, 米穀, 煙草 燕岐 (1종)
 全義(1) : 鑰器

公州(5종) 公州(5) : 綿花, 綿布, 紙物, 竹物, 米穀
 靑陽(2종) 靑陽(2) : 米豆, 煙草
 定山(2) : 米荳, 煙草
 論山(8종) 連山(3) : 綿花, 綿布, 煙草
 恩津(7) : 綿布, 麻布, 土器, 鑰器, 釜鼎, 米荳, 煙草
 扶餘(3종) 扶餘(3) : 綿布 苧布, 煙草
 林川(2) : 苧布, 煙草
 鴻山(2) : 苧布, 煙草
 舒川(2종)
 韓山(1) : 苧布
 庇仁(2) : 苧布, 魚鹽

과 같다. 금강권역에서 생산되는 물류는 모두 16종류로 파악되는데, 織造類 4종, 器物類 3종, 紙物類 1종, 席子類 1종, 鑛產物類 1종, 木材類 2종, 農產加工物類 3종, 기타 1종 등이다. 이상과 같이 토산물과 수공품의 분포된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금강권역의 상류지방에는 비교적山野에서 土産되는 物類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류지방에는野河에서 土産되는 물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柿와 蟹는 금강권역의 대부분 지역에서 土産되고 있다. 이 시기까지만 하여도 아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가공된 어떤 공산품의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자연채취 그 상태로 만족하거나 약간의 가공된 형태의 물류로써 존재하는 산물류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오늘

날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발굴·육성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3. 외공장(外工匠), 소(所), 부곡(部曲)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까지도 생산품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농산품, 임산품 및 수산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고, 공업생산품에 있어서는 기계를 이용한 공장제 기계공업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소규모의 원시적인 수공업에 의한 생산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봉건적 유제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자급자족경제가 해체되지 않고 있어서 각종의 장인(匠人)들은 중앙 및 지방관청에 分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산품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각 관청의 수요였고, 민간수요는 특정한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匠人의 자유로운 수공업활동은 크게 평가할 수는 없는 단계였다(김신웅, 1984, pp.178-179). 우리 나라 수공업의 원류를 밝히자면 중국에서부터 部曲의 유래를 찾아 그 시발점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신라시대부터 발전하여 조선시대 초기까지 존재하였던 향(鄕)·소(所)·부곡(部曲)에 대하여 大要를 밝혀 보고자 한다. 신라는 천민집단으로 향·소·부곡의 특수지역을 편성하였는데, 향·소는 주로 광공업, 수공업에 종사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천민부락으로 강등된 부곡민은 각종의 산업, 특히 농업에 종사하였다(변태섭, 1979, p.98). 특히 소는 신라의 부곡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특산물의 생산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신분적으로는 천민에 속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일반농민수공업자와 구별되는 특정물을 생산하는 곳을 소라 하였다. 소는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별공수납대상지였으며, 여기에서는 특화된 전업적인 수공업을 이루고 있었다. 소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특정물의 생산지역을 국가가 선정한 것으로서 행정단위로도 특수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소의 주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별공인 특산물 공급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들이 특산물 급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생산은 자기경영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별공 또는 조세공과를 부담하고 잔여처리는 자기경영에 속하는 것이었다. 각 소의 생산물은 특화되었고, 생산은 전문화하였으므로 농민의 생산물보다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이와 같이 소는 수공품 생산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신웅, 1984, pp.8-9).

1) 외공장(外工匠)

조선시대초기에 5개 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외공장은 모두 2,908명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은

622명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 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외 공장을 살펴 보면

錦山(25명) 錦山(14)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5), 席匠(1), 磨造匠(1), 油具匠(1)

珍山(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磨造匠(1), 油具匠(1)

燕岐(22명) 燕岐(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全義(11) : 冶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公州(20명) 公州(20) : 甲匠(1), 冶匠(2),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鎡匠(1), 漆匠(1), 沙器匠(3), 紙匠(6), 席匠(1), 油具匠(1)

靑陽(20명) 靑陽(11)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2), 紙匠(2), 席匠(1), 油具匠(1)

定山(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論山(19명) 恩津(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連山(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扶餘(43명) 扶餘(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林川(14)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沙器匠(2), 紙匠(3),

席匠(1), 油具匠(1),
黃囊匠(1)

石城(9)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鴻山(10)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1)

舒川(31명) 舒川(11) : 冶匠(1), 弓人(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油具匠(1)

韓山(10) : 冶匠(1), 弓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3), 席匠(1), 油具匠(1)

庇仁(10) : 冶匠(1), 矢人(1), 木匠(1), 皮匠(1), 漆匠(1), 紙匠(2), 席匠(1), 油具匠(2)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외공장의 종류는 모두 14 장인으로 파악되는데, 각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업종별로 분포되어 있다. 인원수로 보면 금산 25명, 연기 22명, 공주 20명, 청양 20명, 논산 19명,

부여 43명, 서천 31명 등이다.

2) 소(所)

조선시대 초기에 5개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소는 모두 288개소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은 71개소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를 살펴 보면

錦山(7개소) 錦山(7) : 浦保鹽, 橫川, 金岩, 太谷, 安城, 銅界, 陽良

燕岐(1개소) 燕岐(1) : 시川

公州(8개소) 公州(8) : 甲村, 令丹, 金生, 鳴鶴, 福水, 村介, 熊津, 樸山

靑陽(2개소) 靑陽(2) : 橫川, 上田

論山(없음)

扶餘(6개소) 扶餘(1) : 楓枝

林川(3) : 古多只, 今岩, 召羅

鴻山(2) : 非刀, 吳舍

舒川(3개소) 舒川(2) : 林述, 熊津川
韓山(1) : 鸚谷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를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7개소, 연기 1

개소, 공주 8개소, 청양 2개소, 논산은 없고, 부여 6개소, 서천 3개소 등이다.

3) 부곡(部曲)

조선시대초기에 5개 지역(京畿, 關東, 湖西, 湖南, 嶺南)에 分屬되어 있는 부곡은 모두 455개소인데, 그 중에서 호서지역이 76개소이다(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김신웅, 1984, pp.8-9).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곡을 살펴 보면

錦川(없음)

燕岐(1개소) 燕岐(1) : 大興

公州(7개소) 公州(7) : 貴智, 良化, 利仁, 난釜, 淸流, 美化, 古良

靑陽(2개소) 靑陽(2) : 永壽, 又本 論山(1개소) 連山(1) : 廣조

扶餘(2개소) 扶餘(1) : 石田

林川(1) : 安良

舒川(없음)

과 같다. 금강권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곡을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은 없고, 연기 1개소, 공주 7개소, 청양 2개소, 논산 1개소, 부여 2개소이고 서천은 없다.

4. 물자집산의 거점

오늘날 물자가 집산하는 것은 고도로 잘 발달된 교통수단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광범위하지만, 적어도 불과 1~2백년 정도만 하여도 지금과는 판이하였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고 자연친화적이었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물자집산의 기본원리가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보호아래서 경시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금강유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크게는 한성을 드나드는 인천항구의 시장권의 영향권하에 있었다. 즉 물자가 인천항구에서 주로 들어 와서 군산항구를 거쳐 강경, 부여, 공주, 부강 등의 하항을 거점으로 집산이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은 일명 금강유역의 5포구라고 불리워지는, 오늘날로 되새겨 본다면 하나의 지역경제적 거점지역 내지는 결절지역인 셈이다.

특히 강경은 중계하항으로써, 서천·청양·공주·회덕·금산·전주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나도승, 1981, p.101). 그러던 것이 호남선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영향력이 감소되었지만, 지금의 금강권역의 개발적 차원에서는 왜 이와 같은 하항들이 발전하였고 쇠퇴하게 되었는가를 재음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금강권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대전을 하나의 중심도시로 한다면,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금강유역의 전체적 중심지역인 이와 같은 과거의 물자집산의 지역들이 꼭 필요하다.

Ⅲ. 금강권역의 농·공업현황

1. 농업현황

1) 금강권역 농업개발계획현황

(1) 충청남도의 농어촌발전계획(안)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농어촌발전계획(안)(1992~2001)을 수립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발전계획(안)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투자비를 총42조원으로 계획하고 이를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사전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때 충청남도는 자료제출을 위한 작업에 있어서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부문(농림수산부)의 정책적 방향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장목표의 선정, 중점개발과제, 중요전략사업 및 핵심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로 및 농지종합정비분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도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2

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안의 농어촌개발 부문과도 연계하여 작성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작성된 충청남도의 농어촌발전계획(안)의 중점방향은 크게 5가지로 집약되고 있는 데, 첫째는 정예농어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업의 형태별 개발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이용형 농업(생산기반정비, 경영규모확대, 영농기계화 등), 시설이용형 농업(시설현대화, 자동관배수 등 생력화, 유통개선), 축산업(시설자동화, 오염방지시설, 적정사육규모유도 및 계열화사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는 지역별 특성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는 고급 농산물생산의 증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수출촉진사업의 추진이다. 다섯째는 환경농업적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양단지조성, 유기농법, 무공해 생산단지조성, 농업공원 등이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사업이 목표년도인 2001년에 완수되면 농가인구가 495,900명(농가호수는 145,580 호, 그 중에서 전업농가는 8,176 호)으로 도내 인구대비 21.4%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소득은 2,592 만 원인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1,192 만원(약 46%)이고, 농외소득이 1,400 만원(약 54%)으로 점차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다. 생산기반시설을 보면 진흥지역내의 담경지정리율을 100%로 완성하여 전부 수

도작기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으며, 농업생 산물의 공동출하율도 60%, 농어촌도로포장 율도 65%로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 역별로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 전체를 크게 5대 권역별로 나 누어 개발전략에 의거하여 연계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5대권역별로 각 지역권역 의 특성을 살펴 보면 대전시근교지역(금산, 연기, 공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근교농업 지대, 금강하류지역(논산, 부여, 서천)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부평야농업지대, 서부 차령산 맥이 관통하는 지역(청양, 홍성, 보령)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부 준산간농업지역, 서해안 서북부지역(당진, 서산,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평야 농업지대, 동북부지역(천 안, 아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전원 농업지대 등이 그것이다.

(2) 금강권역 개발계획 실태

충청남도의 4대 권역별 개발경영전략 중 에서 금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근교 농 업지대와 남부평야농업지대의 개발전략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전시 근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근 교 농업지대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영농기술수준이 높고, 새로운 기 술의 수용태세가 양호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이 지대의 농업발전전략은 첫째, 도시근교의

경제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 설원예, 시설과수, 화훼 및 관상수 재배의 확대이다. 둘째, 도시 및 주변 공단과 연결 된 농외 취업기회 확대이다. 셋째, 계룡산 국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 및 금강변의 경관자원과 금산 인삼타운(town) 등과 연 계된 관광농업 개발의 사업추진이다. 넷째는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발굴하여 생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제 고시킨다.

그리고 금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 평야 농업지대는 금강유역의 대단위 평야지 대로 논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 어서, 미곡생산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 역이다. 그러나 금강하류의 제방시설이 취약 하여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농경지침수와 유실이 잦은 지역이다. 그리하 여 이 지대의 농업발전전략은 첫째, 미곡생 산성의 증대를 위한 농기계보급 확대와 기 술지도에 역점을 두어 하나의 라이스 센터 (rice center)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경지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답리작 시설채소 재배의 확대와 관련된 기술 및 자금지원이 다. 이러한 형태의 농업조건이 가능한 것은 금강유역의 넓은 하천주변이 총적토 지대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데 단지화 추진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농후 사료형 축산 즉, 돼지 닭과 같은 짐승의 사육증대이다. 넷째는 특수작물인 땅콩, 마늘 등을 재배 확

대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농외소득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가공산업의 육성이다. 그 실례로 논산의 딸기, 부여의 토마토, 한산의 모시와 소곡주 등을 생산하여 가공공장까지 설치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홍수 피해의 상습지역인 금강하류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사업의 추진이다.

각 군별로 사업추진방향을 살펴 보면 도시근교농업지대인 금산은 인삼타운·산림욕시설이고, 연기는 복숭아 등 가공산업 개발이고, 공주는 농산물 상품개발센터·관광농업육성·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이다.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인 청양은 자연휴양림 조성이다. 남부평야 농업지대인 논산은 딸기특화시험장 및 가공공장·조경수 생산단지 육성이고, 부여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의 연계이고, 서천은 경종농업 종합개발 등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243-276).

2) 농업경영실태

충청남도의 농가호수는 1992년말 현재 전업농 132,476 호, 겸업농 76,514 호로 총 208,990 호이다. 여기에서 농민후계자 육성현황을 살펴 보면 1992년 현재 남자 5,685 명, 여자 104 명으로 총 5,825 명이다. 영농후계자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보면 금산 336 명, 연기 258 명, 공주 426 명, 청양 275 명, 논산 530 명, 부여 550 명, 서천 412 명으로 부여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의 담면적은 1992년말 현재 총

198,271ha 이고, 경지정리실적은 91,799ha로써 경지정리율은 46%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경지정리율을 살펴 보면 금산 25%(6,433ha 중에서 1,610ha), 연기 41%(6,751 중에서 2,796ha), 공주 34%(13,467ha 중에서 4,665ha), 청양 39%(8,132ha 중에서 3,197ha), 논산 64%(18,330ha 중에서 11,739ha), 부여 49%(17,309ha 중에서 8,476ha), 서천 58%(12,261ha 중에서 7,136ha)로써 충청남도의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남부평야농업지대인 논산·부여·서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기계화영농단조성은 1992년말 현재 총 4,948 개소인데, 이를 규모별로 살펴 보면, 대규모가 3,017 개소, 소규모가 1,931 개소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92 개소, 연기 178 개소, 공주 331 개소, 청양 216 개소, 논산 408 개소, 부여 386 개소, 서천 313 개소로써 논산이 가장 많다.

충청남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은 1992년말 현재 총 449,063 대로 경운기 94,898 대, 트랙터 8,683 대, 이앙기 26,889 대, 바인더 4,849 대, 콤바인 9,391 대, 곡물건조기 3,623 대, 기타 300,730 대 등이다.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8,282 대, 연기 17,020 대, 공주 34,385 대, 청양 21,159 대, 논산 34,517 대, 부여 35,400 대, 서천 22,593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현황은 농촌인력이 점점 고령화

및 부녀화되어 가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일손을 대신하여 줄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수는 1992년말 현재 총42개소인데, 이를 금강권역에 한정해서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개소, 연기 1개소, 공주 2개소, 청양 2개소, 논산 4개소, 부여 5개소, 서천이 3개소로써 부여가 가장 많다(대전·충남연감, 1993, pp.441-456).

2. 공업현황

1) 기업체수 현황

오늘날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 등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는 것은 그만큼 2·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기업체수는 1992년말 현재 총 2,775개 업체로써 대기업체가 35개, 중기업체 1,148개, 소기업체 1,189개 등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특히 금강권역의 기업체수는 총1,059개 업체인데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52개, 연기 202개, 공주 250개, 청양 25개, 논산 273개, 부여 89개, 서천 68개 등이다. 금강권역의 기업체수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 211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289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49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

조업 45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 118개, 비금속광물제조업 174개, 제1차 금속제조업 49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68개, 전기전자제조업 56개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연기·금산·부여·서천·공주·청양 순(順),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공주·논산·연기·금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공주·연기·부여·논산·청양·서천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논산·공주·금산·청양·부여·서천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금산·논산·공주·서천·부여·청양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부여·금산·서천·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논산·서천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논산·금산·연기·서천·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금산·공주·부여·청양·서천 순이다.

2) 취업자수 현황

앞에서도 말했듯이, 산업구조가 1차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형태도 이에 편승하여 3차산업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요사이에는 3D(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작업)산업의 취업기피현상으로 어찌됐던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산업(기업)들도 취업구조의 불균형 현상으

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충청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992년말 현재 총1,872,095명이고, 가구는 총 511,843호이고, 취업자수는 총105,7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특히 금강권역의 취업자수는 총 31,971명인데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5,143명, 연기 9,355명, 공주 4,113명, 청양 567명, 논산 7,688명, 부여 3,271명, 서천 1,834명 등이다.

금강권역의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 6,362명,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6,595명,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698명,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 3,127명,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 4,280명, 비금속광물제조업 4,453명, 제1차 금속제조업 1,371명,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 2,462명, 전기전자제조업 2,623명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부여·공주·연기·금산·서천·청양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금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부여·논산·청양·서천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부여·논산·금산·공주·청양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금산·연기·논산·서천·부여·공

주·청양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공주·금산·부여·청양·서천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논산·금산·연기·공주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연기·금산·논산·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금산·공주·부여·청양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3) 생산현황

금강권역의 제조업생산현황을 살펴 보면, 1992년말 현재 내수가 총2,004,098백만원이고, 수출이 총349,154천달러이다. 이것을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186,411백만원(19,145천달러), 연기 377,757백만원(211,009천달러), 공주 233,237백만원(12,101천달러), 청양 59,520백만원(3,500천달러), 논산 476,437백만원(30,155천달러), 부여 358,900백만원(56,142천달러), 서천 311,836백만원(17,102천달러) 등이다.

금강권역의 제조업 생산현황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이 575,872백만원(58,223천달러),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이 120,112백만원(163,433천달러),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이 31,287백만원(1,311천달러),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이 273,692백만원(18,602천달러),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이 261,889백만원(10,007천달러), 비금속광물제조업이 496,563백만원(8,113천달러), 제1차 금속제조업이 70,394백만원(22,206천달러),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이 85,730백만원(18,290천달러), 전기전자제조업이 88,559천달러)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공주·서천·금산·부여·연기·청양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연기·공주·금산·논산·부여·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연기·공주·부여·논산·서천·청양 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부여·논산·금산·공주·청양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청양·금산·부여·논산·공주·서천 순,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부여·서천·논산·연기·공주·금산·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서천·논산·금산·연기·공주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금산·논산·연기·서천·공주·청양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서천·공주·금산·부여·청양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4) 수출업체 현황

금강권역의 1992년말 현재 수출업체수는 총99개 업체인데, 각 지역별로는 금산 9개, 연기 34개, 공주 7개, 청양 1개체, 논산 28개, 부여 10개, 서천 10개 등이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이 18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이 32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이 1개,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이 5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이 8개,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8개, 제1차 금속제조업이 7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이 6개, 전기전자제조업이 14개 등이다. 음식료품가공 및 제조업은 논산·부여·금산·연기·서천·공주 순,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은 논산·연기·부여·공주·서천 순,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금산,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제조업은 연기·서천·논산 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업은 연기·금산·서천 순, 비금속광물제조업은 논산·연기·부여·금산·청양 순, 제1차 금속제조업은 서천·연기·공주·논산 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제조업은 연기·금산·논산 순, 전기·전자제조업은 연기·논산·공주·부여 순이다(대전·충남연감, 1993, pp.1134-1200).

5) 농공단지 현황

정부는 대도시 공업의 지방분산과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공업입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업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농촌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 1983. 12.)을 제정하여 농공지구를 중심으로한 농촌공업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경제역의 향상과 농외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공단지 49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1992년말 현재까지 44개 지구(2,161천평)를 완료하고, 2개 지구(90천

평)는 조성중이며, 3개 지구(130천평)는 조성준비를 하고 있다(대전·충남연감, 1993, p.462).

금강권역에 있어서 농공단지를 살펴 보면 1992년말 현재 총21개 단지, 160개 업체에서 8202명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살펴 보면 금산 2개 단지(23개 업체, 851명), 연기 3개 단지(33개 업체, 1,828명), 공주 5개 단지(34개 업체, 1,837명), 청양 4개 단지(22개 업체, 2,485명), 논산 3개 단지(34개 업체, 850명), 부여 2개 단지(8개 업체, 261명), 서천 2개 단지(6개 업체, 90명) 등이다.

Ⅳ. 금강권역 개발과 농·공업 개발과제

이상과 같이 금강권역에 대한 경제적 인식을 과거의 한 역사적인 측면과 현재의 농·공업 현실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과거의 경제적 현상을 오늘의 현실과 비교하려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넘나들다 보니 무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여 뿌리가 있는 전통의 지역경제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모형이라고 하는 필자의 한 바람으로써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겹하여 개발과제를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는 開發哲學의 不在現象이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자본주의정신에 맞추어진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모든 사고나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 어떠한 방법이 됐던 간에 결과가 이익(이윤)만 많이 남기면 된다는 생각들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은 자기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 올지 모르나, 종국에 가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단위에 지역경제개발의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각각의 개인에게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성급하고 단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이제는 지양하고, 무엇이 진정하고도 장기적으로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가의 개발철학적 차원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지역과 같은 개발후유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미한 금강권역은 매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후발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립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기 이전에도 각 지역, 예를 들면 단위지역별로도 님비(NIMBY)현상이 상존하여 지역간 경제개발

의 협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더우기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동일조건이 2~3개의 단위지역에 공존하고 있음에도 각 단위지역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금강권역과 같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생활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단위체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므로써 각각의 단위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미미하지만 광역적으로 통합한다면 대외적으로 신용도나 경쟁력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다.

셋째는 해당지역의 경제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응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또는 지역개발정책이 거의 대부분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하여 시행하다 보니 진실로 귀중하게 아끼면서 보존·보전해야 할 우리 전통의 경제생활의 삶의 맛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 및 체질 등이 모두가 외국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이 혹자들은 세계화·국제화라고 착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세계화·국제화는 우리 전통의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갈고 닦을 때 빛이 나서 이것을 외국인들이 수용할때 진정한 우리의 세

계화·국제화가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금강권역이 우리 국토의 타지역에 비해서 덜 발전·개발되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국제화·세계화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다행인지 모른다. 이미 개발되어서 고유의 “전통적인 삶” 그 자체가 모두 없어져 버린 지역은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 없으나, 우리 지역은 이러한 전통을 타지역에 비해 많이 간직하고 있어, 이런 후발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통적 농·공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화·국제화하여 나가야 하겠다.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경제적 자원은 없다.

넷째는 자연친화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외국의 모델을 도입하다 보니, 우리 전통적 삶의 자연순응적 형태가 아닌 자연도전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 모두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자연순응적 기반위에서 자연친화력을 가진 지역경제개발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동안 생활의 터전을 쌓아 온 경제적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선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한 경제생활을 해 왔는지, 아마도 그 당시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것이었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삶의 경제개발은 앞으로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상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법을 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금강권역도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밝혀야 할 경제적 유산들이 많이 있다.

다섯째는 연구하는 농·공업인을 육성하는 일이다.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정보가 빨라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것 뿐이다. 농촌지역도 과거와 같은 전통적 답습에 의한 농업경영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이에 기반을 둔 도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단순한 농업생산만을 하여 1차산물로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때에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노력하여야 한다(김용철, 1995, pp.3-33). 금강권역에서도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

여섯째는 고급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작업이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앞으로는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까지 접근하여 판매까지 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지역에서의 농업과 공업은 별개의 것처럼 정책을 시행·추진하여 온 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효율적인 면만 연출하고 말았다. 그러한 예가 농공단지의 일부가 그렇다. 농공단지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그렇고, 취업자의 형태가 그렇고, 생산된 상품도 지역화가 어려웠다. 단지 그 지역에서 생산만 한다는 그 자체 뿐이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의 운영을 그 지역에서 토산되는 것들(농산물이나 돼진, 기타 2·3차 산물이 돼진간)을 재료로 하여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치중하여야 한다. 일부지역의 농·공산품은 이미 지역특산품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보다 공고히 하여야 하겠다. 지역경제적 부를 보다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가공·유통까지 취급하여야 하겠다.

일곱째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형태로 농공단지를 육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의 주수입이 농업경영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인접지역에 공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그 지역에서 토산되는 산물을 가지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유치하여, 가족의 일부가 취업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공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생

산재료도 토산이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농가측에서는 토산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 길이 트이는 한편, 취업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이중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농가 가구원도 충분한 생산과정의 지식을 알고 있어서 취업시에 흥미가 있고 안심이 되며, 공장 운영자도 타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재료나 취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상호 호혜적이다.


V. 결 론

한국경제나 그 하위단위인 지역경제의 장래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게 구축하여 나아가려면 반드시 역사적 궤적(軌跡)을 찾아서 참조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 입장과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지녀 온 전통적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되고 있었는가를 재음미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단위지역별로 지역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러한 조명이 매우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금강권역에 있어서 선조들의 전래적 삶의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 현재상황의 농·공업적 측

면에서 서술하여 보았다. 전래적 삶의 형태와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역사성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지역성이라고나 할까 하는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타지역과 모두 비슷한 형태의 지역경제의 모습뿐이다. 그러한 형태로는 경쟁사회에서 극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발철학의 재인식, 광역협의체적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립, 해당지역의 경제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응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연친화적 지역경제개발정책, 연구하는 농공업인을 육성하는 일, 고급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작업,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형태로 농공단지육성하는 일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금강권역에 있어서 지역경제적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염두해 두고 지역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경국대전, 권지6, 공전 외공장조
공산지(상).
- 김신웅, “조선시대의 수공업 연구,” 동국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김용철, 자본집약형 농업인의 의식개혁 교
육, 금산군농촌지도소, 1995.
- 나도승, “금강수운 하항시장권의 변천에 관
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제17
집), 1981.
- 대전·충남연감편찬위원회, 대전·충남연감,
충부매일신문사, 1993.
- 대전·충남지역개발연구소,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공지구개발방향에 관한 연
구, 1987.
- 박명광·이정용, 경제학개론, 무역경영사,
1993.
- 변태섭, 수험한국사, 법문사, 1979.
- 북촌수인,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조
선헌보, 제50집, 1979.
-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8~151, 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6~46, 고적조.안병
직 외 3인 편저, 근대조선의 경제구
조, 비봉출판사, 1989.
- 임원십육지, 예규지 권제4 화식8 역장시.충
남대학교백제연구소, 대동지지(상),
농경출판사, 1982.
- 홍산읍지(전).

용담댐 건설과 금강수계

강 호
(姜 浩)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I 서론

II. 용담댐 건설의 개요

III. 용담댐 건설이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 개발경영계획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징과 경제자립 성취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즉 천안,

아산, 당진을 연결한 북부권에서는 천안의 신시가지개발, 인주공단 배후 신도시건설, 천안 제 3공단 조성, 당진 신도시개발과 아산만 종합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고, 서산, 홍성, 태안, 보령, 서천을 연결한 서해안권은 대산지방공단 배후 신도시건설, 향만건설, 해상국립공원개발 그리고 비행장 건설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금강권에는 금산, 연기, 논산을 포함하여 인삼종주지, 대단위 물류기지 건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고, 공주, 부여, 청양, 예산을 연결한 백제권에서는 백제문화의 정비·복원 및 청정지역 자연공원조성, 선진농업종합연구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서해안시대 개막과 함께 공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의 아산, 군장, 석문의 국가공단을 2001년까지 990만평으로 확대·조성하며, 지방공단도 현재 15개소 874만평에서 27개 공업단지로 확대하여 1,757만평의 지방공업단지가 조성

될 전망이다. 따라서 4대 권역별 개발경영계획의 추진과 대규모 공단 조성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산업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 파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 개발은 불가피하며 또한 이에 대응하는 환경보전의 두가지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용가능한 중·장기 환경보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요소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충분한 용수를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충남의 용수공급의 근원은 전북 무주에서 발원하여 하구언까지

무려 400km를 흐르는 금강임은 자명하다.

1993년 충청남도가 발표한 용수공급계획을 보면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용수는 급수인구의 증가율과 1인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2011년에는 총 1,172,100톤의 양이 소요되고 공업용수의 경우 1,165,000톤이 소요되어 충남에서는 1일 2,337,100톤의 물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지방공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권역별 용수부족량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공업용수(이하 생·공용수)의 수요량에서 1993년 기준 시설용량을 제하여 산정한 값으로 목표년도 2011년까지 부족분 전량인 1일 1,893,370톤의 용수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44%에 달하는 834,970톤의 물이 금강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강은 그야말로 충남의 젖줄이며 특

<표1> 충청남도의 생활용수 공급지표 및 수요량

구 분	1996년			2001년			2011년		
	보급률 (%)	1인 1일 급수량 (l)	일평균 급수량 (m³)	보급률 (%)	1인 1일 급수량 (l)	일평균 급수량 (m³)	보급률 (%)	1인 1일 급수량 (l)	일평균 급수량 (m³)
계	58	330	432,300	73	374	712,800	84	443	1,172,100
시	91	387	255,800	96	443	415,400	98	500	764,400
읍	73	280	107,700	79	308	134,100	87	354	159,900
군	24	240	53,700	43	270	97,100	53	320	125,600
공 단	-	-	15,100	-	-	66,200	-	-	122,200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기용수 공급계획, 1993.

〈표2〉 충청남도 권역별 용수공급계획

권역	용수부족량(톤/일)			용수공급계획(톤/일)			행정구역
	1996년	2001년	2011년	1996년	2001년	2011년	
충청남도	614,170	1,391,070	1,893,370	614,170	1,391,000	1,893,370	
대청댐광역	101,140	219,640	459,240	101,140	218,640	459,240	천안, 온양, 계룡, 당진 신도시, 연기, 아산
보령댐광역	151,290	228,390	299,790	151,290	228,390	299,790	서산, 대천, 대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발전소, 용주공단, 서천
지방상수도	38,440	53,940	88,640	38,440	53,940	88,640	공주, 청양, 금산
금강광역권	2,600	10,900	33,100	2,600	10,900	33,100	논산, 부여
용담댐광역	12,600	65,000	167,400	12,600	65,000	167,400	장항신도시, 장항공단내
아산만급수	308,100	551,200	553,200	308,100	551,200	553,200	서북공업지역
금강하구호	-	262,000	292,000	-	262,000	292,000	장항공단

주: 2011년 보령댐 광역부족분 21,590톤/일과 아산만 급수부족분 203,200톤/일은 대청댐 광역에서 공급예정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기용수공급계획, 1993.

히 대청댐의 역할은 충남의 용수공급 측면에서 아주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교적 유량이 풍부한 금강상류에 용담댐을 건설하여 금강의 물을 유역변경을 통하여 전주권으로 공급하게 되는 용담댐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주민들의 강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용담댐 건설이후 생태계 변화, 지하수위 저하 및 수질악화, 하천 유지용수 부족, 수리기득권 문제 등이 예측되어 지역별 용수 배분계획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 문제점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충남의 용수공급 방안에 관한 방향과 용담댐 건설로 인해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용담댐 건설의 개요

용담댐 건설사업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장군(長項·群山)산업단지, 군산, 이리, 전주 등 전주권

에 새로운 공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그 배후도시의 인구증가 등으로 야기될 생·공용수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러한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리고 유역내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농업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수력발전 등을 용담댐 건설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로 들 수 있다. 용담댐 건설사업의 개요를 요약하면 <표3>과 같으며 댐높이는 70m, 저수용량이 8억1,500 만톤으로 92년 착공하여 98년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효과로는 전주권에 생·공용수로 1일 135 만톤(초당 15.6톤)을 공급하고 용담댐 하류에 하천유지용수로 초당 5톤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표3> 용담댐 건설사업 개요

구 분	제 원
1. 위 치	① 좌 안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② 우 안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2. 유역 및 저수지	① 수 계 : 금강본류 ② 유 역 면 적 : 930 km ² ③ 연 평균강수량 : 1,259.7 mm ④ 연 평균유입량 : 769.5 백만 m ³ (24.4 CMS) ⑤ 저 수 지 면 적 : 36.24 km ² ⑥ 총 저 수 용 량 : 815 백만 m ³ ⑦ 유효저수용량 : 672 백만 m ³ ⑧ 사 수 용 량 : 70 백만 m ³ ⑨ 홍 수 위 : EL. 265.5 m ⑩ 상 시 만 수 위 : EL. 263.5 m ⑪ 저 수 위 : EL. 228.5 m
3. 규모 및 형식	① 댐 형 식 :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② 댐 높 이 : 70 m ③ 도 수 터 널 : 21.9 km (3.2 ~ 3.8 m) ④ 댐 길 이 : 498 m ⑤ 발 전 시 설 : 26,300 kw (12,000kw 2, 1,150 2)
4. 사 업 효 과	① 용 수 공 급 : 650.43백만 m ³ /년 (목표년도 2021년) ② 홍 수 조 절 : 137.0백만 m ³ ③ 발 전 : 207.81 백만 kwh/년
5 사 업 기 간	① 기 간 : 1990 1998
6 총 사 업 비	① 사 업 비 : 605,848 백만원

100년 빈도 홍수량 4,070톤/초를 1,570톤/초로 조절 방류하여 연간 11.6억원의 홍수 조절 편익과 연간 23억kwh의 수력발전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Ⅲ. 용담댐 건설이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금강수계는 대전, 충남·북, 전북 등 4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정된 금강유역 인구는 약 3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이다. 용담댐은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역변경식 댐이란 특성이 있어 1일 평균 180만톤이 유입되는데 이 중 3/4에 해당하는 135만톤(초당 15.6톤)을 만경강 유역으로 전주권에 공급하고 1/4에 해당하는 45만톤(초당 5.2톤)을 원래 물 길인 대청호 상류로 방류하도록 용수배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대청호에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4억4천톤이 줄기 때문에 수량 감소로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유역변경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이 분석평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에 의하면 97년까지 대청호 상류지역의 수질을 1급수로, 대청호 하류지역의 수질을 2-3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의 실현도 대청호 상류에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전주권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권에 1일 135만톤이란 수량이 정말 필요한 수요량인가? 하는 문제와 용담

댐 건설전에 1일 180만톤의 물량이 흘러갔던 하류 유역에서의 수리기득권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용수배분 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전주권 용수 수요량 산정

용담댐의 실시 설계는 전주권의 용수 수요량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므로 용수수요량 산정은 댐의 크기와 도수터널 및 용수배분에 따른 발전소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1991년 현재 123만명의 전주권 인구가 목표년도인 2021년에는 389만명으로 증가한다는 초기계획을(건설부, 1991) 토대로 용수공급계획과 댐의 설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연구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1994)에 의하면 2021년에 전주권의 인구추정을 적게는 234만 많게는 40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소 추정치는 최대 추정치의 약 58%정도로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장래인구 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변동의 증감추이와 지역개발계획, 인구정책 및 사회·경제적 상황변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예측기법에 따라 아주 판이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20-30년 후의 장래의 인구예측의 정확도에 관한 시비를 논하기에는 너

무나 많은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권의 인구는 1970년 250 만을 정점으로하여 1993년에는 190 만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11년에는 170-180 만 정도로 감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용담댐 기본계획에서 적용하였던 연평균 3.87% 증가율에 의한 2011년의 380 만의 인구추정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장군(長群)지구와 전주권에 유치할 공업단지를 고려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소요인원을 70-80 만명으로 본다면 2011년 전주권의 인구는 250 만에 근사한 수치가 가장 합리적인 추정값이 아닌가 사료된다. 1991년 전주권의 용수수요량은 1일 45 만5 천톤으로 이 중 생활용수가 69%인 31 만4 천톤이며 공업용수는 14 만톤이다. 2021년 전주권의 인구가 389 만명으로 증가할 경우 전주권의 생·공용수 수요량은 1일 184 만톤으로 이 중 81.5%가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량이므로 인구추정의 정확도에 따라 용수배분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장래인구 추정에 있어서의 오차 등을 고려하면 전주권 생·공용수의 부족량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약 65 만톤 정도면 부족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며 혹은 140 만톤까지도 필요하다는 대단히 신축적인 전주권의 용수수급을 전망해 볼 수 있다.

2. 초당 5톤의 하천유지 용수량

하천유지 용수는 하천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으로써 일반적으로 평균갈수량과 환경보전 유량중에서 큰 값을 택하고 있다. 평균갈수량은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자연하천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유량이며, 환경보전 유량은 주운(舟運)임해방지, 하천 관리시설의 보호, 수질보전, 어업, 하구폐쇄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동·식물의 보호, 경관 등 9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유량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보전유량은 하천자체의 환경기준 유지와 유역의 사회적 요건에 따라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균갈수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허나 과거의 유량측정은 대부분이 금강 하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금강상류는 아주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유입지천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강상류의 경우도 유량은 수위-유량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평수기나 홍수시에만 추정되고 있을 뿐 저수시나 갈수시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담댐 실시계획에서 과거 기준갈수량인 초당 12톤을 근거로하여 용담댐 하류의 하천유지 용수를 초당 5톤 방류하도록 된 계획은 자못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에

초당 5톤의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금강 상류의 갈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수질도 개선되는 것은 자명하나 평수기 보다는 오히려 적은 유량이 흐르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측면에 불리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즉 90일 갈수기 기간 동안은 득(得)이 되지만 나머지 275일간은 해(害)가 될 수 있다는 쉬운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천유지 용수의 양(量)을 계산하기 위한 뚜렷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목적댐 건설시 하류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용수는 갈수량 개념이 아니라 하천 환경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유량을 공급하는 개념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특히 용담댐 하류의 경우 대규모 유역변경에 의한 수자원의 분배라는 특성때문에 댐 하류 하천의 제반 환경이 보전되고 기능이 충족되는 종합적인 공급수요량으로 하천유지 용수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3. 용담댐 건설시 유역변경에 따른 수리권(水利權)

사회가 선진화 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선 물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불균형하여 비교적 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남는 물을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수자원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유역변경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리기득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다. 적절한 대안이 없다면 어느 한 지역으로부터 기득수리권의 포기란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물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유역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만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유역변경에 의한 수자원개발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수리권에 관한 분쟁발생은 첫째, 기 형성된 수리 질서에 따른 기득수리권자가 취수 방법, 수량, 기간 등의 변경을 요구할 때 일어나며, 둘째는 갈수기시 유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셋째는 신규로 수리사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나타나 새로운 수리질서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수 있는데 세번째 신규 수리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는 적절한 보상과 대안이 없는 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용담댐건설 유역변경에 따른 수리권 문제는 바로 세번째의 유형에 해당되며 뚜렷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수리기득권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채 유역변경을 위한 댐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용담댐 건설 계획 당시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은 환경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기 보다는 우선 용수의 수요충족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사회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수리기득권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역변경에 의한 수자원개발에 앞서 현재 시스템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수자원(예: 지하수와 자체댐 및 저수지 개발)을 개발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대안이 전혀 시도되지 않은 채 유역변경의 틀이 결정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의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은 4개 도시가 빠른 시일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수리기득권 상실에 따른 대안과 조정이 이루어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리기득권과 관련된 지역간의 정치, 사회,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4. 금강수계의 용수공급과 수요예측

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부 보고서(1994.12)에 의하면 만경강유역, 아산, 삼포천유역을 포함한 금강광역수계의 2021년 생활용수 1일 예상수요량은 358만톤, 공업용수는 1일 205만톤, 합계 563만톤으로 예상하였고 공급량은 만경강유역 댐에서 1일 15만톤, 아산호에서 35만톤, 대청댐에서 355만톤, 합계 405만톤을 공급할 경우 2006-2011년 사이에 용수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1일 약 15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용담댐 상·하류지역의 생활 및 관개용수 수요량은 1일 약 25만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5. 용담댐 건설이 금강본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금강본류의 수질현황과 유입지천이 본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4년 수질조사를 한 결과(수자원공사, 1994) 용담댐으로부터 하류쪽으로 4대 유입지천인 남대천, 봉황천, 초강, 보청천과 금강본류와의 합류지점의 수질은 대체로 하천수질기준 2급수 수준이다. 본류의 연평균 BOD 범위는 $2.9-5.2\text{mg/l}$ 로써 유입지천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유입지천에서의 총 인의 연평균 농도분포가 $0.108-0.340\text{mg/l}$ 으로써 호수의 부영양화 초기농도인 0.025mg/l 를 훨씬 초과하는 농도의 유량이 본류로 계속 유입하고 있어 대청호의 수질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봉황천과 보청천의 총 인 부하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금강의 수질변화는 무엇보다도 용담댐 건설후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수질의 농도와 댐하류 유입지천수의 농도에 따라 좌우되리라 예상된다. 초당 5톤 방류에 따른 하천 유량감소와 용담댐내의 수질악화는 금강본류의 수질을 하천수질 환경기준 3등급에 쉽게 이르게 할 것이다.

6. 초당 5톤 방류시 대청호의 수질예측

大淸湖의 富營養化 현상은 인, 질소 등 영

양염류의 농도, 일조량, 수온, 저수량 등 여러조건 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용담댐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유입수량 변화를 주요 변수로 하여 WASP5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모델예측결과 부영양화현상 설명시 가장 중요한 인자인 PO4-P의 농도는 용담댐 건설후 5 m³/sec로 하천 유지용수를 방류하였을때 구획에 따라 최대 22%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용담댐으로 부터 하천 유지용수 방류량이 증가됨에 따라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댐 완공후부터 전북지역 용수공급 목표년도인 2021년까지의 용수 여유분 및 수요량의 가변성, 수계변경에 의한 용수량 배분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합의점 不在, 금강 광역상수도의 고도처리화에 의한 수질개선, 또한 군산 등 기존 정수장의 고도처리화,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한 전북지역의 자체 수원확보 노력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현재의 용담댐 운영계획은 용담댐 방류량 5 m³/sec 및 전북지역 최소 용수수요량을 보장하고 나머지 용수 여유분은 대청호의 수위 및 수질보전과 전북지역의 용수수요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5 m³/sec의 방류수량에 맞추

어 설계되어 있는 제2 발전소의 導水 터널 직경과 발전시설 용량 등은 여유분(댐 완공후부터 2021년까지와 그 이후의 여유분) 용수를 대청호와 금강 상류의 수질보전과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용량변경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발전시설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과 용담댐 발전영향, 대청호의 용수공급 능력 증가 및 수질보전에 의한 수자원이용 극대화, 금강수계로의 방류에 따른 대청댐에서의 2차적 發電에 의한 경제성 향상 등의 잇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용담댐 건설 및 운영이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전주권의 생·공용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공급해야 함은 당연하나, 유역변경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사전에 상호 조정되지 않은 채 용담댐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가지 정리해야 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수배분을 결정하는 전주권 용수 수요량은 목표년도 2021년의 인구추정에 의해서 산정 되었는데 이 추정값의 정확도에 관한 개연성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용담댐 완공후 전주권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물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원래의 물줄기인 금강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합리

적이라 사료된다. 원래 수자원개발은 생·공용수의 공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발전이나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변경이란 그 명분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경강으로 내보내는 하천 유지용수는 불과 40km를 흘러 서해안으로 빠져 나가지만 금강에 내보냈을 경우 무려 400km인 금강 1000리를 흐르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제고해 주고 금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전측면에서도 용담댐과 대청댐에서 2번 발전할 수 있으며 대청댐 하류에서 이 물이 다시 생·공용수로 재 이용되기 때문에 전주권의 물 공급은 수요에 대처하면서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공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댐 시설이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자못 회의적이다.

둘째, 금강으로 초당 5톤을 방류할 경우 금강 상류의 수질은 본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환경기준 3급수에 쉽게 이를 것이며 특히 대청댐의 경우는 용담댐 건설전인 현재에도 부영양화가 심각하여 갈수기 호수수질기준 3급수에서 공업용수 3급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당 5톤을 방류할 경우 대청댐의 유입물량이 연간 4억4,000톤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인농도가 무려 22%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모델예측이 발표되었다. 또한 물량측면에서도 초당 5톤 방류는 금강의 갈수기 90일

간은 도움이 되지만 용담댐 지점에서의 평균 저수량이 초당 5.5톤 이므로 약 275일간은 하천유황이 불리하므로 유역변경에 의한 하천 유지용수량 결정은 갈수량 충족개념이 아니라 하천 환경관리 소요유량 공급개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셋째, 용담댐건설 유역변경에 따른 수리기득권 문제는 수리권 상실에 대한 대안이나 보상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그리고 수리기득권자들의 의견이 사전 수렴되지 않은 채 유역변경 댐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4개 도시가 빠른 시일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의 사전 이해와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행정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용담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당초 계획을 계속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1994)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와 화합속에서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충남의 젖줄인 금강수계가 보전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1994.
- 건설부, 용담다목적댐 건설실시 설계보고서, 1991.
- , 목적댐 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서, 1992.
- , 대청다목적댐 용수사업 운영방안 연구, 1978.
-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기용수 공급계획, 1993.

금강 주변의 교통 · 관광개발 방향

김 시 중
(金始中)

중경산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교통 · 관광 개발계획
- III. 교통 · 관광 개발전략
-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삶의 가치는 안정, 여유, 자아실현과 신유목사회의 이동성 및 쾌적한 환경추구에 이상을 두고 있다. 도시화 · 산업화에 염증을 느낀 도시인들은 그들 마음의 고향인 지방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과 부드러움을 접촉하려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 지역화(regionalization) · 지방화(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세계가 좁아질수록 오히려 ‘지방색’(local color)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이른바 ‘無境時代(borderless era)’는 국가의 경쟁에서 산업과 산업이, 기업과 기업이, 지방자치체와 지방자치체끼리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46.4%(1993년 기준)이며, 농림어업 생산구조는 23.3%(199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상품은 관광객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지로 부터의 접근성도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33.3%(1994년 기준)로서 전국 평균 63.9%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전남 · 북을 제외하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 및 경제주권이 지자체의 관건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적은 자원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 교통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수송체계로 인한 물류비의 급증은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금강유역의 교통여건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금강유역의 교통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금강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관광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통·관광 개발계획

1. 금강주변 교통개발계획

1) 도로정비분야

충남도의 도로 총연장은 5,056.5km(1994년 기준)이며, 포장률은 76.6%이다. 도로별 구성비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각각 11.3%, 21.8%, 22.0%로 되어 있으며,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시군도가 54.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사정은 차차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차량의 급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교통 생활불편과 산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금강주변의 도로사정은 전국 총도로 연장보다 월등히 낮아 주변지역의 물류 및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통유형별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여 교통망 확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구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국가계획에 반영시킬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도로건설계획은 다음의 <표1>과 같다.

2) 철도·항만분야

철도의 경우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수도권 및 동서축을 중심으로 신설 및 확장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천안-당진-서산-태안-안흥에 이르는 동서산업철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에는 3개의 무역항(고정, 대산, 장항)과 2개의 연안항(대천, 비인)이 있으나

〈표1〉 충청남도 도로사업계획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업주관	주요세부 사업내용
고속도로건설사업	중부권 개발촉진과 국토 균형 개발 및 대륙과의 무역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서해안 부존 자원 및 관광산업 투자개발 촉진	5개노선 395.2km	45,589	1990 - 2004	건설교통부	서해안, 대전-진주, 천안-논산, 공주-서천, 당진-대전
국도확포장사업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도시와 농어촌간 시간 및 생활권 단축	17개노선 679.7km	12,882	1992 - 2001	건설교통부	장항-논산 외 16개 노선
산업관광도로확충사업	서해안과 금강을 순환 연결하는 도로망체계 확충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획기적 육성기반 확충, 임해공단 및 서해안 산업관광권 집중개발로 새롭게 발전 도약하는 충남 건설	2개노선 449km	10,814	1992 - 2001	충청남도	서해안, 금강변
지방도확포장사업	도로구조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소득기반 조성,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구축	49개노선 1,118km	6,662	1992 - 1996	충청남도	서천-양촌 외 48개 노선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조성	충청남도 군내일원	5,650	1988 - 1996	시·군 단체별	충청남도 시·군일원
농어촌도로확충계획	농어촌지역 교통편익과 소득 기반 구축, 도로구조의 개선으로 교통소통 원활,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여건 조성	충청남도 관내 15개시·군 2,960km	2,521	1992 - 2001	시·군 단체별	도관내 15개시·군

자료: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 집행계획, 1994.

하역능력이나 접안능력에 있어서 그 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85선석, 방파제 1,887m, 물장량 1,615m를 아산항, 장·군신항, 대산항, 보령신항, 대천항, 안흥항 등에

개발하여 충남 서북부 신산업지대 등 공업단지의 수출입 화물 처리 및 2000년대 황해권 교역량 증대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항만기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표2〉 충청남도 철도·항만건설계획

분야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업주관	주요세부 사업내용
철도 건설 사업	철도 건설	대량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으로 국민편익 증진	4개노선 158.4km	21,650	93이전 - 2001	한국고속철도 공단, 철도청 전철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 수원-천안, 장항-군산
항만 건설 사업	항만 건설	충남 서북부 신산업지대 등 공업단지의 수출입 화물처리, 2000년대 황해권 교역량 증대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항만기능 확보	85선석, 방파제 1,887m, 물장량 1,615m	12,660	93이전 - 2001	해운 항만청 수산청	아산항개발, 장·군신항개발 대산항개발, 보령신항개발 대천항개발, 안흥항개발

자료: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 집행계획, 1994.

의 효율적인 이용과 태안해안 국립공원 및 백제문화권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금강유역에 위와 같은 시설 이외에도 관광여객선 전용부두와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포함하는 보령항의 건설 및 아산항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금강운하의 개발은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연계되는 입체교통망을 형성하여 충남도의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 금강주변 관광개발계획

1) 관광개발분야

‘충청남도 권역별개발계획(안)’에 의해 설정된 충남지역의 4대권역(북부권, 서해안

권, 백제권, 금강권)중 금강권은 행정구역상 논산군, 연기군 및 금산군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1989)’상 전국 5대 관광권(중부관광권, 충청관광권, 서남관광권, 동남관광권, 제주관광권)중 충청관광권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관광권의 4개 소권역(태안해안권, 공주·부여권, 청주·속리산권, 충주호권)중 공주·부여권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계획중인 금강 주변의 관광개발은 다음의 〈표3〉과 같으며, 이를 분석·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의 욕구 및 관광 패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상 및 수변지역에서의 참여형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발로 인하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금강 주변의 각 관광지별 연계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관광객 유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차원의 종합관

광 연계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각 관광지의 상징성이 부각되지 않아 관광지별 차별화가 미흡하다. 따라서 각 지역의 관광 매력 및 특성에 기초한 이미지

〈표3〉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사업 주관	주요세부 사업내용
백제권 특정지 역개발 사업	공주·부여 고도중심의 백제 문화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개발('96.6.11 특정지역 으로 지정), 건설부와 충청도 공동으로 종합개발계획수립	5개부문 48개사업	14,423	1993 - 2001	충청 관련 부처, 충청 남도, 시·군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확충 계룡신도시 건설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 역균형개발 촉진, 서해안 개발 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대비 대비한 관광휴양지 개발	태안군 안면읍 승언· 중장리 일원 936천평	1,846	1991 - 2001	충청 남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반시설, 민자시설
국민 관광지 조성 사업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여가 공간 조성	도내 16 개 지구 2,593평	14,131	1983 - 2001	도, 시·군 민간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단지조성, 민자시설
금강종 합개발 사업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 적인 유량관리, 수계정비로 재해의 근원적 해결, 관광산업 병행 추진으로 휴식공간 제공	연기군 금남면 - 서천군 마서면 금강 하구둑 110km	1,461	1993 - 2002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도정비, 고수부지조성 강변산업관광 도로

자료: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 집행계획, 1994. 12.

창출이 요구된다.

넷째, 관광홍보 및 수용태세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의문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강운하의 건설은 물류비용절감, 유역개발 및 홍수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관광측면에 있어서도 백제문화권의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발전 가속화를 도모할 것이다.

2) 공원개발분야

금강주변의 공원개발계획은 <표4>와 같다. 공원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절대 공원 면적 및 수(數)의 부족을 들수 있으며, 이 결과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발이 경성관광(hard tourism)위주로 진행되어 환경파괴는 물론 개발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이 보전적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개념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및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원의 내부 설계면에서도 인간 행태에 기초한 인간 공학적 관광 시설의 재배치가 요망된다.

전체적으로는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개념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개발 참여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객, 관광개발자, 지역주민 등 이해집단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교통·관광 개발전략

금강주변의 교통환경은 주변지역의 물류 및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유형별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장기구상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과 주변 관광지와와의 효율적인 연계와 이용을 위해서는 금강유역과 아산항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여객선 전용부두를 포함하는 다목적 개발이 요구된다. 이외에 금강운하의 개발을 통하여 충남도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광측면에서도 관광객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 및 수변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강주변의 관광지별 연계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각 관광지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하고 새로운 관광이미지의 창출이 요구된다. 수용태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광마케팅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금강운하를 관광

〈표4〉 충청남도 공원개발계획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량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업주관	주요세부 사업내용
태안 해안 국립 공원 사업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는 기존시설물을 정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 개발	태안군 5 읍·면, 보령군 오천면 329 km ²	874	1993 - 2001	내무부 (국립 공원 관리 공단)	만리포, 학암포, 연포 몽산포, 청포대, 백사장
계룡산 국립 공원 개발 사업	자연환경 보존 및 공원탐방객 편의 제공,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개발로 관광휴양 지 조성	공주군 반포면· 계룡면 일원 73만km ²	2,553	1985 - 2001	내무부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여관, 상가, 호텔, 안내소 공중변소, 유스호스텔, 기반시설
대둔산 도립 공원 개발 사업	자연자원 보존과 탐방이용에 불편이 없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공원 조성, 기초편익시설 완료로 탐방객 편의 제공	금산군 진산면· 논산군 벌곡면 24,860km ²	269	1985 - 2000	충청 남도 (금산군, 논산군)	공공시설, 민간투자시설
칠갑산 도립 공원 개발 사업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 조성, 공원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초 편익시설 완비로 탐 방객 편의제공 및 민간자본 적 극 유치	청양군 일원 32,542km ²	222	1985 - 2001	충청 남도 (청양군)	칠갑광장, 집단시설지구
덕산 도립 공원 개발 사업	집단시설 정비에 따른 민자유 치 적극 유도, 덕송지구로 집중되는 탐방객을 가야산지구 편익시설 완비로 분산 유도	예산군 덕산면 일원 21,045km ²	157	1985 - 2001	충청 남도 (예산군)	단독시설, 집단시설 (덕송산, 가야산)
고북 군립 공원 개발 사업	고북저수지의 자연경관보호 및 탐방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 기존 조각공원을 살리는 예술적 감각 표현	연기군 서면 고북· 용암리 일원 1,949km ²	35	1991 - 2001	연기군	단독시설 및 집단시설

자료: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 집행계획, 1994.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개발에서 공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종래의 경성관광(hard tourism) 패턴에서 탈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교통측면과 관광측면에서 개발의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통측면과 관광측면의 개발은 상호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하에서 종합개발 계획이 수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개념 하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금강 주변의 교통·관광분야의 개발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정주체계 개선: 금강유역에 불연속적으로 산재된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연결형 정주체계와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연기군은 경부고속전철 및 접근도로를 통해 물류집적기능을 활성화한다. 금산군은 지역여건상 논산방향으로의 기능적 연계성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둘째, 산업구조 재편·지역기능 특화: 금강종합개발은 ‘治水(保存)→觀光→丹運’ 순으로 추진하고 연변 농공단지·농산물유통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한다. 연기의 컨테이너기지 조성은 중부권 물류기능을 흡수토록 한다. 금산의 인삼단지는 다각적으로 특화하고 남부관광지대 개발도 동시에 추진한다.

셋째, 사회간접자본 확충: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금강변 산업관광도로 신설로 공간접 접근성을 높이고, 금강 종합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infrastructure) 확충으로 수해방지 및 개발효과를 극대화 한다.

넷째, 전략적 경영개발: 충남도와 논산·연기·금산군의 기획 및 개발(治水·觀光) 부서는 광역금강종합개발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의 농림수산부·문화체육부, 농어촌개발공사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인삼산업 특화(다각화)에는 대전시 소재 한국담배인삼공사(인삼사업부), 한국인삼연초 연구원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IV. 맺음말

청풍명월의 양반전통, 애국충렬의 순례지인 충청도는 700년의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권을 중심으로 생태관광(ecotourism)의 자원적 요소가 풍부하다. 즉, 금강유역은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관광지 및 무공해관광지로서 “自然+健康+觀光=綠色淸淨觀光地”라는 풍부한 관광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강유역을 단순한 유원지나 유흥오락장이 아닌 매력과 품위를 갖춘 4계절 휴양관광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질지향적(quality-oriented)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독창적 관광매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4,000 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교통 및 관광분야의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관광개발이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며, 관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초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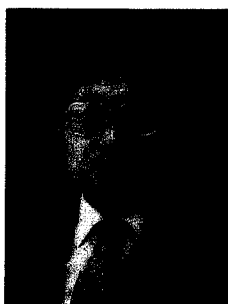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이항구, 관광 · 교통의제학, 남영출판사, 1982.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1995.
- _____,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 집행계획, 1994.
- _____, 학술발표내용 요약모음
- _____, 2000년대 충남의 발전비전 워크숍 발제논문, 1995.
- Faller, P., *Transportwirtschaft*, Wien, WU Verlag, 1990.
- Ihde, G.B., *Transport, Verkehr, Logistik*, Muechen, Franz Vahlen Verlag, 1984.
- Oettel, K., *Verkehrspolitik*, Stuttgart, Poeschel Verlag, 1977.
- Paquette, R.J., *Transportation Engineer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82.

금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

임 봉 수
(林鳳洙)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I. 서론

II. 본론

1. 금강유역의 개황
2. 수자원 및 수문현황
3. 인문현황
4. 수질현황
5. 개발에 따른 금강수질의 악영향

III. 결론

1. 대청댐 상류부
2. 금강 본류 및 지류
3. 금강하구호 부근
4. 금강을 살리는 노력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과정과 더불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집중, 에너지 개발 등에 의해 환경은 심각히 오염되어 갔다. 단순히 국지적인 오염으로만 인식했던 대도시나 공업단지 주변의 하천오염이 수계에 연결되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광역적인 수질오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인 만큼 금강은 충청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이며 주민의 생명수이다. 그러나, 충청의 젖줄인 금강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병들어 가고 있다. 금강상류에는 모산인 덕유산이 파

해쳐 지는가 하면, 인근의 생활 오·폐수가 지류인 남대천에 유입되고, 대청호 상류의 용담댐 건설은 금강의 위기를 주고 용담댐 건설은 금강의 수질에 위기를 주고 있다. 중류에는 대전과 청주지역의 미처리된 하수로 수질이 악화되고, 하류에는 서해안 개발을 위해 담수화된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향후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기고는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하여 수질오염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을 언급하였다.

II. 본 론

1. 금강유역의 개황

금강유역은 남한의 중앙부 서방에 위치하여 남한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9,810.4km²의 면적을 점유한다. 유역은 장년기와 만년기에 해당하는 지형진화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산지는 하천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어 표수층이 얇으며 일반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금강의 본류는 소백산맥의 주봉인 덕유산(표고 1,594m)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중류인 옥천 부근에서 차령산맥을 관통 사행하면서 지류인 미호천과 합류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침내는 군산지역에서 황해로 유입된다.

금강은 직할하천이 11개(하천연장 401.9km), 지방하천이 20개(하천연장 362.10km), 준용하천이 472개(하천연장 2,977.92km)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본류의 유로연장은 395.9km에 이르는 큰 하천이다.

주요 지류는 상류로부터 남대천, 봉황천, 초강, 보청천, 갑천, 미호천, 유구천, 지천, 논산천 등이 있으나 미호천을 제외하고는 본류 유역면적의 3-6%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소하천이다.

2. 수자원 및 수문현황

금강유역은 평균 강우량이 1,269mm이고 수자원의 부존총량은 127억m³/년에 달한다. 이중 51%에 해당하는 65억m³/년이 토양으로 침투되거나, 대기로 증발되고 나머지 62억m³/년만이 금강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 강우량이 6-9월에 집중되는 홍수시 41억m³/년이 유출되고 실제 이용되는 수자원량은 21억m³/년 뿐이다. 총 용수수요는 3,057백만m³/년으로 생활용수가 294백만m³/년(10%), 공업용수가 161백만m³/년(5%), 농업용수가 1,656백만m³/년(54%), 유지용수가 946백만m³/년(31%)이나 이에 대한 총 용수공급은 3,286백만m³/년으로 하천수가 1,116백만m³/년(35%), 댐수가 2,014백만m³/년(61%), 지하수가 156백만m³/년(5%)이 공급되고 있다.

1958년부터 1984년까지 금강의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공주지역은 월평균 유출량이 최소치가 1월에 $41.0 \text{ m}^3/\text{sec}$, 최대치가 7월에 $420.2 \text{ m}^3/\text{sec}$ 로 월별 유출량 변화가 심하며, 월평균유출량 $147.2 \text{ m}^3/\text{sec}$ 이고, 공암지역은 월평균 유출량이 $170.9 \text{ m}^3/\text{sec}$ 로 나타났다(산업기지개발공사, 1988, p.13).

금강의 수리 수문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시설은 대청댐, 금강하구언 및 용담댐 등이 있는데 주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청댐

대청댐은 1975년 3월에 착공하여 1980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유역면적 $4,134 \text{ km}^2$ 에 총 저수량 $1,490 \times 10^6 \text{ m}^3$ 에 이르며 발전, 홍수조절, 용수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댐이다.

대청호에 유입되는 총 유입량은 1993년에 1,391CMS이었으며, 유입량의 대부분이 5-8월의 하절기에 $1,024 \text{ CMS}$ 로 약 74% 집중되어 있다. 한편 방류량은 6-9월의 홍수에 의한 방류를 제외하고는 약 50CMS 정도로 방류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1993).

대청댐의 수자원 이용현황을 보면 1993년 총 강수량은 58.6 억m^3 이며 이중 21.7 억m^3 는 지하침투 및 개기증발에 의해 손실되었고 나머지 36.9 억m^3 만이 유입되었으며 이중 2.2 억m^3 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공급되었으며 32.9 억m^3 가 방류되었다.

2) 금강하구언

금강하구언은 군산에서 5km 상류부 금강

하구에 길이 1,841m의 하구둑 축조공사로 1983년 12월에 착공하여 7년만인 1990년 11월에 준공하였으나 용수취수시설과 기반 조성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갑문이 개방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구언의 위치는 좌안은 전북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우안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심리이다.

저수량 138만ton의 담수호가 조성됨으로 인해 금강, 만경강, 동진강, 길산천 유역의 43,000ha 농경지에 농경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바닷물의 역류로 발생하던 상습침수 지역의 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전주 및 군산권의 농업용수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군산과 장항 사이의 육운개선으로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컸으며 아직까지 자연 및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배수갑문 폐쇄후(1994년 9월 1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수질 및 생태환경에 여러가지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3) 용담댐

전주권(전주, 군산, 이리)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금강상류에 건설하고 있는 댐은 유역변경식 다목적댐으로 1992년에 착공하여 199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용담댐은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좌안)와 진안군 언천면 삼락리(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930 km^2 이고 총 저수량은 $815 \times 10^6 \text{ m}^3$ 의 다목적댐

으로 대청호 저수용량의 약 54%를 차지한다. 용수배분의 문제로 금강 본류에 유입되는 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대청호 부영양화 등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3. 인문현황

1) 인구현황

금강유역의 상·하류 주요 소(小)유역별 인구현황은 <표1>과 같다. 유역내의 인구는 3,003천명이며 인구밀도 306인/㎢로 나타났다. 특히 갑천과 미호천 유역의 인구는 전체 유역인구의 약 67%에 달한다.

<표1> 금강유역의 인구현황

(1993년 말)

구 분	면적 (㎢)	인구(명)	비 고
금강상류	4,134	365,620	대청호유역
갑 천	646	1,209,953	대전권
미 호 천	1,850	790,647	청주권
금강하류	3,180	637,312	미호천,갑천 제외
계	9,810	3,003,532	

자료: 금강환경관리청

2) 가축사육현황

금강유역내 지천별 가축사육현황을 <표2>에서 살펴보면 한우는 114,070두, 돼지는 541,169두, 닭은 7,031,574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표2> 금강의 지천별 가축사육현황

(1993년 말)

구 분	한우 (두)	젓소 (두)	돼지 (두)	닭 (마리)
금강상류	39,873	4,115	79,445	706,144
갑 천	3,780	1,431	20,298	210,252
미 호 천	37,274	15,575	176,394	1,626,616
금강하류	33,143	10,076	265,032	4,488,562
계	114,070	31,197	541,169	7,031,574

3) 산업현황

산업시설에 의한 특정폐수에 의한 오염이 하천에 발생되었을 경우 취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1993년말 조사된 자료로서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의 업종 및 폐수량의 현황을 <표3>에서 살펴보면, 금강 전지역에서 폐수배출업체수는 2,273개소이고 배출량은 166,975 ㎥/일에 이른다. 대전지역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갑천유역에는 31,493 ㎥/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며, 청주지역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미호천유역에는 81,282 ㎥/일로 전체의 48.7%에 이르러 두 유역에서의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이 전체 폐수량의 67.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토지이용현황

금강유역내 지점별 토지이용현황은 <표4>에 나타나 있는데 밭이 8.8%, 논이 14.7%, 임야가 59.2%, 대지가 2.5%, 목장이 0.2%로

〈표3〉 금강의 지천별 공장폐수 배출현황

지 점 별	업소수(종별)						배출량(㎥/d)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강상류	256	-	1	1	9	245	7,375	-	2,500	250	1,815	-
갑 천	840	3	8	9	40	780	31,493	11,430	7,455	4,406	4,907	3,295
미 호 천	702	9	4	18	77	594	81,282	50,738	3,872	11,623	11,564	3,485
금강하류	475	8	5	3	39	420	46,825	30,500	6,508	1,550	5,382	2,885
계	2,273	20	18	31	165	2,039	166,975	92,668	20,335	17,829	23,668	12,475

〈표4〉 금강의 토지이용현황(1993년 말)

(단위: ㎢)

구 분	총 계	전	답	임 야	대 지	목 장	기 타
금강상류	4,142,848	294,528	369,996	2,720,650	45,395	5,297	343,272
갑 천	654,226	64,964	69,106	413,493	43,271	0,247	73,395
미 호 천	1,876,620	243,928	362,227	954,198	62,907	5,380	217,980
금강하류	2,708,646	233,802	584,451	1,467,559	81,419	8,953	331,064
계	9,382,340	827,222	1,385,78	5,555.9	232,992	19,877	965,711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편이다.

4. 수질현황

1) 수질조사방법

(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지난 1년간(1994. 5-1995. 4) 금강수계의 수질을 매월 조사 분석하였다. 지점의 선정은 금강 본류를 대표하는 9개 지점과 지류중 오염부하가 가장 많은 3개 하천의 최 하류지점을 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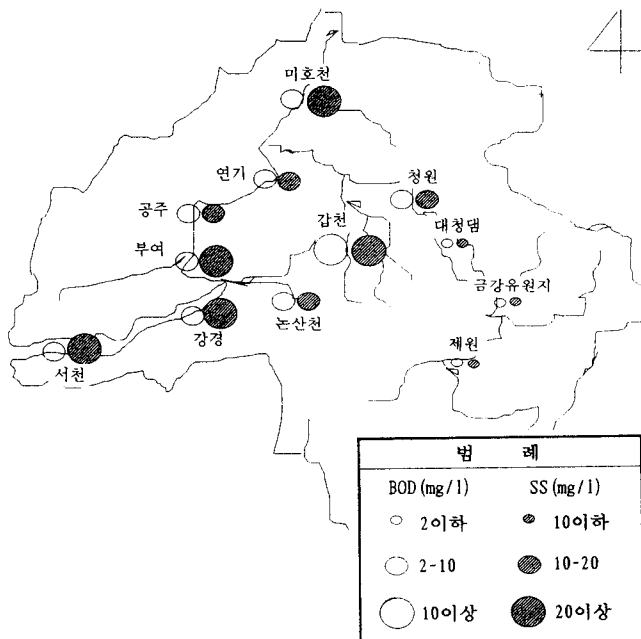
였다. 또한, 이 지점은 금강환경관리청의 고정 수질측정망 지점과 거의 유사한 지점이다. 이를 〈표5〉에 나타내었으며 〈그림1〉에 간략히 수질오염도를 표시하였다.

(2) 조사방법

시료의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처, 1991)과 Standard Method(APHA, AWWA, and WPCF, 1992)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수질항목은 수온, 용존산소(DO),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

〈표5〉 금강본류의 주요 수질조사지점 위치

명 칭	측정지점	지 점 위 치	수 계	환경기준
제 원(K-1)	제원대교	충북 음성군 제원교 저곡리	본 류	I
금강유원지(K-2)	Rubber Dam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	본 류	옥천(I)
대청댐(K-3)	대전취수탑	대전시 동구 추동	본 류	I
청 원(K-4)	부 강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본 류	I
연 기(K-5)	금남교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본 류	금남(II)
공 주(K-6)	금강교	공주시 금성동	본 류	공주1(II)
부 여(K-7)	백제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본 류	부여1(II)
강 경(K-8)	황산대교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산동	본 류	II
서 천(K-9)	금강하구언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본 류	II
갑 천(S-1)	신교교	대전시 유성구 구즉동	지 류	IV
미호천(S-2)	보통리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지 류	IV
논산천(S-3)	논산대교	충남 논산군 논산읍 대교동	지 류	II



〈그림1〉 금강본류의 수질조사 위치 및 오염도

소(T-N), 총인(T-P) 등을 분석하였다.

2) 수질조사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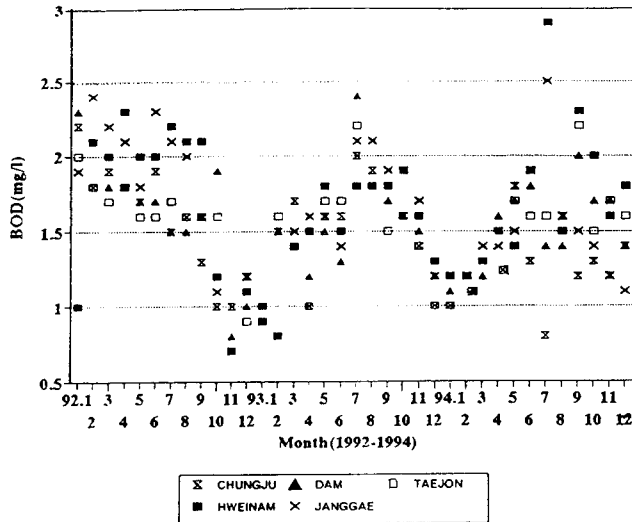
(1) 대청댐 상류부

제원(K-1)은 제원대교 지점으로 수질은 연평균으로 보았을 때 DO 9.1mg/l, BOD 1.5mg/l, COD 1.8mg/l, SS 6.2mg/l, T-N 1.966mg/l, T-P 0.060mg/l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하천 환경수질기준에 의하면 상수원수 2급수(BOD 3mg/l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이 지점의 수질 변화를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와 비교해 보면 BOD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에 연평균 각각 1.2, 1.3mg/l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금강 상류부 본류수질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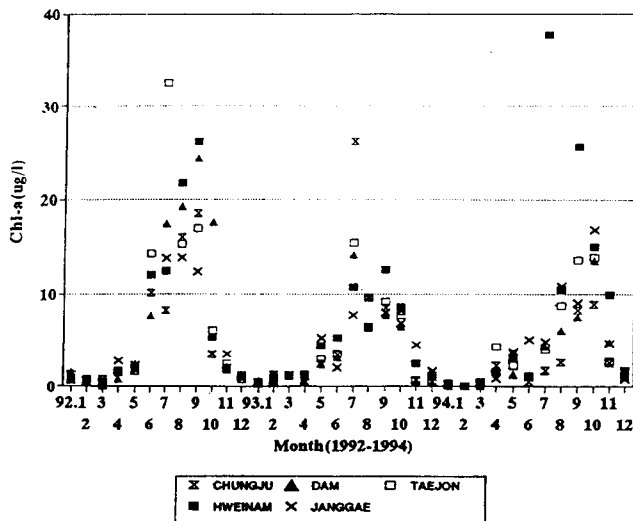
금강유원지(K-2)의 수질은 연평균 값으로 DO 9.7mg/l, BOD 1.6mg/l, COD 2.5mg/l, SS 5.3mg/l, T-N 1.965mg/l, T-P 0.045mg/l로 나타났다. 이 지점은 금강유원지의 Rubber Dam 부근으로 수계의 흐름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곳이며 또한 금강유원지의 폐수처리장 방류지점보다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질은 제원에 비해 크게 변화없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금강환경관리청의 옥천지점은 금강유원지의 하류부 지점으로 1993년, 1994년에 연평균 BOD 1.4mg/l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나 거의 대동소이한 추세이다.

대청댐(K-3)은 대전취수탑 부근으로 연평균 DO 9.1mg/l, BOD 1.4mg/l, COD 2.6mg/l, SS 6.9mg/l, T-N 1.807mg/l, T-P 0.049mg/l로서 호소 환경수질기준에 의하면 총질소와 총인의 항목을 제외하면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지만 총질소와 총인의 항목으로 볼 때는 상수원수 3급수(총질소 0.6mg/l 이하, 총인 0.05mg/l 이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영양염류 농도가 높은 경향이다.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1993년의 경우 BOD 1.6mg/l, COD 2.2mg/l, T-N 1.749mg/l, T-P 0.088mg/l로 나타났으며, 1994년의 경우 BOD 1.5mg/l, COD 2.8mg/l, T-N 1.265mg/l, T-P 0.081mg/l로 항목별, 연도별 차이는 적은 편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댐 수질조사, 1991-1994)에서 대청댐유역의 5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측정된 수질자료(1992. 1-1994. 12)를 <그림2>에 나타내었는데 수심 평균 COD로 볼 때 모든 측정지점이 상수원수 2급수(COD 3mg/l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고, 충청남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여 1994년 10-12월에 3회 측정한 COD는 약 3-4mg/l로 상수원수 3급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을철에는 수질이 3급수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으며,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회남교와 장계교의 수질이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상류지역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



〈그림2〉 각 지점별 수심평균 BOD(한국수자원공사 자료)



〈그림3〉 각 지점별 수심평균 Chl-a(한국수자원공사 자료)

리되지 않는 상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3〉은 부영양화의 지표인 엽록소-

a(Chl-a)의 지점별 농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모든 지점의 Chl-a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조류가 과잉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금강 본류 및 지류

청원(K-4)은 금강의 주요 오염 지류인 갑천이 유입된 직후의 본류지점으로 연평균 DO 7.7mg/ l, BOD 4.0mg/ l, COD 5.2mg/ l, SS 10.3mg/ l, T-N 5.998mg/ l, T-P 0.254mg/ l로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BOD항목으로 보았을 때 대청호 지점보다 약 2.8배 증가한 것이며, 하천환경수질기준의 BOD기준으로 보면 상수원수 3급수로 오염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에 의한 청원지점 수질은 1993년에 BOD 2.7mg/ l BOD 3.3mg/ l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5년에 측정된 BOD도 4.0mg/ l로 좀처럼 수질 개선의 효과없이 악화일로에 있다.

한편, 갑천(S-1)은 신구교 지점으로 수질은 동일한 시기에 DO 4.8mg/ l, BOD 10.6mg/ l, COD 10.4mg/ l, SS 23.7mg/ l, T-N 12.854mg/ l, T-P 0.612mg/ l로서 높은 오염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본류인 청원지점은 지류인 갑천에 의해 수질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전지역에서 미처리된 가정하수가 갑천에 유입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연기(K-5)는 금남교 지점으로 지천인 미호천이 유입되며 연평균 수질은 DO 7.9mg/ l, BOD 4.8mg/ l, COD 5.3mg/ l, SS 16.4mg/ l, T-N 5.086mg/ l, T-P

0.230mg/ l로 청원지점보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도 역시 미호천의 수질이 본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호천(S-2)의 수질은 DO 8.1mg/ l, BOD 7.3mg/ l, COD 7.4mg/ l, SS 32.4mg/ l, T-N 6.675mg/ l, T-P 0.385mg/ l로 수질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역시 청주지역에서 유입되는 하폐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기지점도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1993년, 1994년 BOD가 각각 3.4mg/ l, 3.7mg/ l 이었다가 1995년 다시 BOD 4.8mg/ l로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다.

공주(K-6)는 금강교 지점으로 수질은 연평균 DO 9.0mg/ l, BOD 5.4mg/ l, COD 5.6mg/ l, SS 14.1mg/ l, T-N 5.170mg/ l, T-P 0.245mg/ l로 금강하류가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이 지점은 1993년에 BOD 3.1mg/ l, 1994년에 3.7mg/ l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의 경우 BOD 5.4mg/ l로 해마다 수질이 악화됨을 알 수 있다.

부여(K-7)는 백제대교 지점으로 수질은 연평균 DO 8.5mg/ l, BOD 4.4mg/ l, COD 5.6mg/ l, SS 22.0mg/ l, T-N 4.744mg/ l, T-P 0.213mg/ l로 나타나 청원지점 이후에는 계속 악화되는 금강본류의 수질이 약간 양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본

지점은 1993년에 BOD 3.1mg/l, 1994년에 BOD 3.7mg/l로 공주지점에 비할 때 큰 변화없이 수질이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회 조사에서 부여의 수질이 특별히 양호해진 것은 어떤 수질개선 대책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구언 배수갑문의 폐쇄로 인해 금강 본류의 유량이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증가의 영향이 있어 수질의 희석효과가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적으로 금강본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여취수장은 백제대교 직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DO 8.4 mg/l, BOD 5.1 mg/l, COD 5.4 mg/l, SS 32.9 mg/l, T-N 4.840 mg/l, T-P 0.207 mg/l로 상수원수 3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고도의 정수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K-8)은 황산대교 지점으로 본 조사에서 연평균 수질이 DO 9.0mg/l, BOD 3.9mg/l, COD 5.7mg/l, SS 75.3mg/l, T-N 4.281mg/l, T-P 0.226mg/l로 나타났다. BOD 항목으로 보았을 때 약간 호전되는 경향이나 COD 항목으로는 거의 부여지점과 유사하게 수질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SS가 매우 높은 것은 이 지점에서 시료 채취시기시 해수의 유입 영향이 미치는 시기로 인하여 바닥의 퇴적물이 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에서는 강경지점은

1993년에 BOD 4.9mg/l, 1994년에 4.8mg/l로 부여지점보다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인데 본 조사의 경우에 BOD 농도가 감소된 것은 하구언 배수갑문의 폐쇄로 인한 수질 희석효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3) 금강하구호 부근

서천(K-9)은 금강하구언의 옥포리 부근으로 연평균 수질은 DO 8.4mg/l, BOD 4.1mg/l, COD 6.1mg/l, SS 72.2mg/l, T-N 4.245mg/l, T-P 0.157mg/l로 나타났다. 서천지점은 하구언 부근으로 호소수계의 COD 항목으로 수질을 판단해 볼 때 금강환경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1993년에 COD 6.4mg/l, 1994년에 COD 8.8mg/l로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본 조사에서도 COD 6.1mg/l로 해수의 혼입이 차단되고, 수량이 풍부해짐으로 인해 희석 및 침전효과를 줌으로 어느 정도 양호해졌으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공업용수 2급수(COD 8.0mg/l 이하)이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금강하구호는 1994년 9월 이전에는 용수취수시설과 기반조사사업의 미완성으로 배수갑문이 개방되었으나, 9월 이후에는 군·장공업용수 공급 및 금강하류부의 용수확보를 위한 하류부의 담수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8〉은 배수갑문 폐쇄전 후의 금강하구호 부근의 수질을 요약한 것으로 지점은 금

〈표8〉 금강하구호 부근 배수갑문폐쇄전후 수질특성비교

구 분 항 목	폐쇄이전 (1994. 9. 10이전)	폐쇄이후 (1994. 9 ~ 95. 8)	비 고
DO(mg/ l)	약 6-10mg/ l 부근	약 8-14mg/ l 로 상승	호소화, 부영양화 전기 전도도에 의해 환산
COD(mg/ l)	6mg/ l 이상	3.8mg/ l (10월), 4.6mg/ l (12월)로 감소	
T-N(mg/ l)	2-4mg/ l 정도	1-3mg/ l 로 감소후 다시 상승	
T-P(mg/ l)	0.05-0.15mg/ l 정도	0.025-0.1mg/ l 로 감소후 다시 상승	
Chl-a(μg/ l)	5μg/ l 이하	10-60μg/ l 로 상승	
Cl-(mg/ l)	약 200-800mg/ l 로 변화폭이 크고 높음	약 100mg/ l 부근	

강환경관리청의 고정 측정지점인 당선리, 옥포리(서천지점), 완포리이다. COD의 경우 배수갑문 폐쇄전에는 대부분 COD 6mg/ l 이상으로 공업용수 2급수 수준이었으나, 폐쇄후 12월에는 COD 4.6mg/ l 까지 급격히 감소되어 공업용수 1급수 수준이었다. 1995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띠었으나 월별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담수초기에는 수량의 증가로 어느정도의 희석효과를 가짐으로 일시적인 감소경향을 띤 것 같다.

〈그림4〉는 Chl-a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폐쇄전에는 5ug/l 이하였으나, 폐쇄후 급격히 증가되어 최고 120ug/l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하구호 부근이 호소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소 영양단계 분류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강하구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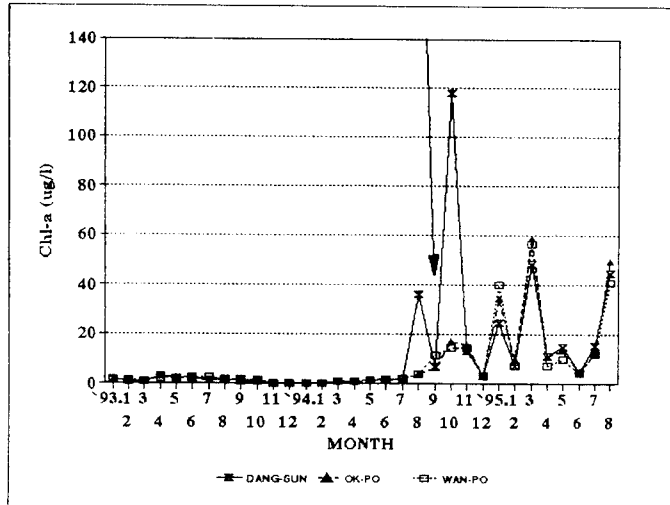
부영양화 현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어촌진흥공사, 1990-1994).

금강 본류의 주요지점의 지점별 수질변화를 도시하였는데 지면 관계상 BOD 수질항목에 국한하여 〈그림5〉에 나타내었으며 금강환경관리청의 1993, 1994년도 연평균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BOD의 경우 대청댐 상류부는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청원이후 대부분의 지점이 4mg/ l 이상으로 상회하였으며 부여지점에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청원이후 전 구간이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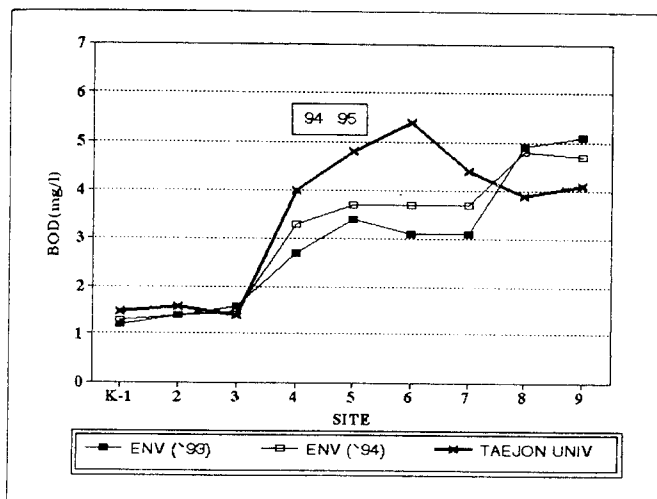
5. 개발에 따른 금강수질의 악영향

1) 무주리조트 개발과 남대천

금강발원지 부근의 덕유산, 대덕산의 깊은



〈그림4〉 배수갑문 폐쇄전 후 금강하구호 부근의 Chl-a 변화



〈그림5〉 금강 본류의 연평균 BOD 변화

골에서 발원한 남대천은 10년 전에는 흐르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였고, 1급수의 척도로 알려진 반딧

불과 그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깨끗한 곳 이었다.

1989년 쌍방울 개발이 최상류지역인 설천

면 심곡리에 무주리조트를 건설하면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오염에 적신호를 주기 시작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덕유산은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른다는 명목아래 곳곳이 벌거숭이로 파헤쳐져 자연 경관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무주리조트가 국제대회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스키장 및 위락시설의 확장으로 호텔, 선수촌아파트, 열병합발전소 등 부대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남대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설천면, 무풍면 등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노린 무분별한 숙박, 위락단지의 오·폐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등의 갖가지 오염원이 산재되어 금강의 발원지인 남대천에서부터 오염에 노출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2) 용담댐

용담댐의 목적이 전주권 용수공급과 전력 생산이므로 전북 완주군까지 연결되는 장거리 도수터널을 통해 금강유역의 물이 하루 145만톤씩 빠져 나간다. 반면 금강 본류에 흘러보내는 양은 초당 5톤으로 하루 43만톤에 불과해 그 만큼의 수량확보가 어려워져 대청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청댐이 충청권의 용수공급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금강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용담댐도 댐 주변의 생태계 변화, 농작물 생태 등의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3) 물한계곡 개발과 초강천

대청호에 유입되는 3대 청정수계중 마지막 남은 것은 민주지산에서 발원하는 초강천(대청호 유입수의 30%차지)인데, 물한계곡(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에 대규모 레저타운으로의 개발로 오염될 위기를 맞고 있다.

동서레저(주)가 이 지역을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갖춘 대규모 위락단지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녹지등급으로 조작한 것이 밝혀져 제출한 평가서를 재작성하라는 통보로 일단 물한계곡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정중관(대전YWCA, 1994, p.18)의 논문에 따르면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이 완료되면 1일 이용객 수가 하절기 2천 7백여명, 동절기에는 4천 3백여명 될 것으로 보이며 골프장의 비료, 맹독성 농약, 생활오·폐수 등의 발생으로 초강천의 수질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몇가지 사례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반된 모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국 환경을 무시한 처사속에서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결 론

금강의 개발과 수질문제를 다루면서 금강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수질관리 측면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대청댐 상류부

다목적댐인 대청댐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은 댐 외부와 내부 양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대청댐 상류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오염물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양염류인 T-P와 T-N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가능한 줄이고,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수중포기 시설이나 상수의 고도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더불어 수질보전에 대한 홍보와 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며, 또한 시민의 수환경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금강 본류 및 지류

금강본류의 수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유출되는 갑천 유입부에서 나빠지기 시작하여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미호천에서 더욱 악화된다. 미호천 하류부로 유하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정작용에 의해 수질이 다소 개선되다가 논산천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다시 악화된 후 하구호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하수관거의 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강수계의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도 대전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에서의 처리율이 전국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강유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질규제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도입하여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총량규제에 의한 기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청댐의 수위와 수량확보에 의해 금강수계 하천의 유량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천의 유지용수를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협조체제도 매우 중요하다.

3. 금강하구호 부근

금강하구호의 수질은 금강본류와는 달리 1994년 9월에 배수갑문을 닫은 후부터 정체 수역으로 바뀌고 있다. 배수갑문을 닫기 전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해수의 유입으로 하구호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배수갑문 폐쇄 이후의 저수 및 담수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할 수록 생태계도 변화되어 전형적인 호소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리라 예상된다. 금강하구호의 수질은 현재 심한 부영양화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하구호의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함께 용도에 맞게 처리를 한다면 절대적인 수자원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용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하구호의 수질은 여러 요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분뇨처리장 방류수의 영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도입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질소와 인에 대해 기준치를 더 강화해야 하구호 부근의 심화되는 부영양화 상태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된 금강은 곧바로 서해 연안 앞바다까지 이어진다. 바다가 오염되면 지구는 끝이라고 한다. 금강에서부터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바다까지는 황폐화되

며 인간생명의 터전이 파괴될 위험을 받게 될 것이다.

4. 금강을 살리는 노력

금강을 살리는 일은 금강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지역주민, 민간환경단체, 관련연구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이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금강수계의 환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육구와 현실적인 실리에 환경오염의 파괴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높다. 또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증설의 기피와 환경파괴의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운영을 꾀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춘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상호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체는 그린라운드 경쟁체제 속에서 생산제품으로 인한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업이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개발에 앞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뒷전에 놓여서는 안됨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들은 일시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쫓리지 말고 금강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와 생활과 관련

된 수환경임을 인식하고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금강 수질보전 행동지침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금강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생명과 연결된 젖줄이기에 모두의 금강 살리는 노력이 모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농어촌진흥공사, 금강(1)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
과 보고서, 1990-1994.
- 대전 YMCA, 금강의 오염현황과 수질보전대
책, 1994.
- 산업기지개발공사, 금강유역 수질조사 실태
조사 보고서, 1988.
-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1단계) 환경영
향평가서, 1994.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호 다목적댐 관리연보
1989-1993.
- , 군장산업기지 용수공급 기
본조사 보고서, 1995.
- , 다목적댐 수질조사, 1991-
1994.
- 환경처,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1991.
- APHA, AWWA, and WPCF., *Standard
Method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18th Ed.,
1992.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김 일 태
(金日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I. 지방자치행정 발전의 기본방향

작년 7월 민선단체장의 취임과 제4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바야흐로 지방경영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기본정책을 수립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지침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세계화의 물결이 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간 국가라는 우산아래서 보호를 받아왔던 지방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압력과 타격에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처럼 행정권한의 이양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게 되며,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치행정을 통해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주

민의 이익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부처의 법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또는 주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이자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본질과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자치행정이 ‘주민의(of)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과 시책이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시책을 각 지역단위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

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주민주권을 지향할 수 있도록 단체자치적 요소보다는 주민자치적 요소가 강한 주민주의에 입각한 민주행정이어야 함을 뜻한다. 다음으로 ‘주민에 의한(by) 행정’이라함은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과정에 주민참가가 이루어지는 ‘참여행정’이어야 함을 뜻한다.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주민의사 반영은 물론 정책집행에서 주민의 협조를 얻는 것, 그리고 정책의 평가단계에서도 주민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민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행정’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위한(for)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과 시책이 주민본위로 이루어지는 ‘민본행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 더 나아가서는 주민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란 ‘자율행정’, ‘참여행정’, ‘민본행정’의 세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전략적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자율행정으로서의 자치행정 발전방향

세계화와 지방화가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Glocalization의 시대’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기책임하에 지역의 고유한 산물이나 문화를 개발하여 국제경쟁에 나서야 하고, 한편으로는 각 지방간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종래와 같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난 날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발상과 대응이 요청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각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능력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국가나 도(道)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만 해오던 지방정부가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선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필요한 정책형성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기획조정기능의 보강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이 명실공히 자율행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자면, 기존의 국가 및 상급단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종적이고 경직적인 행정체제를 행정기관내의 타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주민지향적 행정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총무국 또는 내무국내에 기획과나 기획예

산과의 기획계 정도가 고작
이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의 기획조정 기능은 매우 미
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획과(계)
를 확대·개편하여 독립부서
형인 ‘기획조정실’로 하되,
실장 아래에는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담당관, 공
보담당관을 두도록 한다. 그
리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각종 새로운 시책개발을 담
당하도록 하고, ‘예산담당관
실’은 예산편성은 물론 각
부서별 시책의 조정업무를
말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시
대에 대비해 ‘정보담당관실’
에서는 각종 지역정보 및 행
정정보 시스템의 구축·관리
는 물론 정보공개 및 각종
여론조사·수집업무 등을 담
당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
보담당관실’에서는 각종 홍
보활동과 더불어 상급 및 인
접자치단체 그리고 세계의
각 지방정부들과의 연락사무,
광역행정, 국제협력업무 등을
담당토록 한다.

2. 지역정보 관리체제의 구축

합리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의 하나로 종
합정보 관리체제인 지역정보
시스템(regional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정보시스템은 주
민, 지역사회, 광역지역에 관
한 실태와 행정체제의 전반
에 관한 ‘현상정보’는 물론
이고 주민의 의식·욕구·만
족도 등의 ‘규범정보’가 포
함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관리체계 내에는
특정한 행정서비스나 공공시
설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
역경영정보체계를 하위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지역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정보체계(GIS), 데
이터관리시스템(MDS), 의사
결정지원시스템(DSS), 전문
가시스템(ES) 등이 그것이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관리체제의 구축에 관련
된 조직체제, 자료수집·분
석, 정보의 관리·이용 등 3

가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
한 업무는 새롭게 보강될 기
획조정실의 정보담당관실에
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기획인력의 확보

지방자치행정을 ‘관리형’
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형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청내에서
기획요원을 양성하고, 더 나
아가 민간부문에서 기획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청내 기획요원의 확보 와 훈련

기획조정부서의 인재와 조
직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인재는 업무의 집행과정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므로, 과
감하게 젊은 직원들에게 어
려운 일을 맡겨 스스로 해결
케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
며, 인사이동을 통하여 타부
서와 교류하도록 하되, 청사
내의 전 직원이 폭넓은 관심

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내의 모든 정보는 가능한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목표설정과 방법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기획업무마다 책임을 지는 소그룹 편성방법을 활용하되, 생기넘치는 즐거운 분위기의 부서를 만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국·과(局·課)의 직원이 자신의 부서는 물론 관련분야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자신들의 담당과 소속을 넘어서 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제언을 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정책형성이 가능해진다.

2) 정책조사연구팀의 활용

국제화, 정보화, 고복지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에 종합적

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과제를 단기간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획부서와는 별도로 각 부서를 초월한 정책입안조직인 'Project Team'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각 국·과로부터의 추천이나 청내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는 임기 1년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팀내에는 다시 테마별로 여러개의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구상하도록 한다. 그런 후 각 분과별 연구회의 결과를 프로젝트팀에서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회의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최근들어 일본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거나, 직원의

'정책과제연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책콩쿠르', '아이디어올림픽대회' 등을 통해 개성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¹⁾.

3)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활용

그간 관공민비의 풍조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법령, 통첩, 선례를 중시하는 자치단체 직원들의 발상법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자치단체 직원만이 지역개발의 전문가였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주민들 중에도 재무, 세무, 인사, 컴퓨터,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전문경영인을 자치단체의 장이나 중간관리자로 영입하는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필

1) '수비'에서 '공략'으로 그리고 '창조'의 행정을 구호로 내건 일본의 각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 창출에 의한 각 지역특성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i) 유료복지의 새로운 패턴을 개막한 '무사시노 시 복지공사', ii) 지방박람회 선구자가 된 '고베 Portpia', iii) 도야마현의 도가촌의 '세계연극제', iv) 가나가와현의 '정보공개시행조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책콩쿠르'에 나타난 독특한 시책들로는 '일만명 시민집회', '즉시처리과', '일요시민상담실', '밤의 시민다이얼', '홍보문서배포', '전문서비스원제도', '숲이 우거진 도시환경을 만드는 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시가지관광조례' 등이 있다.

요한 행정부문에 주민들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첨단기술시대에는 행정담당자들 가운데 고도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적으며, 전례가 없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기술영역의 행정직원은 2~3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프로전문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주민들을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의 형태로 참여시켜 관련사업과 기술에 대한 협력·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주 2일 휴무제가 정착되면 전문직 주민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능력을 토·일요일을 이용해 다른 조직이나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지방정부는 각종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만의 발상이나 타 자치단체를 흉내내는 것만이 아닌, 널리 주민의 지혜를 결

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에게 비용과 노력을 부담시키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참여행정으로서의 자치행정 발전방향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하고 하드한 것에서 소프트한 것으로 이행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하며, 실천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해 진다. 그리고 주민감시에 한정된 재원과 조직, 인재를 어떻게 보다 유기적으로 묶고 움직여 새로운 행정과제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자치행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주민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참여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채택

성공적인 주민참여는 행정

과 주민 사이의 정보교환시스템(정보공개와 feed-back system)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의 공개는 주민참여의 선결조건이므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는 ‘공문서관’을 설치하여 기존의 보관위주의 문서관리 체제를 열람과 이용위주의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장차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행정정보센터’를 수립하여 각종 행정자료들을 Data Base화하고, 이들을 가정이나 Community Center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각종 쌍방향 통신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나 지역정책과 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므로써, 행정과 주민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2. 주민참여 통로의 확대

민주적인 정책결정은 자치단체장과 주민과의 대화나 집회, 주민조직으로부터의 요망청취, 주민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 시청·군청·구청, 양케이트조사,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의 자문, 시의원의 활동 등에 주민참여의 확대를 꾀하므로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요망, 고충, 정책아이디어를 즉시 받아들이고 반영시키는 장소와 통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러한 통로를 재점검·보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 통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으므로, 문제는 그를 활용할 자세와 의지가 어떠한가에 달

려있다. 이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일본의 가가와시의 ‘주민총대회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시(市)는 이 제도를 통해 시정을 공개하여 주민과 함께 정책을 형성해 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²⁾.

3. 주민의 자질향상 운동의 전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와 참여통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의 자질향상 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민주주의는 중우정치적 타협과 무계획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증대가 초래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지나

치게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팽배하면서 비참여층의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인바, 지방정부는 각종 주민참여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무관심층을 행정에의 참여층으로 확대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는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발달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고, ‘생애 학습운동’과 같은 주민교육을 통해 향토애와 향토의 긍지 재확인 및 자주적·주체적 지역사회건설의 동기를 유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행정에 대한 태도를 바꾸므로써 각종 지역문제가 과다하게 행정수요로 귀착되는 것을 사전에

2) 가가가와(掛川)시는 매년 4월(회계년도 개시) 시민대표 42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총회중앙집회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해당년도의 시정방침과 시예산 등의 설명을 듣고, 전년도 시민의 의견·요망·고충·아이디어의 해결 및 처리상황을 수록한 ‘시장·구청 교류수첩’이 배부된다. 그리고 10월에는 시장과 간부가 십수명씩 참가하는 이동시청 형태의 시민총대회지구집회가 시내의 16개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집회장으로 하여 순회한다. 이 때 청취된 시민의 요망과 의견은 정확하게 기록·정리되어 교류수첩의 기초가 된다. 이경우 시의회의원은 이 집회의 입회인이나 고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시장은 시정의 총지휘자이자 정책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시민총대회는 주민과위의 중심인물이 된다.

방지하는 ‘초월적 해결방식(transcendental solution)’에 의한 행정수요관리’의 중요한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³⁾. 행정수요의 관리는 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범위 즉 행정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양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주민의 자질은 이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4. 주민운동의 지원

주민운동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지방행정청이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한 질책이자 강력한 주민요

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주민운동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들을 적당히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인 전략으로써 시정발전의 촉진자를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장차 그간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던 ‘관변단체(QANGO)’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침투와 주민동원을 목적으로 사용했던 ‘반사회’를 자발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주민운동은 과거의 운동형이나 요구형

참가보다는 ‘정책지향형 참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바, 이러한 주민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행정과정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냐에 자치행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Ⅳ. 민본행정으로서의 자치행정 발전방향

지방행정은 종합행정, 생활행정, 봉사행정, 현장행정의 성격을 띠므로, 이를 주민과 밀착된 가두관료제(street bureaucracy)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청이 봉사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민들은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만족하게 되며, 어려운 행정과제에 대해 협력이라는 응답이

3) 행정수요의 관리란 자치행정에서 행정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정방식을 재검토하고 발상의 전환을 꾀하자는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①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 ②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공급만이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③공공서비스의 산출(생산 또는 공급)만으로 서비스전달의 책임을 다했다고 간주하는 사고방식 등이다. 여기에서 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서비스로 공급하지 않아도 될 것은 시민과 협의하여 행정수요로 귀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를 ‘행정수요의 관리’라고 하고 ‘민영화’나 ‘초월적 해결방식’이 이의 기법이 된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를 줄여가는 전략을 말한다. 그리고 ②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시장메카니즘과 참여메카니즘을 활용한 ‘서비스공급방식의 다원화’를 의미하며, ③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민본효과를 중시하는 ‘주민만족도의 관리’를 의미한다.

나오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민들과 밀착하여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바,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1. 주민교류 센터의 설치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행정체제의 구축은 종합봉사창구로서 ‘주민교류센터(communitiy center)’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장차 행정전산화의 발달로 점차 폐지될 동사무소를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센터는 주민들의 교류장소이자, 행정홍보와 주민여론의 수집창구인만큼 이곳에 반드시 ‘시·군민간담회’의 사무국을 두고,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정이나 군정에 반영토록 한다.

2. 민원봉사체제의 개선

공공서비스의 종합상사인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민원봉사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동생활권(moving neighborhood)의 거점인 시장, 지하철역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내에 ‘행정서비스창구’를 개설하여,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이동(순회)민원실’이나 각종 ‘고발센터(예: 소비자보호센터 및 환경고발센터)’를 확충해 나간다. 다음으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능동적인 여론수렴방식(민의수렴

기동반 등)을 통해 소외된 잠재욕구를 발굴해 내도록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옴부즈만(Ombusman) 제도의 도입

지방정부는 부당한 행정처분, 재량행위, 행정지도 등에 의해 주민의 개별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으로부터 고충을 접수하며 해당 사안에 관련한 행정부서에 대한 조사권과 의견표명권을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서의 시민옴부즈만은 1년간의 활동현황과 실적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원과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⁴⁾.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4) 얼마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의 43.5%가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기관임을 감안할 때, 고충민원의 중앙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행정감사와 주민의 고충을 신속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 줄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옴부즈만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와사키시 등의 일부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를 두가지만 들라면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이 ‘옴부즈만제도’일 것이다.

4. 커뮤니티 행정의 전개

커뮤니티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주민이 함께 공동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연대감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장인 지역사회 생활환경 정비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적인 연대감에 의거한 근린생활을 영위하려는 커뮤니티 형성의 노력이 요구된다⁵⁾. 이러한 활동은 커뮤니티의 주체인 주민 스스로 연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으로 교통안전, 방범·방재의 견지에서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가까운 사회복지시설·보호시설 등의 충실이나 일상의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등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보완·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커뮤니티행정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는 커뮤니티형성 추진사업, 커뮤니티 집회시설 건설,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커뮤니티지도자의 육성, 방재

훈련의 추진사업, 커뮤니티대학의 운영, 커뮤니티계획 형성에 대한 지원, 커뮤니티뉴스발행, 녹화사업이나 방범활동의 원조, 지구별 스포츠대회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시설의 관리와 운영비 조달의 역할분담에 관해 주민과 행정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에 행정은 돈이 없다고 해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생활행정’의 아이디어는 가정주부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소프트한 행정시책의 상당부분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차후 커뮤니티행정은 주민이 알기 쉽고, 협력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참고로 일본 三鷹市の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 교류하는 생활도시 새로운 커뮤니티의 창조를 추구하며 -”라는 커뮤니티시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본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주민과 주민의 교류를 기점으로, ii) 생활의식과 행동에 뿌리내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복지생활을 주민이 주체로 추진하며, iii) 주체적 참가를 위한 체제와 회로형성을 기초로 한 행동에 의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iv) 종합적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양성해서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성 회복과 개화를 지향하고 생명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추진

지방정부는 행정운영에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보다 주민에게 접근하는 주민 만족 지향의 민본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신의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각 지방정부는 각 부처의 공무원, 지방의원, 행정전문가, 주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개혁 추진기구’를 상설화하고, 자체 및 외부의 행정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전달의 성과측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제의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각 행정서비스별로 전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제의 성과를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그리

고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전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행정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의 결과 능률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서비스 전달체제(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서비스 공급결정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그 서비스 전달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해 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관련정책의 결정과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V. 맺는 말

이제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속에 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도시정부들은 각각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

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경쟁력있는 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으로 각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을 선택한다는 실리지향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제도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경쟁원리에 입각해 지역건설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정비에 충실을 기하므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은 지역이 가진 온갖 에너지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보다 독창적이고 단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진 자율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긴급한 것인가를 주민과 상의하

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
는 참여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은 지역사회의 디자인너
로서 지역과 주민을 도시행
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민본
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지 않
으면 안된다. 현대의 지방자
치단체는 통치단체로서의 정
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
주체라기 보다는 주민과 지
역사회로부터의 요구를 최대
한 충족시키는 경영단체로서
의 서비스기능을 발휘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행정기능을 보다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행
정기술의 향상, 관리부문의
축소에 의한 조직개선, 경영
의 합리화, 민간활력의 이용
및 광역협력체제의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거듭나
는 자치정부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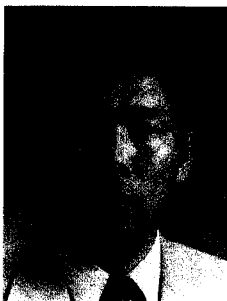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강천석 외, 지방경영시대, 조
선일보사, 1995.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都
道府縣의 행정개혁,
1986.
김일태, “자치시대 도시정부
의 행정책임과 도시
관리전략,” 도시문제,
제28권 제297호, 대
한 지방행정공제회,
1993.
——, “자치시대의 지방행
정개혁추진기반조성
에 관한 연구,” 지방
자치시대의 정치와
행정, 의춘(김동훈교
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3.
——, “도시개발정보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도시
문제, 제27권 제285
호,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1992.
——, 도시공공서비스전달
체제 평가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2.

- , “2000년대를 향한 부
천시 행정발전전략,”
인간도시 부천: 21세
기를 향한 새로 운
전개, 성심여대 사회
과학연구소, 1990.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시책: 아이디어 99선,
199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방법, 1995.
——, 최근의 일본 지방자
치현장, 1994.
윤주명, “도시공공서비스 공
급에 대한 공공생산
이론적 접근,” 지방자
치시대의 도시행정,
서울: 나남출판사,
1992.
이시재 외, 주민생활과 지방
자치, 서울: 형성사,
1991.
이주희,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서울: 무한출판사,
1994.
서울 21세기연구센터, 서울
21세기 구상: 도시행
정부문, 1994.
최창호, “국제화와 지방화시

- 대,” 지방자치의 자율
화와 국제화: 세미나
기조발표논문, 한국
지방자치학회제주지
회, 1994.
- 하종근, 지방자치단체의 경
영, 서울: 형성출판
사, 19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대지
방자치의 기능과 역
할, 1991.
- 細川護熙・岩國哲人, 김재환
(역), 지방의 논리,
서울: 민지사, 1992.
- David Osborne & Ted
Gabler, 삼성경제연
구소(역), 정부혁신의
길, 서울: 삼성경제연
구 소, 1994.
- 岸本重陳(편), 市民生活 と
自治體責任, 東京: 學
陽書房, 1989.
- 牛嶋 正, 現代の 地方自治 -
財政力 と 行政能力,
東京: 有斐閣, 1990.
- Hatry, Harry P. et al,
“How Effective Are
Your Community
Services?,” *Proce-
dure for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Municipal Servic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ublication Office,
1977.
- Ostrom, Vincent, *Compar-
ing Urban Service
Delivery System*,
Sage Publishers Inc.,
1977.



최 민 호
(崔旼鎬)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I. 서 론

지난해 6.27 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前後)하여 지방행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중의 하나가 『경영』이란 말이었을 것이다. 광역, 기초 할것 없이 거의가 그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경영화, 기업화를 내걸고 있고 학계·언론계에서도 『지방경영시대』, 『기업가형 지방경영』, 『지방경영 시대의 개막』, 『지방경영 흑자전략』 등 수많은 논고를 통하여 방향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논자들은 현시대를 『경영의 시대(the age of management)』라고 거침없이 표현하는데 인식해하지 않고 있다. 과연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tool)이 경영일 수는 있는가? 본질적으로 『경영행정』은 조합가능한 단어인가? 행정과정에 경영이 의미하는 기법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와 경영행정의 의미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경영행정』의 올바른 이

해와 구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초개념이라 믿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영과 행정의 발달과정과 각각의 목적, 그리고 경영과 행정의 관계를 조감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도에 접목가능한 경영행정의 진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경영과 행정은 양립 가능한 개념인가?

1. 경영의 의미

1) 개념

경영이란 말은 두가지 해석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식의 행동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의 조직개념이다. 물론 경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독일 학계와 미국학계에서 선발(先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독일학계에서는 경영·경제학을 중심으로 미국학계에서는 행동개념에 입각한 경영관리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이란 말은

“경영체(經營體)와 그 경영체를 운영하는 기능(management, administration)의 두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정수영, 1995, p.15) 라고 해석한다.

또 이 개념의 특질로는 『경제성 원리에 입각한 독립적 생산경제 단위의 활동』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반적 수준에서 경영이란 말을 다시 정의해 본다면 『개체로서의 사회적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고, 유지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전용수 외, 1995, p.6). 따라서 개체로서의 사회적 존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인생경영, 가정경영, 사회경영, 지방경영, 국가경영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2) 경영학의 발달사

미국의 경영학은 기업경영의 대규모화에 따라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용주의를 기반으로하여 생시초부터 실천적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관리과학』으로의 강한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1903년부터 1911년 사이에 이들의 연구는 이른바 테일러가 주창한 과거의 인습적 관리를 대신한 과학적 관리에 집점이 모아졌고, 1924년부터 1932년 까지는 소위 호오돈실험을 통한 인간관계론으로 발전되어져, 이후 복잡한 인간관에 접목될 수 있도록 동기유발론, 리더쉽론으로 확장되었다. 1938년에는 바나드에 의해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조직론이 선보여졌고, 이후 1945년 부터 사이몬에 의해 조직내 인간행동의 본질이 연구된 조직이론이 경영관리에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유효하다는 보편주의가 부정되고,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면 유효한 수단도 달라진다는 조건부 적합이론이 연구 발표되고 있다(정수영, 1995, pp.51-52).

3) 경영의 목적

경영의 목적은 개체로서의 사회적 존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개체가 다목적 존재인지 아니면 단일목적 존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이란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갖고 연구 발전되어 온 것은 기업경영이 가장 주된 것이었다. 따라서 경영이라 함은 일단 기업의 경영으로 한정시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서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이다. 경영기법과 경영철학에 있어 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론 및 환경론 등이 대두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엇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논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기업의 목적으로 존속, 성장, 생산성, 고객창조, 봉사 등을 들고 있기는 하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이윤추구”일 것이다.

2. 행정의 의미

1) 개념

행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하여 왔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 행정(general administration)인지, 아니면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인지 강조되는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오늘날에도 통일된 행정개념을 찾기는 어려우나 학자들에 따라, 공공행정을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협동적 집단행위(박응격, 1989, p.19), 공익실현을 위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공공정책 형성 및 구체화(박중서 외, 1989, p.19)로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여러 학자의 견해를 참고하여 종합해 보면, 공공행정이란 주민(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기관의 행동으로서 각종의 사업(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내무부, 1995,

p.19)으로 정의해 본다.

2) 행정학의 발달사

행정학의 연구는 최초 17-18세기에 신분제사회와 봉건 국가의 몰락과 함께 프러시아의 군주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여 군주의 재산과 국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료를 교육시키기 위한 행정기술과 경찰 국가화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후 경찰개념을 헌정(憲政)과 행정(行政)의 두개념으로 대체한 슈타인 행정학 이론이 제창되었으며, 1880년대에는 행정을 관리적,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한 기술적 행정학이, 그리고 1930년대에는 산업사회의 대정부 의존도 강화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수요를 수용하는 기능적 행정학이, 1940년대에는 기술적 행정학에서 주장하던 정치행정 이원론을 가치와 사실로 대체시켜 사실(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행정행태론이, 1960년대에는 정치보다 행정을 우위에 두고 행정이 국가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 관리하는 발전행정론으로 진전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전후(戰後) 복구를 위한 원조에 의해 후진국의 신속한 발전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한 비교행정론의 발전도 보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과거의 행정 내부적 능력과 조직위주의 연구를 벗어나 환경지향적 논리와 능률성에 효과성을 가미하여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목표에 추가하여 연구하는 학제로 발전하여 왔다.

3) 행정의 목적

행정의 목적은 정치권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공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창출에 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과 경영의 관계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행정에서 정치를 분리시키고

행정을 관리의 분야로 본 정치행정 이원론적 접근방법에서는, 공사행정 일원론적 시각으로 경영과 행정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행정의 정책결정 및 법령제정을 중시한 정치행정 일원론적 접근방법에서는 공사행정 이원론적 시각으로 경영과 행정 양자간의 차이점 규명에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적 접근방법으로 본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박응격, 1989, pp.7-10; 한국교육기획, 1990, pp.6-8).

1) 유사점

(1) 행정과 경영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유사하다.

(2) 행정과 경영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같이 조직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2) 차이점

(1) 행정은 불특정한 공익

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반해 기업으로 이해되는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행정은 기업에 비해 권력성을 가지고 주민을 강제한다.

(3) 행정은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업보다 능률면에서 뒤떨어지고 투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어렵다.

(3)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3) 행정은 헌법적 평등성으로 국민에 봉사하지만 경영은 평등이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행정은 능률성과 함께 주민의 정서와 감정이 깃들인 초능률의 개념인 민주성까지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않되나, 경영은 합리성과 능률성을 충족시키면 일단 그 목적은 달성된다.

4. 행정에의 경영개념 도입 검토

행정과 경영은 그 근본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이

라는 행정목표에 영리라는 경영의 목표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이든 경영이든 조직의 최대 효율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기법의 운용을 말한다면 양자간 만큼 유사한 개념도 또한 드문것이라 본다. 물론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후발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공권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사기업 비중이 낮아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양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비중이 국가조직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더욱더 확대되는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기업경영의 성공기법은 행정에서도 적극 귀를 기울여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더욱이 행정과 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상승효과를 이루어 내지 않으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실한 시점에서 행정의 발

전이 기업의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여기서 경영행정이란 행정에 있어서도 성공한 경영의 기법과 요인을 충분히 도입하자는 맥락에서 새롭게 탄생된 개념이자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경영행정 개념의 재정립

1. 경영행정의 분석

경영행정이라는 개념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 경영행정은 크게 두가지 노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노력이고, 또다른 하나는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재정력 확충 노력이다.

1)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①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예: 행정 내부시간관리, 민원 처리기간

단축, 규제완화, 권한이양 등), ②예산의 효율적 사용, ③조직의 합리적 개편 등을 들 수 있으며

2)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재정력 확충 노력으로는

①골재채취사업, ②공영개발, ③생수판매사업, ④제3·제4섹타사업(예: 私鐵 제도 도입, 컨테이너항 건설, 역세권개발사업 등), ⑤새로운 지방세의 신설(예: 관광세, 발전세 등)노력 등이 그것이다.

2. 경영행정의 모순과 한계

1) 능률성과 효과성의 한계
행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열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추진가능한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와 재정력 확충에는 많은 자체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곧 행정과 경영의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점도 있 으려니와 본질적인 이념상의 특징에서 연유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운영상의 한계

행정조직은 바로 주민과 접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의 하는 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규제되어 필요에 따라 하루 아침에 사기업과 같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경직성어가 지고 있다.

(2) 인사운영상의 한계

행정조직에 있어 구성원에 대한 인사는 이를 규율하는 각종 인사법규와 인사위원회 등에 의해 제한을 받아 승진 소요년수 제한, 전보제한 기간의 설정, 직렬별 불부합배치 배제 등의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특수한 상황과 효과적인 배치에 있어서 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알면서도 이의 도입이 곤란하다.

(3) 예산 운영상의 한계

예산은 편성에서 회계검사까지 3년의 순기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의 책임성을 제1의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필

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집행에 있어서도 심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마인드 컨트롤의 한계

행정은 행정의 존립목적상 당장은 일이 없어도 행정 스스로가 아니면 안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과 조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소방조직, 민방위조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5) 사업성과 예측의 한계

행정은 도로의 건설이나 치수, 농지의 조성 등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문도 많이 있지만 정신함양, 복지시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문도 많아 이들에 대한 일률적인 성과측정이나 부문간의 비교 우위적인 효과성 검증이 어렵고 관광지 개발과 같이 행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의 복지증진 시책은 즉시적인 효과성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6) 민주성의 강조에 의한 제약

행정은 상위기관, 의회, 언론, 압력단체 등에 의해 견제되고 감시 조정되어, 그 행위에 있어 민주성을 요구받게 되므로 능률성과 효과성만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행정의 수비범위

경영수익사업으로 행정이 간여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고전적 의미의 행정의 수비범위는 ①초기비용이 과다한 부문, ②기술부족 부문, ③투자회수기간이 장기적인 부문 등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진출이 곤란한 부문을 행정의 수비영역으로 볼 수 있었다. 오늘날 행정의 수비범위는 지방자치 실현과 함께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자원확보가 우선시됨에 따라 사기업 부문까지 진출·경합하는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의 영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문을 행정이 잠식하여 국가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먹는 샘물의 개발이라

든지, 쌀매장의 개설, 주유소의 운영 등에 행정이 간여할 경우 민간부문의 마찰과 희생을 필연적으로 강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부문에 대한 관여시 운영상의 효율성도 민간부문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행정의 재정확충 수요는 조세에 의한 충당이나 내부행정 과정의 절약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경영행정 구현의 진로

1.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증대

행정은 행정자체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므로써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1) 조직개편을 통한 환경에 대한 시스템의 대응탄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통제위주의 각종 제도를 정비·완화하여 자율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사에 있어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반 정책이 추진되어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일환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확대와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의 우대 임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3) 행정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시스템의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로서 행정장비의 첨단화, 사무의 전산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부문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능률성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행정내부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마인드를 향상시켜 같은 시간대의 업무처리 효율을 증가시키는 등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4) 예산사용의 효율화

이미 정착되어가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의 장기계획과 투자 우선순

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의 사후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효과성 검증을 통한 절약과 집행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비계량적 사업성과도 존중하는 의식의 확산, 도의 정신의 함양, 주민지도, 사회복지시책 추진, 관광지 개발 등 당장에 투입과 산출의 효과측정이 곤란한 사업도 존중하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6) 건전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선거문화 개선 등도 필요하다.

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보완기능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행정은 앞으로 더욱 조정력을 발휘하여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행정은 기획하고 기업은 집행하는 체제를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행정의 수비사업(공공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원

칙을 견지하면서 이 속에서 수익성 증대와 비효율성을 제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행정에서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을 재구성(restructuring)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재설계(reengineering)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은 이제 개선의 문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내부의 행정행태 개선을 통하여 “좀더 빨리 좀더 많이” 주민에게 봉사하여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행정이 기업의 활동에 있어 일부분 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길만이 행정의 존재가치를 결정짓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경영수익사업을 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길로의 행정이 과연 지역의 발전과 부를 창출·추적해 가는 길인가를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박물관을 예로 들면, 눈앞의 경영수익적 측면만을 강조할 때 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증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유럽의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의 그 유명한 박물관은 오히려 입장료를 받지 않고 관광시킴으로 해서,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그 지역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어떤 이는 행정은 한약이며 기업은 양약이라 설파하기도 한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본질론에 착근함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경영행정도 바람직하게 발전의 틀을 마련해 가야 한다. 자칫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은 스스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자연을 훼손하며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노정(露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태 외, 행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6.
박동서 외, 지방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박응격, 행정학강의, 박영사, 1989.
서원고, 지방경영 흑자전략, 비봉출판사, 1995.
정수영, 신경영학원론, 박영사, 1995.
전용수 외, 현대경영학, 법문사, 1995.
조근태, 경제용어사전, 현암사, 1993.
충남교육원, 행정학, 동양문화인쇄, 1995.
충청남도, 경영행정 기본계획, 1995.
한국교육기획, 행정학, 199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지방경영시대의 개막과 전략, 서울컴퓨터인쇄사, 1995.



연구원 사업

◆ 연구원 사무식

丙子年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무식이 지난 1월 3일(水) 오전 10시 안승주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개원준비, 용역수주, 당면사업 추진 등 지난 5개월간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새해에는 직원상호간 인화하는 가운데 연구의 질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1월 26일(水) 백제고증, 개도백년사 등 2건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타당성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 제4차 이사회(정기) 개최

2월 27일(火) 오전 11시 충청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심대평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1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제

1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 직제규정 개정, 인사관리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용역사업규정 개정, 95년도 회계결산 등 6건의 부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96년도 충청남도의회 업무보고

3월 7일(木) 오후 2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재봉)에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본원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9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현황,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 연구원 장기발전 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었다.

◆ 중소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3월 15일(金) 오후1시 유성아드리아호텔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과제를 규명하고 이에대한 지방 및 중앙의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지방정책 토론회를

본원(원장 안승주)과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96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3월 27일(水) 오전 10시 유성리전드호텔에서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보고와 95년도 사업실적 및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 수탁연구사업

☞ 4대 권역별 개발경영사업 연구용역(95. 12. 4 - 96. 4. 1)

충청남도를 권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권역별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최적의 개발대안을 모색하고 계획기간내 도정의 목표달성의 및 기반구축의 기초를 확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 서산해미기지 민항기 취항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95. 12. 4 - 96. 4. 1)

서해안의 대규모 신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신도시 건설, 금강
권 · 서해안권 · 백제문화권 · 금
강권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완
료 또는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
산업물동량과 관광객 및 유동인
구 증가에 따른 수송문제에 대
비하기 위해, 97년 완공계획으
로 사업이 진행중인 K-Z기지에
민항기를 취항시키는 방안의 타
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 사 연구용역(95. 12. 20 - 96. 5. 17)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발전잠재력을 극대
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 도청이 이전할 최
적 입지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 성 연구용역(95. 12. 29 - 96. 6. 25)

農業道로서 급변하는 국내 ·
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기
술보급, 정보제공, 교육체험, 농
업관광, 이벤트사업 등의 기능
을 포괄하는 충청남도 농업종합
센터 청사진을 제시

☞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 연구용역(96. 3. 7 - 96. 9. 2)

우리나라 3대 문화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백제문화제 행
사에 대한 기본적인 학술자료의
고증과 정리를 통해 백제문화제
사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원

☞ 재난 유형별 관리모형의 프 로그램개발 연구용역(96. 3. 25 - 96. 8. 21)

충청남도의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요인과 특성, 대처방안 등
을 연구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의 주요 내용은 연구원의 효율
적 운영,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
많은 내용이 토의되었으며 특
히, 지방연구원 육성법안 제정
을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
울이기로 결의했다.

◆ 백제문화재 반환을 위한 일 본방문

2월 1일부터 7일(水)까지 백
제문화재 반환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반환대상
문화제에 대해 조사했다.

◆ 내무부장관 간담회 참석

2월 16일(金) 내무부에서 개
최된 내무부장관과 시·도연구
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 문화재 위원회 참석

2월 22일(木) 문화체육부 주
관으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의
에 참석했다.

원장동정

◆ 시·도 연구원장회의 참석

1월 19일부터 20일(土)까지
경남개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시·도연구원협의회 상반기 정
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

연구원 활동

◆ 이강선 책임연구원은

☞ 1995년 12월부터 1996년 2
월까지 내무부 지방재정발전기
획단 세제반 연구위원으로 참여
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간의 세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 3월 15일(금) 오후 2시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본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화시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지방정책 토론회에서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 박진호 연구원은

☞ 2월 14일(수)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주관으로 대전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호남고속철도 대전지역 경유 타당성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 3월 18일부터 22일(금)까지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김창호 교수와 함께 시찰했다. 이번 방문에서 구마모토현(熊本縣) 농업연구센터의 조성배경 및 운영사례, 지역 사회 기대효과 등을 파악했다.

◆ 송두범 연구원은

☞ 2월 24·25일(日) 양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위원 토론회를 주관하고, 연구의 범위, 내용, 진행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합동으로 토의했다.

☞ 3월 4일부터 7일(木)까지 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日本 東京에서 UNCRD가 주최한 “Relocation of Capital Function as a New Urban Strategy for Decongesting Major Metropolises”라는 주제의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이성근 교수와 함께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목적은 행정수도 및 기관의 이전사례, 후보지 선정에 위한 입지기준 및 정책의 결정과정, 신도시 개발사례 등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 이인배 연구원은

☞ 1월 22일(月) 충청남도청에서 개최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검토에 관한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 1월 29일부터 2월 3일(土)까지 K-Z기지 민항기 취항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 3월 12일(火) K-Z기지 민항기취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 심문보 연구원은

☞ 1월 24일부터 1월 30일(火)까지 지역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충청남도 4대권역별 개발경영 사업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각 시·군의 건의사항 및 지역개발 계획을 파악코자 충청남도 지역경제과 직원과 함께 15개 시·군을 순회했다.

☞ 2월 29일(木) 오후 1시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포스코경영연구소 공동으로 개최한 환경정책과 환경경영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원고투고요령

일반사항

1. 원고분량 : 200자원고지 45매 내외
2. 원고형식
 - 1) 첫째 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국·한문 성명, 소속기관, 현직위를 기재.
 - 2) 둘째 페이지에 300자 내의 논문요약과 저자의 소속기관 및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원고료송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
 - 3) 셋째 페이지부터 논문의 내용(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을 기재.
3. 출력물 : 아래아한글 25 또는 30을 이용하여 작성한 논문 2부와 디스켓 1장.
4. 원고심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본문주

1. 본문 안의 인용은 다음 예시에 따르고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말미에 기재.
예시) (정지웅, 1995, p.30) 또는 정지웅(1990, p.30)
2. 내용주(content notes)는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참고문헌

저자, 논문명(또는 서명), 출판사(항), 연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하되 논문은 “ ”안에 가입하고 서명은 고딕(외국어 서명은 이탤릭)으로 표시.

예시) ○국내논문 : 임양빈, “지방화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제1권 제1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pp.14-35.

○단행본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1995.

○외국논문 : Batina, R.G., “Public Goods and Dyna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pp.389-400.

○외국단행본 : Frenkel, J.A., and Razin, A., *Fiscal Policy and the World Economy*, Cambridge : MIT Press, 1987.

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은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새로운 내용 및 정보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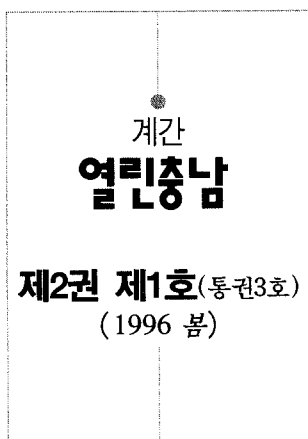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 301-06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 발 행 인 / 안승주

■ 편집위원 / 이강선 / 박진호 / 송두범 / 심문보 / 이인배

■ 등록번호 / 바-2531

■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우)301-060

(전화) 042-222-2161~3

(팩스) 042-222-2164~5

■ 디자인·인쇄 / 대 문 사

(전화) 042-624-4635

■ 인 쇄 / 1996년 3월 26일

발 행 / 1996년 3월 30일

열린충남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301-0600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48-1
TEL.(042)222-2161 ~ 3 FAX.(042)222-2164 ~ 5